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호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김상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가정폭력,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에 더하여 최근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등의 급증은 우리 사회에 젠더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해 있는지 나타냅니다. 젠더폭력은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가 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피해와 예방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여 정책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의 안전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젠더안전지표 연구는 2016년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2.0 정책 과제로 추진되어, 1차 연구에서 여성 안전 범주를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에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까지 확대 정립하고, 2차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안전 환경 분야를 추가하여 젠더안전지표 실측 및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대상 시범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1차, 2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젠더안전지표 중에서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른 도시의 안전 수준과 비교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조사와 면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신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심도 있게 조언해주신 자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서울시 여성 안전 정책의 발전과 서울시 여성의 안전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 론 _ 01

|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
| 3. 연구 추진 체계 | 7 |
| 4. 젠더안전지표 관련 연구 | 8 |

II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_ 13

| | |
|--------------------------------------|----|
| 1. 2016년, 2017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 15 |
| 1) 2016년, 2017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 15 |
| 2) 2017년 젠더안전지표의 수정 | 20 |
| 2.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 22 |
| 1)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체계 | 22 |
| 2) 지표의 세부내용 및 자료원 | 25 |
| 3) 미생산 자료원의 신규조사 문항 개발 | 30 |

Ⅲ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측정 결과 _ 35

-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분야별 측정 결과37
 - 1) 젠더폭력안전 분야37
 - 2)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46
 - 3) 생활안전 분야51
 - 4) 안전환경 분야52
- 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지역별 측정 결과58
- 3. 소결77

Ⅳ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산출 및 분석 _ 93

-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선정 95
 - 1) 조사 개요 95
 - 2) 조사 및 분석 방법 98
 - 3) 대표지표 선정 결과 100
- 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가중치 산출 108
 - 1) 조사 개요 108
 - 2) 대표지표 가중치 조사 결과 109
 - 3) 대표지표 지표값 산출 110
- 3. 지역 비교용 지표 가중치 산출 116
 - 1) 조사 개요 116
 - 2) 지역 비교용 지표 가중치 조사 결과 117
 - 3) 지역비교용 지표의 지표값 산출 118

4.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분석131
1)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시계열 분석 132
2) 서울시, 6대 도시, 15개 시·도 젠더안전 수준 비교 분석 .. 137
3) 시사점 142

V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관리방안 _ 147

1. 지표 관리 방안 149
2. 통계 생산 방안 152
3.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_160

Abstract_161

부록_163

표 목차

| | |
|---|----|
| 【표 I-1】 여성안전지표 관련 국내연구 | 8 |
| 【표 II-1】 2016년 젠더안전지표 | 16 |
| 【표 II-2】 2017년 젠더안전지표 | 17 |
| 【표 II-3】 2018년 젠더안전지표의 체계 | 22 |
| 【표 II-4】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젠더폭력안전 분야) | 25 |
| 【표 II-5】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 27 |
| 【표 II-6】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생활안전 분야) | 28 |
| 【표 II-7】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안전환경 분야) | 29 |
| 【표 II-8】 신규조사 필요지표 | 31 |
| 【표 II-9】 신규조사 문항 개발 | 31 |
| 【표 III-1】 서울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 | 38 |
| 【표 III-2】 서울시 가정폭력 재범률 | 38 |
| 【표 III-3】 서울시 성폭력 112 신고건수 | 39 |
| 【표 III-4】 서울시 성폭력 기소율 | 40 |
| 【표 III-5】 서울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40 |
| 【표 III-6】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 | 41 |
| 【표 III-7】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 42 |
| 【표 III-8】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42 |
| 【표 III-9】 서울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43 |
| 【표 III-10】 서울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43 |
| 【표 III-11】 전국 디지털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44 |
| 【표 III-12】 전국 디지털성폭력 영상삭제 지원건수 | 44 |
| 【표 III-13】 서울시 성희롱 상담건수(여성) | 45 |
| 【표 III-14】 서울시 성매매 상담건수 | 45 |
| 【표 III-15】 서울시 자율방범대 참여자 | 46 |
| 【표 III-16】 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46 |
| 【표 III-17】 서울시 자연재해 인명피해 | 47 |
| 【표 III-18】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 | 47 |
| 【표 III-19】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48 |

Table Contents

| | |
|--|----|
| 【 표 III-20 】 서울시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 48 |
| 【 표 III-21 】 서울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49 |
| 【 표 III-22 】 서울시 의용소방대 참여자 | 49 |
| 【 표 III-23 】 서울시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50 |
| 【 표 III-24 】 서울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50 |
| 【 표 III-25 】 서울시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51 |
| 【 표 III-26 】 서울시 재난취약가구 무상 안전 점검·조치 건수 | 52 |
| 【 표 III-27 】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52 |
| 【 표 III-28 】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수 | 53 |
| 【 표 III-29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개소수 | 53 |
| 【 표 III-30 】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수 | 54 |
| 【 표 III-31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54 |
| 【 표 III-32 】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실적 | 55 |
| 【 표 III-33 】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55 |
| 【 표 III-34 】 서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56 |
| 【 표 III-35 】 서울시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56 |
| 【 표 III-36 】 서울시 주민 1만명 당 병상 수 | 56 |
| 【 표 III-37 】 서울시 도시안전대책 예산 | 57 |
| 【 표 III-38 】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 | 57 |
| 【 표 III-39 】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58 |
| 【 표 III-40 】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검거건수 | 60 |
| 【 표 III-41 】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재범률 | 61 |
| 【 표 III-42 】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건수 | 62 |
| 【 표 III-43 】 성폭력사범 기소율 | 64 |
| 【 표 III-44 】 디지털성폭력사범 기소율 | 65 |
| 【 표 III-45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66 |
| 【 표 III-46 】 전국 시도별 자연재해 인명피해 발생건수 | 67 |
| 【 표 III-47 】 전국 시도별 화재 인명피해 발생건수 | 69 |
| 【 표 III-48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71 |
| 【 표 III-49 】 전국 시도별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 | 72 |
| 【 표 III-50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 73 |
| 【 표 III-51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 74 |
| 【 표 III-52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 76 |

Table Contents

| | |
|---|-----|
| 【 표 III-53 】 1인당 여성안전대책예산 비율 | 77 |
| 【 표 IV-1 】 1차, 2차 전문가 조사 참여자 개요 | 97 |
| 【 표 IV-2 】 전문가 조사지 문항 형식 | 97 |
| 【 표 IV-3 】 언어값들에 대응한 퍼지넘버 | 99 |
| 【 표 IV-4 】 젠더폭력 안전 분야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100 |
| 【 표 IV-5 】 젠더폭력 안전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101 |
| 【 표 IV-6 】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102 |
| 【 표 IV-7 】 생활안전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103 |
| 【 표 IV-8 】 안전환경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104 |
| 【 표 IV-9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 | 105 |
| 【 표 IV-10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대표지표) | 106 |
| 【 표 IV-11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이슈지표) | 107 |
| 【 표 IV-12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관리지표) | 107 |
| 【 표 IV-13 】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 109 |
| 【 표 IV-14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0년-2016년) | 111 |
| 【 표 IV-15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0년-2016년) | 112 |
| 【 표 IV-16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0년-2016년) | 112 |
| 【 표 IV-17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0년-2016년, 총점) | 113 |
| 【 표 IV-18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0년-2016년, 특성별) | 113 |
| 【 표 IV-19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5년-2017년) | 114 |
| 【 표 IV-20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5년-2017년) | 114 |
| 【 표 IV-21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5년-2017년) | 115 |
| 【 표 IV-22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5년-2017년, 총점) | 115 |
| 【 표 IV-23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5년-2017년, 특성별) | 116 |
| 【 표 IV-24 】 3차 전문가 조사 참여자 개요 | 117 |
| 【 표 IV-25 】 젠더안전지표 지역 비교용 지표의 가중치 | 117 |
| 【 표 IV-26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6년) | 118 |
| 【 표 IV-27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6년) | 119 |
| 【 표 IV-28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6년) | 120 |
| 【 표 IV-29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총점) | 120 |
| 【 표 IV-30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2016년, 특성별) | 121 |
| 【 표 IV-31 】 서울시 및 6대 도시 2017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7년) | 122 |
| 【 표 IV-32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7년) | 122 |

Table Contents

| | | |
|-----------|--|-----|
| 【표 IV-33】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7년) | 123 |
| 【표 IV-34】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7년, 총점) | 123 |
| 【표 IV-35】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7년) | 124 |
| 【표 IV-36】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6년) | 124 |
| 【표 IV-37】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6년) | 125 |
| 【표 IV-38】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6년) | 126 |
| 【표 IV-39】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총점) | 127 |
| 【표 IV-40】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 128 |
| 【표 IV-41】 |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6년) | 129 |
| 【표 IV-42】 |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6년) | 129 |
| 【표 IV-43】 |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6년) | 130 |
| 【표 IV-44】 |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총점) | 130 |
| 【표 IV-45】 |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특성별) | 130 |
| 【표 IV-46】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2017년, 총점) | 140 |
| 【표 IV-47】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분석 주요 결과 | 143 |
| 【표 V-1】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관리 주체 | 151 |
| 【표 V-2】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 152 |
| 【표 V-3】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통계 생산 현황 | 153 |
| 【표 V-4】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통계 보완사항 및 장기적 생산(안) | 154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I-1】 서울시 가정폭력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 | 78 |
| 【그림 III-2】 서울시 성폭력 112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 | 78 |
| 【그림 III-3】 서울시 성희롱 상담건수(여성) | 79 |
| 【그림 III-4】 서울시 성매매 상담건수 | 79 |
| 【그림 III-5】 서울시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 79 |
| 【그림 III-6】 서울시 디지털성폭력 발생건수 | 80 |
| 【그림 III-7】 서울시 자연재해 인명피해 | 81 |
| 【그림 III-8】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 | 81 |
| 【그림 III-9】 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82 |
| 【그림 III-10】 서울시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82 |
| 【그림 III-11】 서울시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 83 |
| 【그림 III-12】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83 |
| 【그림 III-13】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84 |
| 【그림 III-14】 서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84 |
| 【그림 III-15】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 | 85 |
| 【그림 III-16】 서울시 및 전국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86 |
| 【그림 III-17】 서울시 및 전국 가정폭력 검거건수 | 86 |
| 【그림 III-18】 서울시 및 전국 성폭력 발생건수 | 87 |
| 【그림 III-19】 서울시 및 전국 성폭력 기소율 | 87 |
| 【그림 III-20】 서울시 및 전국 디지털성폭력 기소율 | 87 |
| 【그림 III-21】 서울시 및 전국 자연재해 인명피해 발생건수 | 88 |
| 【그림 III-22】 서울시 및 전국 화재 인명피해 발생건수 | 88 |
| 【그림 III-23】 서울시 및 전국 생활안전 사고 인명피해 건수 | 89 |
| 【그림 III-24】 서울시 및 전국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89 |
| 【그림 III-25】 서울시 및 전국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 90 |
| 【그림 III-26】 서울시 및 전국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 90 |
| 【그림 III-27】 서울시 및 전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91 |
| 【그림 III-28】 서울시 및 6대 도시 여성안전대책 예산 | 91 |
| 【그림 IV-1】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분석 개요 | 131 |

Picture Contents

| | |
|---|-----|
| ■ 그림 IV-2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0년-2016년, 총점) | 132 |
| ■ 그림 IV-3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0년-2016년, 위험 발생) | 133 |
| ■ 그림 IV-4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0년-2016년, 지원·행정역량) | 133 |
| ■ 그림 IV-5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 각 년도(2010년-2016년) | 134 |
| ■ 그림 IV-6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5년-2017년, 총점) | 135 |
| ■ 그림 IV-7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5년-2017년, 위험 발생) | 136 |
| ■ 그림 IV-8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5년-2017년, 참여·행정역량) | 136 |
| ■ 그림 IV-9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 각 년도(2015년-2017년) | 137 |
| ■ 그림 IV-10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2017년, 총점) | 138 |
| ■ 그림 IV-11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2017년, 위험 발생) | 139 |
| ■ 그림 IV-12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2017년, 지원·참여·행정역량) | 139 |
| ■ 그림 IV-13 ■ 서울시 및 15개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총점) | 140 |
| ■ 그림 IV-14 ■ 서울시 및 15개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위험 발생) | 141 |
| ■ 그림 IV-15 ■ 서울시 및 15개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참여·행정역량) | 141 |
| ■ 그림 IV-16 ■ 서울, 6대 도시, 9개도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 142 |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3년 서울시는 급증하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도시 전체에 여성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16년 여성안심특별시 2.0, 2017년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지속하여 추진해왔음.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와 환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여성안심특별시 2.0에서는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제가 포함된 바 있음. 이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16년 젠더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강희영·정소라, 2016)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여성안전의 개념을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에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까지 포괄하였으며 여성과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포함함. 이어서 2017년에 젠더안전지표 개발에 따른 실측 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국미애 외, 2017)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안전 분야를 젠더폭력안전, 자연재해·사회재난안전, 생활안전, 안전환경 등 4개 분야로 재조정하였으며,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60개로 구성하였음. 그리고 실제 측정가능한 지표에 한해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시범적으로 비교함.
- 본 연구는 이러한 1, 2차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작업인 3차 연구로서, 지금까지 개발된 젠더안전지표를 정교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연구의 주요 내용은, 2차 년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젠더안전지표 중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는 것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실제 적용하여 서울시 여성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젠더안전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은 첫째,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구성하고, 이 지표의 내용과 산식,

자료원에 대하여 제시함. 둘째, 전체 젠더안전지표를 서울시 상황에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함. 셋째, 젠더안전지표 중 대표지표를 선정하는 동시에,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를 구분함. 선정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함. 그리고 일부 대표지표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와 지역비교용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함. 넷째, 산출된 젠더안전지수로서 서울시의 시계열적 젠더안전 수준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다섯째,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 자료, 홈페이지 내용을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분석함. 둘째, 전문가 면접조사를 수행함. 2017년 젠더안전지표(안)의 일부 조정, 신규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 대표지표 선정 및 가중치 적용 방식, 방법론 선택, 지표 관리방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임. 셋째, 세 차례의 전문가조사를 수행함. 1차 조사는 대표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선정된 대표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함. 3차 조사는 일부 대표지표로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위한 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함. 전문가 조사에서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을 활용함.

□ 연구 결과

- 2016년, 2017년에 걸쳐 개발된 젠더안전지표에 일부 지표를 추가, 수정함.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임. 추가한 지표는 젠더폭력안전 분야에서 스토킹 피해건수, 성희롱 신고건수, 성희롱 상담건수, 성매매 상담건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등 총 5개임. 또한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와 디지털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건수 지표로 분리하였음. 이로써 기존의 60개 지표에서 6개를 추가하여 총 66개의 지표를 구성함(자세한 내용은 본문 및 [부록 1] 참조).

< 2018년 젠더안전지표의 체계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젠더 폭력 안전 (24개) | 현황(17개) | 발생, 지원 | 생활 안전 (9개) | 현황(4개) | 발생, 지원 |
| | 참여(3개) | 대표성, 공동체, 교육 | | 참여(3개) | 공동체, 교육 |
| | 인식(4개) | 체감도, 인지 | | 인식(2개) | 체감도, 인지 |
| 자연 재해 · 사회 재난 안전 (15개) | 현황(6개) | 발생, 지원 | 안전 환경 (8개) | 현황(4개) | 인프라, 이용자 |
| | 참여(6개) | 대표성, 공동체, 교육 | | 참여(4개) | 대표성, 공동체 |
| | 인식(3개) | 체감도, 인지 | 안전 환경 (10개) | 인식(5개) | 체감도, 인지 |
| | | | 행정역량 (간접지표 /연도별 증감)(5개) | | |

-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체감도와 인식지표 등을 비롯한 몇몇 지표들은 자료원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신규조사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매년 진행 중인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에 추가하거나 문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신규조사가 필요하여 문항을 제시한 지표는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처럼 안전관련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총 13개에 해당함.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분야별 측정결과를 제시함.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대표 지표와 이슈지표 중 일부 지표로써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다른 6대 도시 또는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여 측정하였음(자세한 내용은 III장 참고).
- 본 연구에서 4개 분야, 총 66개 지표로 구성한,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지표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을 제고하고 정교화 하고자 전체 지표 중 일부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1차 전문가조사를 수행하여 도출된 안전 분야별 지표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하여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분하였음. 대표지표만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대표지표)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수 |
|-------------|-----|---------------------|---------------------------------|-----|
| 젠더 폭력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 13개 |
| | | | 가정폭력 재범률 | |
| | | | 성폭력 112신고건수 | |
| | | | 성폭력 기소율 | |
| | | | 성희롱 신고건수 | |
| |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
| | | | 성매매 상담건수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
| 참여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 |
| 자연 재해 사회 재난 | 인식 | 체감도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6개 |
| | | 인지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
| | 현황 | 발생 | 자연재해 인명피해 | |
| | | 화재 인명피해 | | |
| | 지원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 |
| | 참여 | 교육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
| 인식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4개 |
| | 참여 | 공동체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
| 인식 | 체감도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안전 환경 안전 환경 | 현황 | 발생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7개 |
| | 참여 | 대표성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
| | | 공동체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
| | 인식 | 체감도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체감도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
| 행정역량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 |

- 다음으로 2차 전문가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에 가중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30개에 대하여 도출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
| 젠더 폭력 안전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0.714 | 자연 재해 사회 재난 | 자연재해 인명피해 | 0.705 |
| | 가정폭력 재범률 | 0.952 | | 화재 인명피해 | 0.705 |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0.714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0.705 |
| | 성폭력 기소율 | 0.952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940 |
| | 성희롱 신고건수 | 0.714 |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940 |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0.714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940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0.714 | 생활 안전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710 |
| | 성희롱 상담건수 | 0.714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0.947 |
| | 성매매 상담건수 | 0.714 |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0.947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0.952 | 안전 환경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947 |
|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0.952 |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0.722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0.952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0.962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0.952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0.962 |
| | |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0.962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0.962 |
| |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0.962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0.962 | |

- 이와 같이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지표의 지표값을 산출함. 현재 지표 생산의 제한으로 서울시 2010-2016년, 2015년-2017년을 별도로 수행한 것임. 지표값을 표준화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여성이 더욱 안전하도록 구성하였

음.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한 것임.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0년-2016년, 특성별) >

| 구분 | 총점(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 자연재해 사회재난 발생 | 자원·행정역량 |
|------|----------|---------|--------------|---------|
| 2010 | 10.90 | 11.66 | 100.00 | 11.18 |
| 2011 | 44.34 | 79.36 | 13.64 | 44.35 |
| 2012 | 55.51 | 65.42 | 44.65 | 100.00 |
| 2013 | 97.03 | 100.00 | 100.00 | 14.18 |
| 2014 | 0.00 | 27.82 | 0.00 | 0.00 |
| 2015 | 100.00 | 27.16 | 63.10 | 87.18 |
| 2016 | 83.76 | 0.00 | 63.10 | 94.37 |

* 사용 지표(11개) : 가정폭력 제범률, 성폭력 기소율, 가정폭력 상담건수, 성폭력 상담건수, 성희롱 상담건수, 성매매 상담건수, 상담소·보호시설 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여성안전대책예산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5년-2017년, 특성별) >

| 구분 | 총점(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 참여·행정역량 |
|------|----------|---------|----------------------|---------|
| 2015 | 0 | 0 | 100 | 0 |
| 2016 | 100 | 100 | 81.28 | 53.23 |
| 2017 | 60.27 | 58.38 | 0 | 100 |

* 사용 지표(9개) :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가정폭력 제범률, 성폭력 기소율,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 여성인명피해,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수, 여성안전대책 예산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가운데 지역 비교를 위한 지표 10개를 정하여 가중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각 분야에서 지역별 통계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일부 지표는 대표지표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 대체한 것임.

< 젠더안전지표 지역 비교용 지표의 가중치 >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
| 젠더 폭력 안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0.8679 | 자연 재해 사회 재난 | 자연재해 인명피해 | 0.7900 |
| | 가정폭력 재범률 | 0.8971 | | 화재 인명피해 | 0.7281 |
| | 성폭력 발생건수 | 0.9111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8498 |
| | 성폭력 기소율 | 0.8839 | 생활 안전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6040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 시설수 | 0.8393 | 안전 환경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0.8177 |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 0.7891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 0.8038 | |

○ 이와 같이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와 6대 도시의 지표값을 산출함. 2016년, 2017년의 자료를 통해 최근 현황을 확인함. 지표값을 표준화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여성이 더욱 안전하도록 구성하였음.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한 것임.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2016년, 특성별) >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47.32 | 0.00 | 82.24 | 100.00 |
| A | 57.88 | 96.81 | 62.59 | 25.07 |
| B | 73.77 | 80.17 | 85.53 | 52.43 |
| C | 0.00 | 16.71 | 51.53 | 13.58 |
| D | 100.00 | 100.00 | 100.00 | 66.75 |
| E | 6.75 | 20.22 | 70.87 | 0.00 |
| F | 49.81 | 85.13 | 0.00 | 99.52 |

* 사용 지표(12개)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 발생건수, 성폭력 기소율, 상담소·보호시설 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사고 여성인명피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여성안전대책예산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7년, 특성별) >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66.05 | 45.65 | 2.40 | 100.00 |
| A | 100.00 | 100.00 | 89.09 | 29.73 |
| B | 71.23 | 76.29 | 100.00 | 0.00 |
| C | 62.21 | 54.89 | 31.31 | 59.93 |
| D | 88.73 | 77.78 | 77.31 | 46.98 |
| E | 0.00 | 0.00 | 0.00 | 38.74 |
| F | 46.36 | 76.79 | 1.00 | 20.78 |

* 사용 지표(11개)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 제범률, 성폭력 발생건수, 성폭력 기소율, 상담소·보호시설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사고 여성인명피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여성안전대책예산

- 동일한 과정으로 서울시와 15개 시·도 그리고 시지역과 도지역을 범주화하여 지표값을 산출함. 2016년의 자료를 통해 최근 현황을 확인함. 지표값을 표준화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여성이 더욱 안전하도록 구성하였음.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한 것임.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특성별) >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 (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47.42 | 21.65 | 85.52 | 46.98 |
| A | 69.03 | 100.00 | 45.49 | 32.71 |
| B | 72.48 | 70.02 | 88.27 | 32.66 |
| C | 40.71 | 40.55 | 77.00 | 0.00 |
| D | 100.00 | 81.93 | 91.09 | 100.00 |
| E | 38.61 | 24.63 | 83.23 | 14.15 |
| F | 71.33 | 55.13 | 73.20 | 84.01 |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 (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G | 37.56 | 19.18 | 95.27 | 1.08 |
| H | 72.35 | 52.61 | 92.69 | 59.68 |
| I | 65.81 | 63.71 | 87.94 | 22.63 |
| J | 93.16 | 97.68 | 82.90 | 58.38 |
| K | 75.37 | 74.18 | 92.80 | 26.74 |
| L | 74.25 | 75.39 | 91.75 | 22.17 |
| M | 81.74 | 83.01 | 93.60 | 29.89 |
| N | 98.22 | 98.26 | 100 | 45.94 |
| O | 0 | 0.00 | 0 | 69.52 |

* 사용 지표(9개)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 제법률, 성폭력 발생건수, 상담소·보호시설 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사고 여성인명피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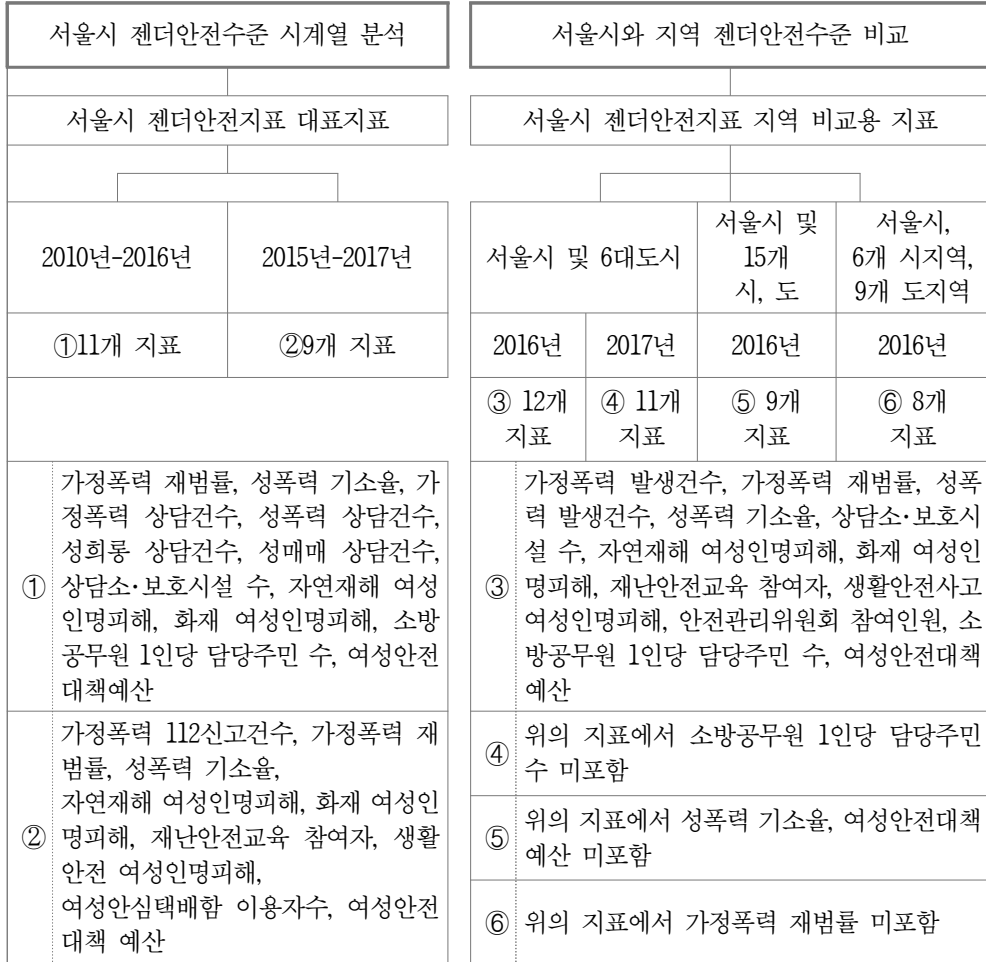
<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7년, 특성별) >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 역량 (백분위수) |
|--------|--------------|---------------------|-----------------------------|-----------------------|
| 서울 | 100.00 | 0 | 100 | 0.00 |
| 6대 시지역 | 0.00 | 100 | 0 | 60.19 |
| 9개 도지역 | 73.22 | 0.33 | 74.61 | 100.00 |

* 사용 지표(9개) :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 제법률, 성폭력 발생건수, 상담소·보호시설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사고 여성인명피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이와 같은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으로써 다음으로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분석하였음. 분석 범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분석 개요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한 후, 실제 젠더안전지수를 통해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점검함.
- 다음으로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6대 도시, 15개 도·시, 시 지역 및 도지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이것은 앞의 서울시 시계열적 확인보다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본 연구에서의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개발과 지수화 자체가 지역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서울시의 젠더안

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아울러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6개 시, 9개 도지역은 각각 특성과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표로 비교하기에 부족한 점이 상당함.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여 경향성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임.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의 시계열적 분석과 다른 시, 도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관련 표와 그래프는 본문 내용 참고).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분석 주요 결과 >

| 구분 | 연도 | 주요 특징 | 원인 |
|---------------|---------------|--|---|
| 서울시 (시계열) | 2010 -2016 |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증감을 반복함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2013년 이후로 하향 추세이며 2016년 가장 낮은 수준 | 폭력 관련 상담건수 증가, 성폭력 기소율 2013년 이후 감소 |
| | |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수는 2011년, 2014년 감소폭이 큼 |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
| | | 참여행정역량 지수는 증감 후 2015년, 2016년 다시 상승 추이 |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의 증감 |
| | 2015 -2017 |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2016년 가장 높고, 2017년은 하향 추이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총점과 유사한 추이 | 가정폭력 재범률과 성폭력 기소율의 등락 |
| | |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수는 계속 하향 추이 | 화재 여성인명피해와 생활안전 사고 부상자 증가 |
| | | 참여행정역량 지수는 계속 상향 추이 |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여성안전대책 예산 모두 해마다 증가 |
| 서울시 및 6대도시 | 2016, 2017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2016년 5위, 2017년 4위에 해당함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2016년 가장 순위가 낮았고, 2017년 6위에 해당함 |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 발생건수가 많으며, 성폭력 기소율이 낮음 |
| |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 | 2017년 자연재해 여성인 |

| 구분 | 연도 | 주요 특징 | 원인 |
|---------------------|------|---|----------------------------|
| | | 수는 2016년 3위에서 2017년 5위로 낮아짐 | 명피해 발생 |
| | | 지원, 참여, 행정역량 지수 2016년, 2017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임 | 특히 여성안전대책 예산이 큼 |
| 서울시 및 15개 시, 도 | 2016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12위에 해당함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14위에 해당함 | 성폭력 발생건수가 많고,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음 |
| |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수는 10위에 해당함 | 생활안전 사고 인명피해 높음 |
| | | 참여, 행정역량 지수는 6위에 해당함 | 여성안전예산 미포함 |
| 서울시, 6개 시지역, 9개 도지역 | 2016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가장 높으나, 젠더폭력 발생과 지원·참여·행정역량 지수는 가장 낮으며, 반면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수는 가장 높은 점수 | |

- 이처럼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적용하여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다른 도, 시와의 비교 결과,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향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젠더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임. 물론 서울시가 대도시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 연령층의 여성인구가 많다는 점 등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통계가 실제 발생건수를 나타내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해가 드러나는 장점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젠더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다른 시, 도에 비해 높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정폭력 재범률이 다른 시, 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성폭력 기소율이 낮은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성폭력 기소율 하락에 대한 해석에 이견들이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최근 보수적인 사법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둘째,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화재 여성인명피해와 생활안전 사고 여성 인명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점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 특히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가 확보가 우선시 됨.

- 셋째, 지원·참여·행정역량 등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특히 여성안전대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시, 도에 비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일반 도시안전 예산에서의 성인지예산이 고려되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및 지수를 도출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함. 젠더안전지표 및 지수는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젠더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책 성과를 평가하여 확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또한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임(국미애·장미혜·정재욱, 2017).
- 이처럼 다양한 지표 및 지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통계 생산을 위한 방안, 관리 수행 주체 및 모니터링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함.
- 첫째, 젠더안전지표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한 통계가 생산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함. 이번 연구에서의 젠더안전지표는 대부분 현재 사용한 가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한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표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이 지표에 적합한 통계 생산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자세한 내용은 [부록5] 참고).
- 둘째, 현실적으로 행정상 지표의 통계 생산과 취합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마련이 중요함. 젠더안전의 특성상 안전총괄본부와 여성정책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함(지표별 관리 주체는 본문의 ■표 V-1 ■ 참고). 이 두 주체가 협력하여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안내가 필요함(지표의 구체적 담당 기관 및 부서는 [부록5] 참고). 성별분리 수집 여부 확인 및 취합 시스템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 자료 취합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함. 다만 이러한 작업은 장기적으로 각각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은 이러한 데이터 생산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어려움.
- 젠더안전지표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을 지표 유형별 점검주기를 다음과 같

이 제안함.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

| 구분 | 특성 | 지표수 | 주기 | 비고 |
|------|--|-----|----------|-----------------------------|
| 대표지표 | 서울시 젠더안전수준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30개 | 매년 | - |
| 이슈지표 | 현재 젠더안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거나 관심이 급증하거나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지표 | 6개 | 1-2년 동안 | 상황에 따라 이후 대표지표나 관리지표로 전환 가능 |
| 관리지표 | 서울시 젠더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점검하기 위한 지표 | 30개 | 2년 또는 3년 | - |

- 셋째, 젠더안전지표의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젠더안전지수에 관한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포함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표 관련 통계가 생산 및 관리되고, 지표 활용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이 조례는 재난과 안전 중심인데 비해 젠더안전은 폭력, 생활안전 등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므로 별도로 젠더안전지수의 개발, 보급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 분석 결과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실제 지표 활용에서 한계점을 확인하여 통계 생산 및 활용에서 보완 방안을 밝힐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거나 보완될 점들이 존재하므로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첫째, 보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조사로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이후 지표 생산이 활성화된다면 전문가조사 외에 통계적 방법으로 타당도를 병행하여 검증하는 시도를 제안함. 셋째, 이번 연구에서는 해석에 주의를 기하며 포함한 지표들이 있음(폭력 신고나 발생건수, 상담건

수, 안심택배함 이용자수 등). 이러한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전까지는 사용을 보류하여 지표수를 줄여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에서 젠더안전지표의 범위와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경제적, 사회적, 건강 등 확장 필요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제 비교를 위한 부분도 지표로의 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4. 젠더안전지표 관련 연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환경이 안전하지 못할 경우, 실제 위협의 결과로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 발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상의 여러 활동에 제약을 당하거나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과 같이 최근 여성들에게 발생하거나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로부터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젠더폭력의 피해 이외에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사고에서도 여성에게 대한 피해는 남성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은 여성이 내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위협에 더 취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위협에 처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취약한 특정 집단에 대한 안전조치가 아닌,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정부와 사회구성원의 의무이다.

2013년 서울시는 급증하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도시 전체에 여성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6년 여성안심특별시 2.0, 2017년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추진하면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으로 확대하고, 여성을 보호대상에서 참여주체로 전환하며, 그동안 간과되어 온 데이트 폭력

에 집중하는 등 추진과정에 제시되는 과제를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이렇게 지속해 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와 환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방식의 측정으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변화상과 시민의 체감도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성안심특별시 2.0에서는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이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16년 젠더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강희영·정소라, 2016)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안전의 개념을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에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까지 포괄하였으며, 이 개념에 기초하여 37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어서 2017년에 젠더안전지표 개발에 따른 실측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국미애 외, 2017)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분야를 젠더폭력안전, 자연재해·사회재난안전, 생활안전, 안전환경 등 4개 분야로 재조정하였으며, 젠더안전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60개로 구성하였다. 이 지표 중 실제 측정가능한 지표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시범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3차년도의 후속 연구로서, 지금까지 개발된 젠더안전지표를 정교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여성안전지표 관련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안전분야를 폭력, 범죄에 국한하기도 하며(안상수 외, 2009, 2010; 강은영, 2017), 폭력, 범죄 외에 재난, 안전사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강은영 외, 2015, 2016).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또는 지수를 생산하고 있다(강은영 외, 2015; 장미혜 외, 2015). 이들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안전분야를 젠더폭력, 재난재해·사회재난, 가정 내에서의 생활 안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서울시라는 대도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젠더안전지표 중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실제 적용하여 서울시 여성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여성안전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에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수행체계 등을 소개한다. II 장에서는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구성한다. 2016년, 2017년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구성된 지표(안)의 일부 지표를 수정하고 최근 현안이 반영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최종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확정한다. 그리고 이 지표 각각에 대한 내용과 산식, 자료원에 대하여 제시한다.

III 장에서는 전체 젠더안전지표를 서울시 상황에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젠더폭력안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생활안전, 안전환경 등의 분야별로 젠더안전지표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일부 젠더안전지표를 15개 시·도 상황에 적용하여 결과를 나타낸다. 이로써 서울시 젠더안전의 연도별 현황과 다른 시·도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장에서는 젠더안전지표 중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를 구분한다. 이후 선정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한다. 또한 일부 대표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와 6대 도시, 15개 시·도의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이 젠더안전지수로서 서울시의 시계열적 젠더안전 수준을 분석하고, 다른 6대 도시, 15개 시·도, 6개 시지역·군지역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로써 서울시 젠더안전의 시계열적 추이와 상대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V 장에서는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을 연구 추진 단계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자료, 홈페이지 내용을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통계 생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한다. 수집된 자료의 성별 구분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전문가 면접조사를 수행한다. 2017년 젠더안전지표(안)의 일부 조정, 신규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 대표지표 선정 및 가중치 적용 방식, 방법론 선택, 지표 관리방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즉, 젠더안전지표(안) 마련, 통계의 부족으로 새로 조사해야 하는 지표 자료원에 관한 문항을 만드는 것, 젠더안전지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개별 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방법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3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산된 젠더안전지표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셋째, 전문가조사를 수행한다. 1차 조사는 대표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선정된 대표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차 조사는 일부 대표지표를 활용하여 6대 도시 또는 15개 시·도와의 지역별 비교를 위한 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세 차례의 전문가 조사는 퍼지다가준의사결정법(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을 활용한다.

3.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4. 젠더안전지표 관련 연구

여성안전지표에 관한 국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최근 10년 이내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폭력과 안전에 관련된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안전수준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여성안전지표 연구들은 대상, 안전영역, 지표 활용체계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표 I-1 】 여성안전지표 관련 국내연구

| 연구명 | 대상 | 지표영역 | 지표활용체계 |
|--|--------|--|---|
| 여성·아동 안전지표 체계 구축 및 개발 (안상수 외, 2009) | 여성, 아동 | 범죄피해 위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 - 안전지표 개발 및 적용 - 일부 지표 대상으로 17개 시도별 통계 비교 - 4년간 생산된 통계자료 적용 |
| 여성·아동 안전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상수 외, 2010) | | | - 2009년도 개발된 지표체계 검토, 신규지표 개발 및 적용 - 일부 지표 대상으로 17개 시도별 통계 비교 - 5년간 생산된 통계자료 적용 |
|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강은영 외, 2015) | 여성, 아동 | 재난, 안전사고, 범죄 | - 안전지표 개발에 초점, 지표 적용은 하지 않음 -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생산지표와 비생산지표로 구분 - 안산특화지표 추가 구성 |
|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방안 연구 (강은영 외, 2016) | | | - 대표지표와 보완지표 구성 - 안산시 구별, 동별 통계 비교/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와 통계 비교 - 3-6년간 생산된 통계자료 적용 |
|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장미혜 외, 2015) | 여성 | 성폭력, 가정폭력 | - 지역여성안전지수 산출 - 서울시 행정구별 통계 비교 - 전년도 통계자료 적용 |
| 여성안전지표 개발연구 (강은영 외, 2017) | 여성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살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온라인성폭력 | - 안전지표 개발 및 적용 - 대표지표와 관리지표 / 생산지표와 비생산지표로 구분 - 전국 17개 시도별 통계 비교 - 5년간 생산된 통계자료 적용 |

첫째, 여성안전지표 관련 연구들의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표를 구성하였거나(안상수 외, 2009, 2010; 강은영 외, 2015, 2016),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장미혜 외, 2015; 강은영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여성안전에 집중하고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여성안전지표 관련 연구들의 안전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안전 영역에 대하여 대부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로 확장하고 있다. 장미혜 외(2015)의 연구는 성폭력, 가정폭력 영역의 폭력현황과 지역수준에서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안상수 외(2009)의 연구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으로 폭력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범죄 피해 위험을 포함하였다. 강은영 외(2017)의 연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비롯하여 여성살해(Femicide)까지 추가하여 핵심적 여성폭력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스토킹, 데이트폭력, 온라인 폭력을 전략적 관리지표로 두어 발생률 추이를 점검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여성안전을 폭력, 범죄 피해로 국한하지 않고 재난재해 안전으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강은영 외(2015, 2016)의 연구는 재난안전(풍수해 등), 안전사고(교통사고 포함), 범죄안전(5대 범죄, 성·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분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안전 영역을 여성에 대한 폭력 외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생활안전(주거 내)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여성안전지표 관련 연구들의 지표 구성 및 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지표 구성에서 대표지표 선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강은영 외(2015, 2016) 연구에서는 지표 구성에서 영역을 대표할 수 있고 통계생산이 용이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고, 그 외 지표는 관리지표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강은영 외(2017)연구에서도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을 두어야 할 대표지표와 그 외 관리지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안상수 외(2009, 2010) 연구는 별도로 대표지표를 선정하지 않고, 위험 유형별로 주관적 인식 영역 지표, 안전 위협 영역 지표, 예방 및 사후관리(대응)영역 지표들로 구분하고 있다. 장미혜 외(2015) 연구에서도 별도로 대표지표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젠더안전지표를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분하였다.

대표지표는 여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여성안전 수준을 적합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지표 자료원의 생산 안정성이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의 지표는 관리지표로서 구분하였다. 또한 이슈지표는 현재 젠더안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거나 관심이 급증하거나 쟁점이 되는 이슈에 관한 지표이다. 이처럼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분한 것은 다른 연구들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생산한 지표를 적용하는 지역 범위에 차이가 나타난다. 생산한 지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거나 보다 세부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는 방식이다. 우선 안상수 외(2009, 2010), 연구에서는 일부 지표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4~5년간 생산된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안전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강은영 외(2017)연구에서도 지표별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5년간 생산된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이와 달리, 장미혜 외(2015) 연구는 서울시 25개 행정구역별 기준으로 전년도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지역별 안전지수를 파악하고 비교하였으며, 강은영 외(2016) 연구는 3~6년간 생산된 통계자료로써 안산시의 자치구 혹은 동 단위에 적용하였으며, 일부 지표 적용결과를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와 비교하여 안산시의 안전수준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젠더안전지표를 구성하여 대표지표를 선정하였고, 이 대표지표 중 일부 지표로써 6개 도시 또는 15개 시, 도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연구들의 지표 개발 후 지수 산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안전지표 개발 연구는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안전수준 현황을 나타내었으며 (강은영 외, 2015, 2016; 안상수 외 2009, 2010; 강은영 외, 2017), 일부 연구는 개발된 지표의 지수를 산출하여 안전수준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장미혜 외(2015) 연구는 여성대상 폭력 현황과 지역 수준에서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지표로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지역여성안전지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이어 선정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존재한다.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이어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로써 서울시 안전수준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별 젠더안전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직관적 이해나 비교가 편하고, 사회적 관심

을 환기시킨다는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다차원적인 정보를 단일 차원의 정보로 나타내는 과정에서의 정보 손실 등의 단점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정해식 외, 2016).

이와 같이 여성의 안전을 주제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기초한 지표개발 연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표 연구들이 생산되어 왔다. 전국단위에서의 지표 개발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험하는 실생활에서의 위험의 독특성과 안전 실태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단위에서의 안전지표 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강은영 외, 2015). 본 연구는 대규모 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서울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생산한 지표로서, 이후 서울시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성안전에 대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 간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III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1. 2016년, 2017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2.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1. 2016년, 2017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1) 2016년, 2017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서울시는 2016년, 2017년 연구를 통해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하였다.¹⁾ 1차 연구에서의 젠더안전지표 개발 원칙에 기초하여 2차 연구에서 다소 방향을 보완하여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재난재해, 사회재난, 생활안전에 이르기까지 범주를 확장하였다. 둘째, 특정 지역을 낙인화 할 우려가 있는 취약성 지표를 제외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안전한 환경과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역량 강화와 다양한 활동의 참여에 주목하였다. 셋째, 기존에 통계가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시간적·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하되,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해도 선정하였다. 넷째,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고려하되 향후 도시간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다섯째, 의사 대표성 지표와 풀뿌리 활동 지표를 제시하고 분리된 두 체계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한편 2차 연구에서 두 가지 원칙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우선,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를 고려한 것이

1) 국제사회 규범을 조사함으로써 국제 기준으로서 안전과 젠더의 내용을 검토하고, 안전과 젠더 관련 국외 지표 및 국내 지표와 통계를 검토하여 이와 같은 원칙과 지표를 구성한 것임. 다만 지면의 한계로 생략함.

다. 다음으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발된 젠더안전지표의 주요한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2016년 연구에서는 여성안전의 개념을 폭력피해로부터의 안전에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까지 확장하였다. 지표 체계는 크게 현황지표, 참여지표, 배경지표로 구분하였다. 즉 현황지표는 분야별 안전 실태 및 체감도를 나타내고, 참여지표는 안전 격차 경감을 위한 여성의 참여를 확인하며, 배경 지표는 사회 전반의 안전역량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2016년 젠더안전지표는 총 37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II-1 2016년 젠더안전지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핵심 ★ /특화 ● | 분류 | |
|----------|-----------------|----------------------|--------------------|---------------|----------|---|
| 현황 지표 | 젠더 폭력 피해 | 신고실태 |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 ★ | 피해 결과 | |
| | | | 성폭력범죄 경찰청 집계 건수 | ★ | | |
| | | | 예비 | 데이트폭력 경찰 집계 | | ● |
| | | | | 스토킹 피해 경찰 집계 | | ● |
| | 지원실태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상담소 집계) | | 사후 관리 |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상담소 집계) | | | | |
| | | 데이트폭력 1366상담건수 | ● | | | |
| | | 예비 스톱킹 피해 상담건수 | ● | | | |
| | 체감도 | 폭력 및 범죄에 관한 위험도 인지 | | 인식 | | |
| | | 야간보행안전도 | | | | |
| | 재난 재해 | 발생실태 | 화재 피해자 | ★ | 피해 결과 | |
| | | | 자연재해 피해자 | ★ | | |
| | | 지원실태 | 119 구조인원수 | ★ | 사후 관리 | |
| | | | 119 구급 구급인원수 | ★ | | |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 인지 | | 인식 | | | |
| |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지 | | | | | |
| 공통 | 체감도 | 근린생활시설 | ● | 인식 | | |
| | | 이동성 안전 | ● | | | |
| 참여 지표 | 젠더 폭력 | 의사대표 |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참여 위원 | | 예방 | |
| | | 개인활동 | 안전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 ● | | |
| | |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 | | |
| | | | 자율방범대 참여자 | | | |
| | | 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참여자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핵심 ★ /특화 ● | 분류 | |
|-------|-------|--------|---|---------------|----|----|
| 참여 지표 | 재난 재해 | 의사대표 | 안전관리위원회위원 | | 예방 | |
| | | 개인활동 | 안전과수꾼 참여자 | ●★ | | |
| | | | 의용소방대 참여자 | | | |
| | | | 민방위대 지원자 수 | | | |
| 참여 지표 | 재난 재해 | 교육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 | |
| | | | 응급처치교육 참여자 | | | |
| | | | 예비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 | |
| | 공통 | 제도 | 예비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된 시민 의견 수렴제도의 구비(참여 여성의 수) | | | |
| 배경 지표 | 공통 | 공동체 역량 | 성평등 수준(여성가족부 발표 자료) | ★ | - | |
| | 젠더 폭력 | 개인 역량 | 위기 시 이웃의 도움에 대한 기대 | | 인식 | |
| | | | 예비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 | 인식 | |
| | 재난 재해 | 개인 역량 | 예비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 예방 |
| | | | | 소화기 사용능력 보유자 | | 예방 |
| | | | | 지역 대피소 인지자 | | 예방 |

다음으로 2017년 연구에서는 안전 분야를 1차년도 지표보다 확장하여 검토한 결과, 재난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으며, 생활안전과 안전환경을 별도 분야로 추가하였다. 또한, 1차 연구의 체계인 현황지표, 참여지표, 배경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안전 분야를 대분류에 위치시켜 명확히 하는 등 지표체계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젠더안전지표는 다음과 같이 총 60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II-2 | 2017년 젠더안전지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 유형 | 지표 특성 |
|----------|-----|-----|--------------------|-------|-------|
| 젠더 폭력 안전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산출 | 피해 결과 |
| | | | 가정폭력 재범률 | 결과 | |
| |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산출 | |
| | | | 성폭력 기소율 | 산출 | |
| | |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산출 | |
| | | | 디지털성폭력 사이버수사대 신고건수 | 산출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 유형 | 지표 특성 |
|---------------------------------|-----|-----------|------------------------|------------|-----------|
| |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산출 | 사후 지원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산출 | |
| | |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산출 | |
| |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및 지원건수 | 산출 | |
| | | |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상담원 수 | 산출 | |
| 젠더 폭력 안전 | 현황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산출 | 사후 지원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산출 | |
| | |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산출 | |
| |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및 지원건수 | 산출 | |
| | | |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상담원 수 | 산출 | |
| | 참여 | 대표성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투입 | 예방 활동 |
| | | 공동체 | 자율방범대 참여자 | 투입 | |
| |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투입 | |
| | 인지 | 체감도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결과 | 주관적 인식 |
|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 | 결과 | |
| | | 인지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결과 | |
|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결과 | |
| 자연 재해 · 사회 재난 안전 | 현황 | 발생 | 자연재해 인명피해 | 산출 | 피해 결과 |
| | | | 자연재해 이재민 | 산출 | |
| | | | 화재 인명피해 | 산출 | |
| | | | 화재 이재민 | 산출 | |
| | 지원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투입 | 사후 지원 |
| | | |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 산출 | |
| | 참여 | 대표성 | 시민안전과수꾼 강사(시민안전리더) | 투입 | 예방 활동 |
| | | | 시민안전과수꾼 참여자 | 투입 | |
| |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투입 | |
| | | 공동체 | 의용소방대 참여자 | 투입 | |
| | | | 교육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
| | 인지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결과 | 주관적 인식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결과 | | |
| 인지 | | 지역 대피소 인지 | 결과 | | |
| | | | |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생활안전사고 신고건수 | 산출 | 피해 결과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산출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 유형 | 지표 특성 | |
|--------------------------------|-----|----------------------|------------------------|-----------------------|-------------------------|-----------|
| 안전 환경 | 지원 |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산출 | 사후 지원 | |
| | | |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산출 | | |
| | 참여 | 공동체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산출 | 예방 활동 |
| | |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산출 | |
|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투입 | | |
| | 인식 | | | 체감도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협 체감도 | 결과 | 주관적 인식 |
| | | | | 인지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결과 | |
| | 현황 | 인프라 |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 과정 | 예방 |
| | |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과정 | |
| | | 이용자 | | 안심이 앱 적용 자치구 수 | 과정 | |
| | | |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과정 | |
| | 참여 | 대표성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투입 | |
| | | | | 공동체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실적 | 산출 |
| | | | |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자 | 투입 |
| 인식 | 체감도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협 체감도 | 결과 | 주관적 인식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결과 | | |
| | |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결과 | | |
| | 인지 | 치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결과 | | | |
|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결과 | | | |
| | | | | | | |
| 행정 역량 (간접지표 / 연도별 증감)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투입 | 사후 지원 | |
| |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투입 | | |
| | | | 주민 1만 명당 병상 수 | 투입 | | |
| | | |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투입 | 예방 |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투입 | | |

*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폭염, 지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

*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등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 생활안전사고: 사고 발생 장소를 집안 내로 한정 -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전기(감전 등), 가스, 유해물질(가습기살균제 등), 화상, 질식 등으로 인한 피해

2) 2017년 젠더안전지표의 수정

이 연구에서는 2017년 개발된 젠더안전지표를 실제 적용하기에 앞서, 일부 지표를 추가, 수정하였다.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추가한 지표는 젠더폭력안전 분야에서 스토킹 피해건수, 성희롱 신고건수, 성희롱 상담건수, 성매매 상담건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등 총 5개이다. 그리고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및 지원건수 지표는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와 디지털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건수 지표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2차 연구에서의 60개 지표에서 6개를 추가하여 총 66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 추가를 비롯하여 지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연구자가 구성한 추가지표(안)에 관하여 젠더폭력 관련 현장 전문가 2명과 안전 관련 학계 전문가 1명을 면접조사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면접조사 이후 지표를 정리하여 3명의 자문위원에게 이메일로 자문을 받았다.²⁾ 제시한 추가지표(안)는 가정폭력 검거건수 또는 인원수, 스토킹 피해건수 또는 인원수,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수, 디지털성폭력 검거건수, 성매매 상담건수, 성매매 검거자수, 성희롱 신고건수, 성희롱 상담건수, 성희롱 시정조치 비율 또는 기소율, 성희롱 경험건수, 여성살인 발생건수, 폭력지원 기관 1인당 담당주민 수,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등이었다. 그 외 지표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이들 지표 추가와 기존 지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주요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거건수지표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 신고된 건수에 한해서 검거한 건수이므로 현실을 왜곡하여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즉 검거율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검거인원수로 보면 적을 수 있다.³⁾ 일례로 성매매 검거건수는 경찰의 단속활동을 통한 것이므로 검거율은 높으나, 경찰이 주시하지 않는 사건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거건수 지표를 추가하지 않았다.

2) 지난 6월 18일과 25일에 각각 해당 기관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면접조사 결과 정리한 지표(안)에 대하여 본 연구의 3명의 자문위원에게 서면자문을 요청하여 7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3) 김민정(2018)은 불법촬영범죄 검거율이 높으므로 불법촬영 수사가 여성에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는 것이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 여부 자체가 선별적이라면 검거율은 이미 오염된 통계라고 비판하였다.

둘째, 기소율과 유죄 판결률이 상담건수나 신고건수보다 현실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의 현재 지표에서는 유죄 판결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기소율 등은 통계 생산이 안정화되지 않은 한계로 활용이 어려우므로 추가하지 못하였다. 향후 통계 생산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지표 자료원으로 활용되는 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희롱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업무상, 고용상 불이익의 해석이 실제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위원회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포함하지 않고 이 연구의 지표에서는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사용한 한계가 있다.⁴⁾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성폭력 관련하여 불법촬영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자 하지만 적용이 쉽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통계는 디지털성폭력 여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통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안전 분야 지표 중 생활안전을 가정 내 사고로 한정된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접근을 전제해왔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공사 이분법적인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난 연구에서 생활안전의 범주를 주거지 중심으로 정한 것은, 가정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성인보다 영유아, 미취학아동, 전업주부, 노인층이며, 이들의 여성 비율이 더 높는데 반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에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안전에서의 젠더안전도 살펴볼 수 있도록 차후 지표를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섯째, 생활안전사고 신고건수 지표 정의와 관련한 유해물질의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일시적으로 이슈가 되어 이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지표의 지속성 차원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소비자원의 위해신고건수 중 집안에서 발생한 자료를 활용하기로 정했으며, 생활안전

4) 고용노동부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여성노동자회 내부자료(「2018 성인지통계」)를 우선 활용하였음. 이후 통계 보완이 필요할 것임.

사고 위해 신고건수로 지표명을 수정하였다.

이 외에 지표를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지표를 추가하였다. 인구수를 대비하여 기관의 개소수를 확인하는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안심이 앱 적용 자치구수 지표는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로 수정하였다. 안심이 앱 적용이 곧 서울시 전체 자치구수로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표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수정한 것이다.

2.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구성

1)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체계

2017년 지표를 수정하여 개발한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는 다음과 같다. 본 지표에서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폭염, 지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등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생활안전사고는 집안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표 II-3】 2018년 젠더안전지표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
| 젠더 폭력 안전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 | | | 가정폭력 재범률 |
| |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 | | | 성폭력 기소율 |
| | |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 | | | 스토킹 피해 건수 |
| |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 | | | 성희롱 신고건수 |
|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
|----------|---------------------------------|-----------------|----------------------------------|-----------------|
| | |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
| | | | 디지털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건수 |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
| | | | 성매매 상담건수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원 수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
| | 참여 | 대표성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
| | | 공동체 | 자율방범대 참여자 | |
| |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
| | 인식 | 체감도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
|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
| | | 인지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
|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
| | 자연 재해 · 사회 재난 안전 | 현황 | 발생 | 자연재해 인명피해 |
| 자연재해 이재민 | | | | |
| 화재 인명피해 | | | | |
| 화재 이재민 | | | | |
| 지원 |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
| | | |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 |
| 참여 | | 대표성 |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시민안전리더) | |
| | | | 공동체 |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자 |
| | |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 | | 의용소방대 참여자 | | |
| | | 교육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
| | |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
| 인식 | |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 | 인지 | 지역 대피소 인지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가정내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건수 |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
| | | 지원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
|------------------|-------------------------|-------------------|------------------------|--------------|
| | 참여 | 공동체 |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
| |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 |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 |
| | 인식 | 체감도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 인지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
| 안전 환경 | 현황 | 인프라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 |
| |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
| |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
| | 이용자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 |
| | 참여 | 공동체 | 대표성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실적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 | |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 | | |
| 안전 환경 | 인식 | 체감도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
| | |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
| | | 인지 | 치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 | |
| | 행정역량 (간접지표 / 연도별 증감)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 |
|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 |
| | | 주민 1만 명당 병상 수 | | |
|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 |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 |

2) 지표의 세부내용 및 자료원

(1) 젠더폭력안전 분야

2018년 젠더안전지표의 젠더폭력안전 분야 지표의 세부내용과 자료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II -4】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젠더폭력안전 분야)

| 소분류 | 지표 | 세부내용 | 자료원 |
|-----|----------------------------------|---|------------------|
| 발생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경찰청 |
| | 가정폭력 재범률 | ▶최근 5년 이내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의 재범률 | 경찰청 |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경찰통계연보 |
| | 성폭력 기소율 |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 중 기소된 피의자 비율 | 대검찰청 |
|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서울지방경찰청 |
| | 스토킹 피해 건수 | ▶인구 1,000명당 경범죄(지속적 괴롭힘)건수 | 경찰청 |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서울지방경찰청 |
| | 성희롱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고용노동부 |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지원 상담 건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 디지털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건수 |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건수 | 상동 |
| | 성희롱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여성노동자회 |
| | 성매매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상담원 수 | ▶상담건수 대비 상담원 수 | 여성가족부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 ▶인구 1,000명당 개소수 | 여성가족부 |

| 소분류 | 지표 | 세부내용 | 자료원 |
|-----|------------------------|--|--------|
| | 보호시설 수 | | |
| 대표성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안전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중 리더의 여성 비율 | 서울시 |
| 공동체 | 자율방범대 참여자 | ▶자율방범대 참여자의 여성 비율 | 경찰통계연보 |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교육 의무대상 고위직의 남성 비율 대비 고위직 교육 참여자의 남성 비율 | 여성가족부 |
| 체감도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 신규조사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젠더폭력에 대한 여성의 인식 대비 남성의 인식 | 신규조사 |
| 인지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지원기관 인지 | 신규조사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신고의지 | 신규조사 |

젠더폭력안전 분야 지표의 세부내용과 자료원에 대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생지표들은 폭력 발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112 등 관련 기관에의 신고건수를 지표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한 신고건수로서 산출하였다. 가정폭력은 재범률, 성폭력은 기소율 자료를 추가하였으나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한 자료는 생산되지 않아 추가하지 못하였다. 최근 관심을 받게 된 성폭력에 대한 신고건수 통계에 대한 부분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원지표들은 성폭력에 대한 지원 현황이기도 한 동시에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대부분 상담건수로서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로서 산출하였다. 디지털성폭력 관련 상담건수와 영상삭제 지원건수 자료원으로 올해 감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자료가 해당한다. 지표 특성상 지역구분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2)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의 지표 세부내용과 자료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II-5 】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 소분류 | 지표 | 세부내용 | 자료원 |
|-----|---------------------|--|---------------|
| 발생 | 자연재해 인명피해 | ▶인구 1,000명당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여성 비율 | 행정안전부 |
| | 자연재해 이재민 | ▶인구 1,000명당 이재민 수의 여성 비율 | 재해연보 |
| | 화재 인명피해 | ▶인구 1,000명당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여성 비율 | 소방청 |
| | 화재 이재민 | ▶인구 1,000명당 이재민 수의 여성 비율 | 서울통계 |
| 지원 | 재난재해 긴급경보 시스템 구축 | ▶긴급경보 시스템 구축 지구수 | 행정안전부 |
| |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 ▶재난재해 사고현장 전체 출동건수 대비 5분 이내 출동건수 | 서울서베이 |
| 대표성 | 시민안전과수꾼 강사 (시민안전리더) | ▶시민안전리더 양성과정 참여자의 여성 비율 대비 강사 활동자의 여성 비율 | 서울 소방재난본부 |
| 공동체 | 시민안전과수꾼 참여자 | ▶참여자의 여성 비율 | 서울 소방재난본부 |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참여자의 여성 비율 | 서울시 |
| | 의용소방대 참여자 | ▶참여자의 여성 비율 | 서울통계 |
| 교육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인구 1,000명당 교육 참여자의 여성 비율 |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
|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인구 1,000명당 교육 참여자의 여성 비율 | 소방청 통계 |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위험 체감도 | 서울통계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위험 체감도 | 신규조사 |
| 인지 | 지역 대피소 인지 | ▶지역 대피소 인지 | 신규조사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 지표의 세부내용과 자료원에 대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생지표들은 인명피해와 이재민 수로서 지표 자체의 자료원 생산은 안정적이나 성별 구분 통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는 공동체와 교육 지표들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안전과수꾼 강사는 성별 수집이 되지 않고 있어 통계구분 이전에 수집 작업부터 요구되며, 화재예방교육 참여자는 올해부터 성별구분 수집이 되어 향후 활용 가능하다.

(3) 생활안전 분야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생활안전 분야의 지표 세부내용과 자료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6 |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생활안전 분야)

| 소분류 | 지표 | 세부내용 | 자료원 |
|-----|------------------------|---|-----------|
| 발생 |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건수 | ▶ 인구 1,000명당 소비자보호원 위해(부상, 질환 등) 신고자의 여성 비율 | 한국소비자원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 인구 1,000명당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여성 비율 | 신규조사 |
| 지원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신규조사 |
| |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 건수 및 조치건수 | ▶ 무상 안전점검 대상 취약가구 대비 안전 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서울시 |
| 공동체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소화기 사용 가능자의 여성 비율 | 신규조사 |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의 여성 비율 | 지역사회 건강조사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 인구 1,000명당 교육 참여자의 여성 비율 | 지역사회 건강조사 |
| 체감도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위험 체감도 | 신규조사 |
| 인지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 지원기관 인지 | 신규조사 |

생활안전 분야 지표의 세부내용과 자료원에 대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 지표는 다른 분야의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원의 통계 생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집안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관심이 공공장소에서의 사고에 비해 작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표의 자료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및 상담 건수, 소화기 사용가능자, 위험 체감도와 지원기관 인지 등에 관한 신규조사를 해야 한다.

(4) 안전환경 분야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안전환경 분야의 지표 세부내용과 자료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7 | 2018년 젠더안전지표 세부내용 및 자료원(안전환경 분야)

| 소분류 | 지표 | 세부내용 | 자료원 |
|----------------------|--------------------------|---------------------------|---------|
| 인프라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 ▶여성안심지킴이집 증가율 | 서울시 |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범죄예방디자인 증가율 | 서울시 |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증가율 | 서울시 |
| 이용자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증가율 | 서울시 |
| 대표성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참여위원의 여성 비율 | 서울시 |
| 공동체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실적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횟수 | 서울시 |
|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 참여자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 서울시 |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여성안심보안관 수 대비 점검 건물개소 증가율 | 서울시 |
| 체감도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체감도 | ▶위험 체감도 | 신규조사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야간보행위험 체감도 | 신규조사 |
|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도시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조사 |
| 인지 | 치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치안/방범시설 근접성인지 | 신규조사 |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 의지 정도 | ▶신고 의지 | 신규조사 |
| 행정 역량 (간접 지표/연도별 증감)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인구 대비 소방공무원 수 | 내고장 알리미 |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인구 대비 구조구급대원 수 | 내고장 알리미 |
| | 주민 1만 명당 병상 수 | ▶인구 10,000명당 병상 수 | 내고장 알리미 |
| |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인구 대비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서울시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인구 대비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서울시 |

안전환경 분야 지표의 세부내용과 자료원에 대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프라, 이용자, 대표성, 공동체 지표는 서울시 사업의 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행정자료가 자료원에 해당한다. 체감도와 인지 지표의 자료원은 대부분 신규조사를 수행해야 확보할 수 있다. 행정역량 지표는 대부분 자료원이 기존부터 안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여성안전 대책 예산은 우선은 여성 특장적 안전예산에 대해서 취합해야 하겠다.

3) 미생산 자료원의 신규조사 문항 개발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체감도와 인식지표 등을 비롯한 몇몇 지표들은 자료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조사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매년 진행 중인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에 추가하거나 문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이 조사 문항(안)을 구성한 후 젠더폭력 및 안전 분야 전문가 3명⁵⁾을 면접 조사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신규조사 문항(안)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 외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의견 중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 조사와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인식을 구분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동영상 등을 소비하는 행위가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 조사 결과가 젠더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 댓글이나 폭력적인 게시물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규조사를 『서울서베이』에 포함하는 방법도 좋지만, 젠더 안전 관련 주제를 확대하여 별도로 지속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신규조사가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이 총 13개에 해당한다.

5) 3명의 전문가는 앞서 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과 동일인으로서, 2개의 주제에 대하여 6월 18일과 25일에 각각 해당 기관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8 신규조사 필요지표

| 소분류 | 지표 |
|--------------|------------------------|
| 젠더폭력 안전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 |
|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지역 대피소 인지 |
| 생활 안전 | 소화기 사용가능자 |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 안전환경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 | 치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이와 같은 13개 지표에 대하여 『서울서베이』에 추가 또는 수정하고자 구성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9 신규조사 문항 개발⁶⁾

| 문항 내용 |
|--|
| <p>○ 여성의 성폭력 신고의사율 문) 자신에게 성폭력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112,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여성만 응답) ① 예 ② 아니오</p> |
| <p>○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사율 문) 주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을 확인했을 경우 관련 기관(경찰, 구청 및 주민센터, 소방서 등)에 신고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p> |
| <p>○ 소화기 사용가능자 문)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p> |

6) 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의 괴롭힘 정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참고. 온라인상 여성에 대한 폭력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참고.

문항 내용

○ 사회 안전 영역(도시위협도) 수정

문)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우리 사회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 | 보통이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5----- | 4----- | 3----- | 2----- | 1----- |

| | |
|--|--|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 |
| 2)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 |
| 3) 전염병(사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등) | |
| 4) 안전사고(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썩크홀 등) | |
| 5) 안보(전쟁, 국제분쟁, 북한과 대치 등) | |
| 6) 경제위기(금융위기 등) | |
| 7) 실업 | |
| 8) 부정부패 | |
| 9)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강도, 유괴, 폭행 및 살해 등) | |
| 10) 사회 갈등(빈부격차, 세대갈등 등) | |
| 11)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범죄로 인한 혼란(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사기 등) | |
| 12) 신규: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 |
| 13) 신규: 생활 안전(가정 내 각종 사고 등) | |
| 14) 신규: 근린생활(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 |
| 15) 신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 |
| 16) 신규: 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의 괴롭힘* | |
| 17) 신규: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
| 18) 신규: 온라인상 여성에 대한 폭력(불법촬영 유포 및 유통,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및 성매매,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성적 괴롭힘 등) | |

* 길거리,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 쫓아오기, 위협, 성적 비하 발언 등의 행위를 말함 / **단, 17), 18) 추가 시 9)폭력범죄에서 성폭력 삭제

문항 내용

○ 위험 대응 기관 인지도

문) 귀하는 위험 예방 및 발생 후 지원을 위한 아래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 | 기관 유형 | 안다 | 모른다 |
|--------------------|--|----|-----|
| 성폭력 지원기관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 |
| |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담전화) | | |
|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 | |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 | |
| | 성매매 상담 및 보호시설(입소시설) | |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유출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 | |
| 지역 대피소 | 지진대피소 | | |
| | 수해대피소 | | |
| | 민방위대피소 | | |
| 생활안전 사고 지원기관 | 화재(지역 소방서, 119안전신고센터 등) | | |
| | 전기·가스(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19안전신고센터 등) | | |
| | 기타 가정 내 사고(한국소비자원 등) | | |
| 치안시설/ 방범시설 | 자신의 주거지역 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 | |

III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측정 결과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분야별 측정 결과
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지역별 측정 결과
3.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측정 결과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분야별 측정 결과

1) 젠더폭력안전 분야)

서울시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의 자료출처는 경찰청 내부자료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2013년부터 가정폭력 신고건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3.195건, 2014년 4.522건, 2015년 4.393건, 2016년 5.387건, 2017년 5.596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위와 함께 청구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0년 0.17건, 2011년 0.17건에서 최근 2016년 0.78건, 2017년 0.68건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12 신고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제 검거건수는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의자 중 여성 비율이 2015년 18.46%, 2016년 38.97%, 2017년 38.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7) 이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인구 현황은 내고장 알리미에서 수집한 것으로서, 2010년 10,312천명, 2011년 10,249천명, 2012년 10,195천명, 2013년 10,143천명, 2014년 10,103천명, 2015년 10,022천명, 2016년 9,930천명, 2017년 9,857천명에 해당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이 분야에서 '스토킹 피해 건수'는 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함.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의 성별 비율'은 프로그램 리더에 대한 상이 불분명하여 자료수집이 어려움. '폭력 예방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의 경우 여성가족부 담당자에 의하면 올해부터 성별을 구분하여 자료수집 중으로서 내년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함. 인식지표인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의 경우 신규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해당함.

있기 때문이다. 향후 배우자 폭력에 대한 수치가 구분되는 통계가 생산되어 지표가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

표 Ⅲ-1 서울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신고건수 | 32,406 | 45,686 | 44,028 | 53,501 | 55,161 |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3.195 | 4.522 | 4.393 | 5.387 | 5.596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3-2017)

가정폭력 재범률의 자료출처는 경찰청 내부자료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재범률은 최근 5년 이내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의 재범률을 말하며, 동종재범인원/검거 인원×100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재범률은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25.8%, 2011년 35.2%, 2012년 35.5%로 증가하다가 2013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1.6%, 2014년 11.6%, 2015년 5.6%, 2016년 4.6%까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다만 2017년 5.6%으로 다소 상승하므로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Ⅲ-2 서울시 가정폭력 재범률

(단위 :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재범률 | 25.8 | 35.2 | 35.5 | 11.6 | 11.6 | 5.6 | 4.6 | 5.6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3-2017)

서울시 성폭력 112 신고건수는 서울통계에서 수집하였으며, 자료출처는 경찰청 경찰통계연보로서 통계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0.419건에서 2011년 0.19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0.240건, 2013년 0.312건, 2014년 0.338건, 2015년 0.4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0년 0.56건, 2011년 0.56건에서 2015년 0.95건, 2016년 0.61건, 2017년 0.84건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⁸⁾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성폭력

8)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0-2017),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

발생 건수는 112 신고건수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폭력 112 신고 건수는 성별 분리 자료가 아니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 표 III-3 】 서울시 성폭력 112 신고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신고건수 | 4,319 | 1,971 | 2,450 | 3,168 | 3,416 | 4,495 |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0.419 | 0.192 | 0.240 | 0.312 | 0.338 | 0.449 |

출처: 서울통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서울시 성폭력 기소율의 자료출처는 대검찰청 내부자료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기소율은 2010년 45.07%, 2011년 47.55%, 2012년 51.06%로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43.31%, 2014년 40.42%, 2015년 30.17%, 2016년 28.92%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최근 2017년에는 33.45%로 다소 증가하였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성폭력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기소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김지선, 2013). 이러한 점에서 기소율의 감소 추세는 우려할만하다. 다만 한편으로 성폭력 기소율의 감소와 달리 전체 처분계는 2010년 14,439명에서 2017년 26,89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기소자 수도 2010년 2,955명에서 최근 2016년 3,026명, 2017년 26,899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⁹⁾ 즉 전체 처분 인원의 증가, 기소자 수의 증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이 증가하였을 가능성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기소율 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기소율 저하가 곧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의미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발생건수는 2013년도부터 반영됨.
 9)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대검찰청(2010-2017) 자료이며, 면접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지표의 적용 결과를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기소율이 높은 것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표 Ⅲ-4】 서울시 성폭력 기소율

(단위 :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기소율 | 45.07 | 47.55 | 51.06 | 43.31 | 40.42 | 30.17 | 28.92 | 33.45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대검찰청(2010-2017)

기소율은 처분계에서 불기소와 기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기소자 수를 말함.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서울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의 자료출처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2016년부터 별도로 구분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신고건수는 112 신고, 고소 진정, 방문신고, 기타 신고유형에 해당 건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6년 0.302건, 2017년 0.312건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신고건수의 증가와 달리, 형사 입건된 건수는 2016년 2,818명, 2017년 2,336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본 지표는 성별 구분되지 않은 건수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자료에 의하면, 쌍방피해를 제외하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에 해당한다.

【표 Ⅲ-5】 서울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단위 : 건, 명)

| 구분 | | 2016 | 2017 |
|-----------------|----------|-------|-------|
| 신고건수 | | 3,001 | 3,078 |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 0.302 | 0.312 |
| 형사입건 | 계 | 2,818 | 2,336 |
| | 폭행·상해 | 2,165 | 1,714 |
| | 체포·감금·협박 | 285 | 247 |
| | 살인 | 12 | 13 |
| | 성폭력 | 76 | 26 |
| | 경범죄 등 기타 | 280 | 336 |

출처: 서울시(2018),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는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발생 건수로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하

여 수집하였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발생 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0.17건, 2014년 0.26건, 2015년 0.3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0.199건으로 다소 감소한 후 2017년 0.26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젠더안전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 신고건수’이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고건수는 수집하고 있지 않아 발생 건수로 대체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건수로만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불충분하다. 사이버음란물 건수나 명예훼손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디지털 성폭력을 구분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디지털 성폭력은 특성상 지역 구분의 의미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역 발생 건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III-6】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발생 건수 | 1,728 | 2,630 | 3,638 | 1,978 | 2,619 |
| 인구 1,000명당 발생 건수 | 0.170 | 0.260 | 0.363 | 0.199 | 0.266 |

출처: 서울시(2018),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서울시 성희롱 신고건수의 자료 출처는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로서 지역구분 취합이 가능한 2016년, 2017년 자료에 국한하여 수집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에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6년 168건, 2017년 253건에 해당한다. 성희롱 신고 시 성별은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으나 취합하고 있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후 성별구분 통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성희롱 규정은 현재 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신고건수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업무 관련성, 행위자, 피해자,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표 Ⅲ-7】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6 | 2017 |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 168 | 253 |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서울통계를 기초로 산출되었고, 통계 자료출처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이며, 통계 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5.877건, 2011년 4.525건, 2012년 4.642건, 2013년 5.070건, 2014년 4.610건, 2015년 4.689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6년 2.866건으로 급감한다. 한편 이 상담건수는 112 신고건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향후 배우자 폭력에 대한 수치로서 성별이 구분되는 통계가 생산될 필요성이 있다.

【표 Ⅲ-8】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상담건수 | 60,608 | 46,380 | 47,331 | 51,430 | 46,580 | 46,989 | 28,464 |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5.877 | 4.525 | 4.642 | 5.070 | 4.610 | 4.689 | 2.866 |

출처: 서울통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서울통계를 기초로 산출되었고, 통계 출처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이며, 통계 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2.323건, 2011년 1.546건, 2012년 1.903건, 2013년 1.349건, 2014년 2.141건, 2015년 1.590건 2016년 2.374건으로 증감을 반복한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이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도 성별을 구분하여 제시되지 않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표 Ⅲ-9】 서울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상담건수 | 23,956 | 15,849 | 19,401 | 13,682 | 21,627 | 15,938 | 23,578 |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2.323 | 1.546 | 1.903 | 1.349 | 2.141 | 1.590 | 2.374 |

출처: 서울통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서울통계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통계 출처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이다. 2014년부터 데이트폭력을 별도 구분하여 상담운영실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 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4년 0.016건, 2015년 0.026건, 2017년 0.15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상담건수도 성별을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표 Ⅲ-10】 서울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
| 상담건수 | 163 | 256 | 761 | 1,520 |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0.016 | 0.026 | 0.077 | 0.154 |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주: 외국인 상담실적 포함

디지털성폭력 피해 상담건수의 자료출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부 자료로서, 센터 개소가 올해 4월 말이었으며 개소 후 월별 상담 실적을 취합하고 있다. 폭력의 특성상 피해 상담 시 지역을 구분하여 수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유포 및 복제되어 확산되므로 지역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에서의 디지털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5월 606건, 6월 532건, 7월 656건에 해당한다.

참고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관련 상담건수는 2011년에 64건, 2012년 64건, 2013년 78건, 2014년 67건, 2015년 90건, 2016년 93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조소연, 2017).

【표 Ⅲ-11】 전국 디지털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8년 5월 | 2018년 6월 | 2018년 7월 | 계 |
|------|----------|----------|----------|-------|
| 상담건수 | 606 | 532 | 656 | 1,794 |

출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부자료

디지털성폭력 영상삭제 지원건수의 자료출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부자료로서, 2018년 개소 후 월별 상담 실적을 취합하고 있다. 상담건수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상담건수와 마찬가지로 성별 구분하여 제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영상삭제 실제 건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다.¹⁰⁾

【표 Ⅲ-12】 전국 디지털성폭력 영상삭제 지원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8년 5월 | 2018년 6월 | 2018년 7월 | 계 |
|---------|----------|----------|----------|-------|
| 삭제 지원건수 | 760 | 2,254 | 2,273 | 5,287 |

출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부자료

서울시 성희롱 상담건수의 자료출처는 서울여성노동자회의 내부자료를 요청하여 성별구분 등 재구성된 것이다(서울시, 2018).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성희롱 상담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0.01건, 2011년 0.007건, 2012년 0.008건, 2013년 0.009건, 2014년 0.021건, 2015년 0.02건, 2016년 0.026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5년 감소하는 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서울여성노동자회의

10)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성폭력 영상삭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5 | 2016 | 2017(-6.12.) | 2018(1.30.~7.31.) | |
|------|-------|--------------|--------------|-------------------|--------------|
| 심의 | 3,768 | 7,356(4,389) | 2,977(1,866) | 7,648(3,081) | |
| 시정요구 | 계 | 3,636 | 7,325(4,389) | 2,977(1,866) | 7,567(3,061) |
| | 삭제 | 63 | 10 | 1 | 106(26) |
| | 접속차단 | 3,573 | 7,315(4,389) | 2,976(1,866) | 7,461(3,035)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2018) / ()는 이미 시정요구 한 건과 동일한 개인성행위 정보를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임. 위원 임기에 따라 연도별 기간이 다름

자료는 여성에 대한 상담건수를 알 수 있어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 통계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표 III-13 】 서울시 성희롱 상담건수(여성)

(단위 : 건)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상담건수 | 104 | 67 | 86 | 89 | 211 | 205 | 261 |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0.010 | 0.007 | 0.008 | 0.009 | 0.021 | 0.020 | 0.026 |

출처: 서울시(2018),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서울시 성매매 상담건수는 서울통계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통계 출처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이다. 통계 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0.546건, 2011년 0.403건, 2012년 0.486건, 2013년 0.725건, 2014년 0.824건, 2015년 0.856건, 2016년 1.067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해 감소했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표 III-14 】 서울시 성매매 상담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상담건수 | 5,633 | 4,129 | 4,958 | 7,357 | 8,323 | 8,576 | 10,600 |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0.546 | 0.403 | 0.486 | 0.725 | 0.824 | 0.856 | 1.067 |

출처: 서울통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이다. 서울시 자율방범대 참여자는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통계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자율방범대 참여자는 2018년 올해부터 성별구분을 시작하였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참여자 수는 여성 3,725명이고 남성 6,917명으로 총 10,642명이다.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은 35.0%에 해당한다.

【 표 Ⅲ-15 】 서울시 자율방범대 참여자

(단위 : 명,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총인원 | 10,375 | 11,170 | 11,239 | 11,323 | 10,977 | 11,115 | 10,553 | 10,642 |
| 여성 | - | - | - | - | - | - | - | 3,725 |
| 여성 참여 비율 | - | - | - | - | - | - | - | 35.00 |

출처: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의 통계 출처는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로서 공공데이터청구로 수집한 자료이다. 디지털성폭력 상담기관은 2018년 1개소 신설되었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개소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0.009개소, 2011년 0.009개소, 2012년은 0.009개소, 2013년과 2014년 0.008개소, 2015, 2016년, 2017년 0.009개소에 해당한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2010년과 2017년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표 Ⅲ-16 】 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단위 : 개소)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개소수 | 90 | 92 | 92 | 83 | 80 | 86 | 85 | 91 |
| 인구 1,000명당 개소수 | 0.009 | 0.009 | 0.009 | 0.008 | 0.008 | 0.009 | 0.009 | 0.009 |

출처: 공공데이터청구자료(2018.08.13.) 여성가족부(2010-2017)

주: 정부 지원과 미지원 기관 모두 포함한 수치임. 1366과 해바라기센터는 미포함. 참고로 서울시 1366은 2개소 해바라기센터는 2010년 30개소에서 2017년 38개소로 증가함.

2)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¹¹⁾

서울시 자연재해 인명피해 인원의 자료출처는 행정안전부의 내부자료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인명피해는 호우, 태풍, 강풍, 대설, 기타의 원인에 의한 사

11) '자연재해 이재민', '화재 이재민',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시민안전리더)'의 경우 성별분리 되고 있지 않음.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자'의 경우 성별 수집은 되고 있으나 통계 시스템 구축은 되고 있지 않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회신받지 못함. '화재예방교육 참여자'의 경우 소방청 직원에 의하면 올해부터 성별 수집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인가능하다고 함. 인식지표인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와 '지역대피소 인지'의 경우 신규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해당함.

망, 실종 인원을 말한다. 2011년 상대적으로 다수가 발생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토사유출)가 주원인이었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여성피해 인원은 2011년 0.00013건으로 이후 2013년과 2017년 0.00001건이다. 재난 자체가 성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권익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여성의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에서(강희영·정소라, 2016) 유의미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표 III-17 】 서울시 자연재해 인명피해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여성 | 0 | 13 | 0 | 0 | 0 | 0 | 0 | 1 |
| 남성 | 3 | 9 | 0 | 1 | 0 | 0 | 0 | 0 |
| 인구1,000명당 여성피해자 | 0 | 0.0013 | 0 | 0.0001 | 0 | 0 | 0 | 0.0001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행정안전부(2010-2017)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는 소방청 E-화재통계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통계생산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여성 피해인원은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0.007명, 2011년 0.006명, 2012년 0.010명, 2013년 0.007명, 2014년 0.012명, 2015년 0.009명, 2016년 0.009명, 2017년 0.01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에 여성 피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18 】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여성 | 75 | 65 | 100 | 68 | 120 | 86 | 94 | 103 |
| 남성 | 106 | 124 | 177 | 165 | 180 | 157 | 182 | 176 |
| 인구 1,000명당 여성피해자 | 0.007 | 0.006 | 0.010 | 0.007 | 0.012 | 0.009 | 0.009 | 0.010 |

출처: 소방청 E-화재통계

재난재해 긴급정보시스템 구축 지구수의 기초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내부자료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재난안전통계연보」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은 전국 단위로 생산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 통계연보」가 제공된 2016년부터 시도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이 25개 지구, 재해문자 전광판(산간·계곡·야영지)이 2개 지구에 설치되었다. 서울시 인구 1만명당 지구수는 2016년 0.027지구, 2017년 0.045지구로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III-19 】 재난재해 긴급정보시스템 구축

(단위 : 지구)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854 | 928 | 870 | 869 | 869 | 951 (서울 27) | 1,039 (서울 47) |
| 인구10,000명당 지구수 | 0.168 | 0.182 | 0.170 | 0.169 | 0.169 | 서울 0.027 | 서울 0.045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3), 행정안전부(2016-2017)

서울시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은 「서울서베이」를 토대로 산출했으며, 통계 출처는 소방재난본부이다. 통계생산주기는 1년이다. 도착률은 다음 표와 같이 2011년 95.5%, 2012년 96.0%, 2013년 96.9%, 2014년 96.3%로서 95% 이상 유지하였으나, 2015년 89.6%, 2016년 85.5%로 9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II-20 】 서울시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단위 :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5분내 도착률 | 95.5 | 96.0 | 96.9 | 96.3 | 89.6 | 85.5 |

출처: 「서울서베이」, 소방재난본부

우리동네 안전 감시단은 생활지역 주변의 위해요소나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모임을 말한다. 서울시 우리동네 안전 감시단 참여자는 서울시 행정자료이다. 감시단의 여성 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이 1기 56.9%, 2기 66.2%, 3기 70.7%로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표 III-21 】 서울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단위 : 명,%)

| 구 분 | 1기 2015.07~2016.06 | 2기 2016.07~2017.06 | 3기 2017.07~2018.06 |
|---------|-----------------------|-----------------------|-----------------------|
| 여성 | 486 | 575 | 725 |
| 남성 | 368 | 293 | 300 |
| 여성참여 비율 | 56.9 | 66.2 | 70.7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단체의 필요로 조직·운영되는 일선의 소방조직이다. 서울시 의용소방대 참여자는 서울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자료이며, 자료 출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다. 통계생산 주기는 1년이다. 서울시 의용소방대 참여인원 중 여성 참여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66.71%, 2011년 68.56%, 2012년 71.32%, 2013년 72.70%, 2014년 71.66%, 2015년 50.22%, 2016년 73.31%에 해당한다.

【 표 III-22 】 서울시 의용소방대 참여자

(단위 : 명,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여성 | 3,042 | 3,105 | 3,201 | 3,228 | 3,247 | 2,330 | 3,099 |
| 남성 | 1,518 | 1,424 | 1,287 | 1,212 | 1,284 | 2,310 | 1,128 |
| 여성참여 비율 | 66.71 | 68.56 | 71.32 | 72.70 | 71.66 | 50.22 | 73.31 |

출처: 서울통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교육 참여인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내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제공한 원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시스템상 현실적으로 취합 가능한 2015년부터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여성 참여 비율은 2015년 16.0%, 2016년 26.55% 2017년, 26.79%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이 아닌 재난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직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¹²⁾ 일반적으로 시민은 최근 소방과 재난 등 함께 교육

12) 일부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NDMS-재난관리과정, 국가기반시설관리과정, 국가안전관리

받는 실정이라 시민 대상 교육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에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 종합적인 재난 등의 교육 내용이 혼재되어 본 연구의 재난안전 및 사회재난 범위보다 상당히 넓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취합하거나 다른 지표로의 대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표 III-23 】 서울시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단위 : 명,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
| 여성 | 16 | 30 | 75 |
| 남성 | 84 | 83 | 205 |
| 여성참여 비율 | 16.0 | 26.549 | 26.786 |

출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요청자료(2018.07.23.) 내부자료(2015-2017),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한 것임. 지역구분이 가능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참여자에 국한하여 통계를 취합함.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체감도는 「서울서베이」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통계생산주기는 1년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수집하였고,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서울시 남성이 체감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에 대비하여 여성의 위험체감도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1.096배, 2011년 1.047배, 2012년 1.053배, 2013년 1.018배, 2014년 1.043배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보다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표 III-24 】 서울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단위 : 점, 배수)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여성 | 4.12 | 3.75 | 3.77 | 3.31 | 4.63 |
| 남성 | 3.76 | 3.58 | 3.58 | 3.25 | 4.44 |
| 남성인식 대비 여성인식 | 1.096 | 1.047 | 1.053 | 1.018 | 1.043 |

출처: 「서울 서베이」

계획과정,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강화 순회교육, 급경사지관리과정,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과정, 미래재난전문과정, 방재시설기준운영과정, 방재안전신규과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과정, 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산업재난안전관리과정, 소화전관리과정, 승강기담당직무역량과정 등.

3) 생활안전 분야¹³⁾

이 연구에서 생활안전사고는 주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정의하였다.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의 기초자료는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소비자 위해 데이터’ 일부 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주택에서 발생한 부상자 신고건수로서 위해(신체 내부, 외부에 손상) 건수를 구분하여 집계한 것이다. 다만 자료에 부상 정도나 사망 여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성 신고 인원은 다음 표와 같이 2015년 2,956명, 2016년 3,537명, 2017년 4,077명, 2018년 6월 기준으로 2,813명이 집계되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 피해 비율은 2015년 47.96%, 2016년 51.18%, 2017년 50.73%, 2018년 6월 기준으로 54.70%에 해당하였다.

【 표 III-25 】 서울시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단위 : 명,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1~6월) |
|----------|-------|-------|-------|------------|
| 여성 | 2,956 | 3,537 | 4,077 | 2,813 |
| 남성 | 3,207 | 3,374 | 3,959 | 2,330 |
| 여성 피해 비율 | 47.96 | 51.18 | 50.73 | 54.70 |

출처: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2007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점검하여 조치하는 것으로서, 전기가스보일러 등 생활안전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재난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는 서울시 행정자료에 기초하였다. 정비를 마친 가구수는 2010년 15,373가구, 2011년 16,843가구, 2012년 18,843가구, 2013년 20,513가구, 2014년 20,889가구, 2015년 24,560가구, 2016년 22,201가구, 2017년 24,165가구에 해당한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년 2천여 가구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에 다시 증가하였다.

13) ‘가정 내 생활안전 위해 신고건수’는 인명피해와 유사함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는 현재로서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는 수집이 어려움. ‘소화기 사용가능자’,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의 경우 신규조사가 필요함.

【 표 III-26 】 서울시 재난취약가구 무상 안전 점검·조치 건수

(단위 : 가구)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획가구수 | 10,000 | 16,000 | 17,000 | 18,000 | 19,000 | 18,418 | 17,593 | 22,277 |
| 정비가구수 | 15,373 | 16,846 | 18,843 | 20,513 | 20,889 | 24,560 | 22,201 | 24,165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주: 점검 후 미조치 가구 수는 파악되지 않음.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인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초로 하며, 통계 생산주기는 2년이다. 인구 1,000명당 여성 참여 인원은 다음 표와 같이 2012년 0.590명, 2014년 0.692명, 2016년 0.735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참여 비율은 2012년 23.03%, 2014년 23.03%, 2016년 22.94%로 유사한 비율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여성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27 】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단위 : 명, %)

| 구 분 | 2012 | 2014 | 2016 |
|---------------|--------|--------|--------|
| 여성 | 6,019 | 6,991 | 7,298 |
| 남성 | 17,007 | 16,034 | 15,644 |
| 인구 1,000명당 여성 | 0.590 | 0.692 | 0.735 |
| 여성 참여 비율 | 23.03 | 23.03 | 22.94 |

출처: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4) 안전환경 분야¹⁴⁾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여성들이 위기상황일 때 긴급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대피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수는 서울시 행정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개소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4년 656개소, 2015년 673개소, 2016년 727개소, 2017년 1,005개소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치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의 경우 신규조사가 필요함.

【 표 Ⅲ-28 】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수

(단위 : 개소)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수 | 656 | 673 | 727 | 1,005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개소수는 서울시 행정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개소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2년 1개소, 2013년 13개소, 2014년 1개소, 2015년 10개소, 2016년 18개소, 2017년 10개소에 해당한다.

【 표 Ⅲ-29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개소수

(단위 : 개소)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디자인 개소수 | 1 | 13 | 1 | 10 | 18 | 10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 원스톱 안심망이다. 서울시 안심이앱 다운로드 수는 서울시 행정자료에 기초하였다. 안심이앱은 2017년 5월 정식 출시하였다. 안심이앱 다운로드 수는 2017년 12,644건에 해당한다(표 생략). 한편 ‘안심이앱 다운로드 수’ 지표는 이전 연구의 ‘안심이 앱 적용 자치구 수’ 지표를 대체한 것이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은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의 일환으로 혼자 집에 있는 여성의 택배를 받는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것으로서,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미혼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일반 주택가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인원은 서울시 행정자료에 기초하였다. 이용자 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28천명, 2014년 138천명, 2015년 259천명, 2016년 370천명, 2017년 492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표 Ⅲ-30 】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이용자수 | 28 | 138 | 259 | 370 | 492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 따른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참여인원은 서울시 행정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위원회 참여 여성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5.405%이며, 2018년 1월 기준으로 8.571%에 해당한다.

【 표 Ⅲ-31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단위 : 명, %)

| 구 분 | 2016(6기) | | 2018(7기) | |
|-------|----------|-----|----------|-----|
|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 위촉직 |
| 여성 | 0 | 2 | 1 | 2 |
| 남성 | 14 | 21 | 16 | 16 |
| 여성 비율 | 5.405 | | 8.571 |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실적의 자료 출처는 서울시 내부 행정자료이다. 서울시 위원회는 2016년에 조직되었으며, 운영회의는 다음 표와 같이 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은 현재까지 1회가 진행되었다.¹⁵⁾

15) 조례에 의해 연 2회 시행이 정해져 있어, 이후 다른 형태로의 실적을 확인하거나, 지역여성안전연대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표 III-32 】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회)

| 구 분 | 2016 | 2017 | 2018 |
|--------------------|------|------|------|
|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회의 | 1 | 2 | 1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2016년 말에 설립되었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참여 인원 현황은 서울시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 위원회 참여 인원 중 여성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10.35%이며, 2018년은 13.79%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3 】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단위 : 명,%)

| 구 분 | 2016 | 2018 |
|------|-------|-------|
| 여성 | 3 | 4 |
| 남성 | 26 | 25 |
| 여성비율 | 10.35 | 13.79 |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여성안심특별시 2.0의 일환으로서 여성안심보안관을 선 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을 점검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수는 서울시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2017년에 50명에 해당하며, 이들에 의하여 점검된 건물은 총 18,807개소이다 (표 생략).

서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내고장알리미(laiis.go.kr)를 기초로 산출된 자료이다.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1,898.48명, 2011년 1,842.47명, 2012년 1,739.22명, 2013년 1,562명, 2014년 1,513.82명, 2015년 1,469.53명, 2016년 1,456.1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보다 사고에 대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향상을 나타낸다.

【 표 Ⅲ-34 】 서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1인당 담당주민수 | 1,898.48 | 1,842.47 | 1,739.22 | 1,562 | 1,513.82 | 1,469.53 | 1,456.1 |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서울시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내고장알리미를 기초로 산출된 자료이다. 구조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6,811명, 2011년 6,058명, 2012년 6,054명, 2013년 8,376명, 2014년 5,512명, 2015년 5,605명, 2016년 5,110명으로 나타난다. 2013년에 담당주민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낮아져 5천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표 Ⅲ-35 】 서울시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1인당 담당주민수 | 6,811 | 6,058 | 6,054 | 8,376 | 5,512 | 5,605 | 5,110 |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서울시 주민 1만명당 병상수는 내고장알리미를 기초로 산출된 자료이다. 주민 1만명당 병상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73.57개, 2011년 77.83개, 2012년 80.54개, 2013년 82.2개, 2014년 84.47개, 2015년 85.05개, 2016년 87.02개로 나타난다. 1만명당 병상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표 Ⅲ-36 】 서울시 주민 1만명 당 병상 수

(단위 : 개)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1만명당 병상 수 | 73.57 | 77.83 | 80.54 | 82.20 | 84.47 | 85.05 | 87.02 |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서울시 도시안전대책 예산은 서울시 예산 중 도시안전부문에 해당하는 예산에 해당한다. 예산은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에서 수집하였다. 치수·하수, 도로시설물, 소방·방재, 산림안전 등 도시안전 전반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포함된 것이며, 안전총괄본부 외에 여러 실, 국의 예산이 합산된 수치이다.

【 표 III-37 】 서울시 도시안전대책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예산 | 4,244 | 4,793 | 7,241 | 8,731 | 8,980 | 11,070 | 12,977 |
| 인구 1,000당 예산 | 0.412 | 0.468 | 0.710 | 0.861 | 0.889 | 1.105 | 1.307 |

출처: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2010~2017)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연도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을 산출하였다. 여성정책실의 예산 중 여성안전 관련 사업의 예산을 합산한 것이다. 단 국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노숙인 관련 지원 사업, 여성안심특별시 관련 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여성안전대책 예산은 여성 특정적 성격의 예산이므로 앞서 도시안전대책 예산 전반에서 여성을 고려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1,000명당 예산은 2010년 1,044천원, 2011년 1,031천원, 2012년 1,037천원, 2013년 1,223천원, 2014년 1,202천원, 2015년 1,830천원, 2016년 1,952천원, 2017년 2,385천원이다.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8 】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예산 | 10,768,724 | 10,571,953 | 10,582,485 | 12,408,709 | 12,145,760 | 18,347,831 | 19,386,684 | 23,518,425 |
| 인구 1,000당 예산 | 1,044.24 | 1,031.44 | 1,037.98 | 1,223.30 | 1,202.17 | 1,830.72 | 1,952.21 | 2,385.86 |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지역별 측정 결과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대표지표와 이슈지표 중 일부 지표로써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다른 6대 도시 또는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여 측정해보았다.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112신고건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경찰청 내부자료로서 전국의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3년 3.13건, 2014년 4.43건, 2016년 5.12건, 2017년 5.3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인천이 7.36건으로 가장 높고, 제주 6.58건, 경기 6.48건, 울산 5.84건, 서울 5.60건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 충남 3.67건, 경북 3.69건, 전북 4.02건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이 2015년 5.49건, 2016년 7.32건, 2017년 7.36건으로 증가하며 타 시도에 비해 신고건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표 Ⅲ-39 】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160,272 (3.13) | 227,603 (4.43) | 227,630 (4.42) | 264,567 (5.12) | 279,082 (5.39) |
| 서울 | 32,406 (3.19) | 45,686 (4.52) | 44,028 (4.39) | 53,501 (5.39) | 55,161 (5.60) |
| 부산 | 8,241 (2.34) | 13,595 (3.86) | 14,074 (4.01) | 14,909 (4.26) | 16,185 (4.66) |
| 대구 | 8,092 (3.23) | 11,197 (4.49) | 12,594 (5.06) | 13,063 (5.26) | 13,213 (5.34) |
| 인천 | 10,045 (3.49) | 10,815 (3.73) | 16,076 (5.49) | 21,530 (7.32) | 21,702 (7.36) |
| 광주 | 3,494 (2.37) | 4,144 (2.81) | 4,872 (3.31) | 6,356 (4.33) | 6,875 (4.70) |
| 대전 | 3,679 (2.40) | 5,907 (3.86) | 5,346 (3.52) | 6,998 (4.62) | 7,020 (4.67) |
| 울산 | 3,241 (2.80) | 5,358 (4.59) | 6,418 (5.47) | 6,630 (5.66) | 6,809 (5.84) |
| 경기 | 48,790 | 73,522 | 71,134 | 80,430 | 83,409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3.99) | (5.95) | (5.68) | (6.32) | (6.48) |
| 강원 | 5,326 (3.45) | 7,000 (4.53) | 6,226 (4.02) | 7,034 (4.54) | 7,752 (5.00) |
| 충북 | 3,695 (2.35) | 5,543 (3.51) | 6,508 (4.11) | 6,914 (4.34) | 7,335 (4.60) |
| 충남 | 1,413 (0.65) | 6,089 (2.74) | 7,223 (3.16) | 7,684 (3.28) | 8,805 (3.67) |
| 전북 | 7,232 (3.86) | 7,891 (4.22) | 4,271 (2.28) | 5,082 (2.73) | 7,454 (4.02) |
| 전남 | 5,968 (3.13) | 6,661 (3.50) | 6,691 (3.50) | 7,498 (3.94) | 8,404 (4.43) |
| 경북 | 8,331 (3.09) | 9,488 (3.51) | 6,779 (2.51) | 8,931 (3.31) | 9,929 (3.69) |
| 경남 | 8,095 (2.43) | 12,006 (3.58) | 11,908 (3.54) | 13,995 (4.15) | 14,707 (4.35) |
| 제주 | 2,224 (3.75) | 2,706 (4.46) | 3,482 (5.58) | 4,012 (6.25) | 4,322 (6.58)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3-2017)

주: () 안은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임.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가정폭력 112신고건수는 2013년부터 별도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대체 자료로서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검거건수를 수집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경찰청 내부자료로서 가정폭력 발생건수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가정폭력 검거건수로 대체한 것이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국의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0년 0.15건, 2011년 0.13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0.17건으로 증가하여 2016년 0.88건까지 해마다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0.75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0년 0.15건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1.01건, 경기도 0.94건, 강원도 0.8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0.47건, 전북 0.53건, 충남과 경남 0.57건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0.68건에 해당하였다.

표 Ⅲ-40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검거건수

(단위 : 건)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7,359 (0.15) | 6,848 (0.13) | 8,762 (0.17) | 16,785 (0.33) | 17,557 (0.34) | 40,828 (0.79) | 45,619 (0.88) | 38,583 (0.75) |
| 서울 | 1,726 (0.17) | 1,789 (0.17) | 2,464 (0.24) | 3,869 (0.38) | 4,543 (0.45) | 6,924 (0.69) | 7,745 (0.78) | 6,721 (0.68) |
| 부산 | 357 (0.10) | 195 (0.05) | 243 (0.07) | 817 (0.23) | 503 (0.14) | 1,553 (0.44) | 1,870 (0.53) | 1,627 (0.47) |
| 대구 | 469 (0.19) | 325 (0.13) | 316 (0.13) | 591 (0.24) | 688 (0.28) | 1,634 (0.66) | 2,335 (0.94) | 1,797 (0.73) |
| 인천 | 344 (0.12) | 516 (0.18) | 542 (0.19) | 921 (0.32) | 1,143 (0.39) | 2,897 (0.99) | 3,093 (1.05) | 2,513 (0.85) |
| 광주 | 297 (0.20) | 271 (0.19) | 260 (0.18) | 500 (0.34) | 650 (0.44) | 917 (0.62) | 907 (0.62) | 891 (0.61) |
| 대전 | 189 (0.13) | 132 (0.09) | 124 (0.08) | 393 (0.26) | 363 (0.24) | 1,325 (0.87) | 1,762 (1.16) | 1,597 (1.06) |
| 울산 | 222 (0.20) | 190 (0.17) | 196 (0.17) | 526 (0.45) | 603 (0.52) | 1,135 (0.97) | 1,176 (1.00) | 985 (0.85) |
| 경기 | 2,063 (0.18) | 2,057 (0.17) | 3,029 (0.25) | 5,179 (0.42) | 5,394 (0.44) | 13,777 (1.10) | 14,538 (1.14) | 12,116 (0.94) |
| 강원 | 359 (0.23) | 294 (0.19) | 228 (0.15) | 726 (0.47) | 473 (0.31) | 1,235 (0.80) | 1,352 (0.87) | 1,350 (0.87) |
| 충북 | 207 (0.13) | 142 (0.09) | 357 (0.23) | 416 (0.26) | 453 (0.29) | 1,129 (0.71) | 1,443 (0.91) | 1,107 (0.69) |
| 충남 | 58 (0.03) | 58 (0.03) | 46 (0.02) | 316 (0.15) | 349 (0.16) | 1,154 (0.50) | 1,610 (0.69) | 1,367 (0.57) |
| 전북 | 158 (0.08) | 218 (0.12) | 262 (0.14) | 526 (0.28) | 477 (0.25) | 1,020 (0.55) | 1,204 (0.65) | 984 (0.53) |
| 전남 | 210 (0.11) | 255 (0.13) | 292 (0.15) | 618 (0.32) | 524 (0.27) | 1,366 (0.72) | 1,602 (0.84) | 1,394 (0.74) |
| 경북 | 243 (0.09) | 143 (0.05) | 206 (0.08) | 514 (0.19) | 550 (0.20) | 1,953 (0.72) | 1,922 (0.71) | 1,557 (0.58) |
| 경남 | 326 (0.10) | 205 (0.06) | 101 (0.03) | 553 (0.17) | 545 (0.16) | 2,008 (0.60) | 2,272 (0.67) | 1,914 (0.57) |
| 제주 | 131 (0.23) | 58 (0.10) | 96 (0.16) | 320 (0.54) | 299 (0.49) | 801 (1.28) | 788 (1.23) | 663 (1.01)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0-2017)

주: () 안은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임.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재범률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경찰청 내부자료에 해당한다. 재범은 최근 5년 이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 정의되며 재범률은 가정폭력 재범인원/검거인원×100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전국의 가정폭력 재범률은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20.3%, 2011년 32.9%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32.2%에서 2016년 3.8%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6.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0년 20.3%에 비해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재범률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서울의 재범률도 전국과 유사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지역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대전 9.1%, 경기도 8.7%, 전남 7.6%, 인천 7.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1.4%, 경남 2.6%, 울산 3.1%, 충북 3.2%, 부산 3.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5.6%에 해당하였다.

표 III-41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재범률

(단위 :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20.3 | 32.9 | 32.2 | 11.8 | 11.1 | 4.9 | 3.8 | 6.2 |
| 서울 | 25.8 | 35.2 | 35.5 | 11.6 | 11.6 | 5.6 | 4.6 | 5.6 |
| 부산 | 17.7 | 55.5 | 42.4 | 6.1 | 9.4 | 1.1 | 1.2 | 3.3 |
| 대구 | 13.6 | 29.9 | 19.6 | 10.5 | 5.0 | 0.6 | 1.8 | 4.2 |
| 인천 | 15.1 | 35.1 | 20.3 | 7.9 | 7.1 | 4.5 | 2.0 | 7.3 |
| 광주 | 27.4 | 21.7 | 33.1 | 16.7 | 13.9 | 1.9 | 1.7 | 3.4 |
| 대전 | 32.8 | 58.6 | 21.6 | 18.3 | 14.5 | 1.9 | 4.8 | 9.1 |
| 울산 | 14.8 | 30.5 | 31.7 | 16.7 | 16.3 | 5.2 | 3.3 | 3.1 |
| 경기 | 17.9 | 26.1 | 29.8 | 12.9 | 10.1 | 8.1 | 5.3 | 8.7 |
| 강원 | 27.2 | 33.8 | 43.6 | 12.9 | 16.5 | 3.2 | 4.1 | 5.9 |
| 충북 | 17.1 | 52.3 | 33.3 | 9.8 | 13.0 | 1.0 | 2.7 | 3.2 |
| 충남 | 20.3 | 27.1 | 21.4 | 4.0 | 6.9 | 0.6 | 0.8 | 1.4 |
| 전북 | 22.5 | 37.7 | 33.3 | 8.4 | 19.0 | 2.4 | 4.2 | 2.6 |
| 전남 | 16.9 | 38.0 | 44.1 | 24.8 | 15.3 | 5.1 | 2.5 | 7.6 |
| 경북 | 15.1 | 24.7 | 39.6 | 7.0 | 9.2 | 1.7 | 3.2 | 3.8 |
| 경남 | 14.2 | 37.0 | 45.2 | 6.7 | 11.0 | 0.6 | 1.8 | 2.6 |
| 제주 | 14.1 | 55.4 | 28.7 | 8.6 | 11.3 | 0.6 | 4.0 | 3.6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3-2017)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건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경찰청 내부자료이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을 의미하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발생건수는 2013년도부터 반영하였다. 전국의 인구 1,000명당 성폭력 발생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0.40건, 2011년 0.43건, 2015년 0.59건으로 증가하다 2016년 0.56건으로 다소 감소한 후 2017년 0.6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6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성폭력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01건으로 가장 높고, 인천 0.82건, 제주 0.70건, 부산 0.6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 경북, 경남지역이 0.39건으로 낮은 발생건수를 보였다. 서울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 발생건수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이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 여성인구가 타시도에 비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 표 III-42 】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20,375 (0.40) | 21,912 (0.43) | 22,933 (0.45) | 28,786 (0.56) | 29,517 (0.58) | 30,651 (0.59) | 28,993 (0.56) | 32,234 (0.62) |
| 서울 | 5,746 (0.56) | 6,280 (0.61) | 6,062 (0.59) | 7,395 (0.73) | 8,523 (0.84) | 9,476 (0.95) | 8,342 (0.84) | 9,961 (1.01) |
| 부산 | 1,734 (0.49) | 1,583 (0.45) | 1,527 (0.43) | 2,484 (0.70) | 2,316 (0.66) | 1,894 (0.54) | 1,705 (0.49) | 2,233 (0.64) |
| 대구 | 868 (0.35) | 898 (0.36) | 1,091 (0.44) | 1,548 (0.62) | 1,566 (0.63) | 1,419 (0.57) | 1,198 (0.48) | 1,149 (0.46) |
| 인천 | 1,177 (0.43) | 1,334 (0.48) | 1,381 (0.49) | 1,591 (0.55) | 1,659 (0.57) | 1,994 (0.68) | 2,122 (0.72) | 2,430 (0.82) |
| 광주 | 671 (0.46) | 792 (0.54) | 1,005 (0.68) | 1,213 (0.82) | 1,023 (0.69) | 982 (0.67) | 855 (0.58) | 860 (0.59) |
| 대전 | 519 (0.35) | 586 (0.39) | 600 (0.39) | 822 (0.54) | 833 (0.54) | 859 (0.57) | 780 (0.52) | 921 (0.61) |
| 울산 | 414 (0.37) | 409 (0.36) | 417 (0.36) | 553 (0.48) | 546 (0.47) | 535 (0.46) | 519 (0.44) | 501 (0.43) |
| 경기 | 4,137 | 4,819 | 5,177 | 5,982 | 6,040 | 6,723 | 6,827 | 7,055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0.35) | (0.40) | (0.43) | (0.49) | (0.49) | (0.54) | (0.54) | (0.55) |
| 강원 | 564 (0.37) | 568 (0.37) | 581 (0.38) | 659 (0.43) | 692 (0.45) | 697 (0.45) | 736 (0.47) | 742 (0.48) |
| 충북 | 560 (0.36) | 565 (0.36) | 567 (0.36) | 708 (0.45) | 649 (0.41) | 728 (0.46) | 761 (0.48) | 843 (0.53) |
| 충남 | 665 (0.32) | 798 (0.38) | 838 (0.39) | 1,036 (0.48) | 1,234 (0.56) | 1,082 (0.47) | 1,056 (0.45) | 1,152 (0.48) |
| 전북 | 577 (0.31) | 624 (0.33) | 866 (0.46) | 946 (0.51) | 896 (0.48) | 856 (0.46) | 697 (0.37) | 730 (0.39) |
| 전남 | 670 (0.35) | 616 (0.32) | 647 (0.34) | 828 (0.43) | 762 (0.40) | 782 (0.41) | 784 (0.41) | 816 (0.43) |
| 경북 | 843 (0.31) | 835 (0.31) | 826 (0.31) | 1,223 (0.45) | 1,058 (0.39) | 939 (0.35) | 909 (0.34) | 1,043 (0.39) |
| 경남 | 953 (0.29) | 946 (0.29) | 1,063 (0.32) | 1,303 (0.39) | 1,350 (0.40) | 1,247 (0.37) | 1,162 (0.34) | 1,334 (0.39) |
| 제주 | 277 (0.48) | 259 (0.45) | 285 (0.49) | 495 (0.83) | 370 (0.61) | 438 (0.70) | 540 (0.84) | 464 (0.71)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0.) 경찰청(2010-2017)

주: () 안은 인구 1,000명당 성폭력 발생건수임.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전국 시도별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대검찰청 내부자료이다. 기소율은 기소자수/전체처분인원×100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서울은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방검찰청의 기소인원을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성폭력사범 기소율은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42.80%, 2011년 43.73%, 2012년 44.89%로 증가하다 2013년 43.42%부터 2016년 31.97%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 35.19%로 다소 증가하였다. 지역별 성폭력 사범 기소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전 45.50%, 광주 44.05%, 울산 42.42%, 대구 42.3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23.46% 서울 33.45%, 부산 36.3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2010년 40.18%, 2011년 42.97%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2년 38.73%에서 2017년 23.46%까지 계속 기소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Ⅲ-43 성폭력사범 기소율

(단위 : 명,%)

| 구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처분계 | 14,439 | 14,929 | 15,200 | 18,162 | 20,196 | 22,698 | 24,248 | 26,899 |
| | 기소자수 | 6,180 | 6,529 | 6,823 | 7,886 | 8,284 | 7,976 | 7,753 | 9,465 |
| | 기소율 | 42.80 | 43.73 | 44.89 | 43.42 | 41.02 | 35.14 | 31.97 | 35.19 |
| 서울 | 처분계 | 6,556 | 6,681 | 6,222 | 7,269 | 8,494 | 9,732 | 10,462 | 11,499 |
| | 기소자수 | 2,955 | 3,177 | 3,117 | 3,148 | 3,433 | 2,936 | 3,026 | 3,846 |
| | 기소율 | 45.07 | 47.55 | 50.10 | 43.31 | 40.42 | 30.17 | 28.92 | 33.45 |
| 부산 | 처분계 | 1,594 | 1,523 | 1,388 | 2,203 | 2,244 | 2,206 | 2,240 | 2,690 |
| | 기소자수 | 659 | 599 | 638 | 958 | 912 | 753 | 637 | 978 |
| | 기소율 | 41.34 | 39.33 | 45.97 | 43.49 | 40.64 | 34.13 | 28.44 | 36.36 |
| 대구 | 처분계 | 1,611 | 1,747 | 1,905 | 2,186 | 2,254 | 2,493 | 2,524 | 2,822 |
| | 기소자수 | 660 | 707 | 816 | 1,035 | 1,102 | 1,087 | 1,006 | 1,194 |
| | 기소율 | 40.97 | 40.47 | 42.83 | 47.35 | 48.49 | 43.60 | 39.86 | 42.31 |
| 인천 | 처분계 | 1,573 | 1,850 | 1,952 | 2,400 | 2,629 | 3,223 | 3,868 | 4,526 |
| | 기소자수 | 632 | 795 | 756 | 905 | 931 | 1,115 | 919 | 1,062 |
| | 기소율 | 40.18 | 42.97 | 38.73 | 37.71 | 35.41 | 34.60 | 23.76 | 23.46 |
| 광주 | 처분계 | 1,415 | 1,396 | 1,680 | 1,743 | 1,913 | 1,982 | 1,979 | 2,168 |
| | 기소자수 | 516 | 520 | 610 | 758 | 812 | 849 | 886 | 955 |
| | 기소율 | 36.47 | 37.25 | 36.31 | 43.49 | 42.45 | 42.84 | 44.77 | 44.05 |
| 대전 | 처분계 | 1,182 | 1,281 | 1,539 | 1,759 | 1,893 | 2,309 | 2,430 | 2,442 |
| | 기소자수 | 546 | 561 | 667 | 826 | 830 | 947 | 878 | 1,111 |
| | 기소율 | 46.19 | 43.79 | 43.34 | 46.96 | 43.85 | 41.01 | 39.86 | 45.50 |
| 울산 | 처분계 | 508 | 451 | 514 | 602 | 769 | 753 | 745 | 752 |
| | 기소자수 | 212 | 170 | 219 | 256 | 264 | 289 | 401 | 319 |
| | 기소율 | 41.73 | 37.69 | 42.61 | 42.52 | 34.33 | 38.38 | 53.83 | 42.42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대검찰청(2010-2017)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참고로 지역별 지표 값 산출 지표는 아니지만, 이슈지표인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하여 디지털성폭력사범 기소자수 및 기소율을 살펴보았다. 디지털성폭력사범 기소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대검찰청 내부자료로서, 디지털성폭력 관련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한다. 서울시 및 6대광역시의 디지털성폭력사범 기소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56.61%, 2011년 59.86%, 2012년 60.48%로 증가하다 2013년 48.32%부터 2016년 28.52%까지 감소하였으며 2017년 32.05%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구 39.45% 대전 37.86%, 광주 37.79%, 울산 37.50% 순으로 기소율이 높았으며, 인천이 19.12%로 가장 낮고, 부산 33.0%, 서울 33.2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44 디지털성폭력사범 기소율

(단위 : 명,%)

| 구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처분계 | 1,535 | 1,791 | 2,118 | 3,028 | 3,543 | 4,550 | 5,045 | 5,891 |
| | 기소자수 | 869 | 1,072 | 1,281 | 1,463 | 1,427 | 1,379 | 1,439 | 1,888 |
| | 기소율 | 56.61 | 59.86 | 60.48 | 48.32 | 40.28 | 30.31 | 28.52 | 32.05 |
| 서울 | 처분계 | 841 | 1,022 | 1,152 | 1,446 | 1,824 | 2,483 | 2,590 | 2,733 |
| | 기소자수 | 562 | 692 | 808 | 774 | 787 | 670 | 683 | 909 |
| | 기소율 | 66.83 | 67.71 | 70.14 | 53.53 | 43.15 | 26.98 | 26.37 | 33.26 |
| 부산 | 처분계 | 148 | 147 | 201 | 501 | 408 | 362 | 414 | 609 |
| | 기소자수 | 73 | 85 | 113 | 173 | 134 | 93 | 98 | 201 |
| | 기소율 | 49.32 | 57.82 | 56.22 | 34.53 | 32.84 | 25.69 | 23.67 | 33.00 |
| 대구 | 처분계 | 151 | 173 | 180 | 261 | 281 | 341 | 478 | 550 |
| | 기소자수 | 68 | 81 | 84 | 159 | 138 | 131 | 169 | 217 |
| | 기소율 | 45.03 | 46.82 | 46.67 | 60.92 | 49.11 | 38.42 | 35.36 | 39.45 |
| 인천 | 처분계 | 129 | 159 | 215 | 394 | 416 | 640 | 772 | 1,041 |
| | 기소자수 | 62 | 85 | 114 | 139 | 134 | 183 | 164 | 199 |
| | 기소율 | 48.06 | 53.46 | 53.02 | 35.28 | 32.21 | 28.59 | 21.24 | 19.12 |
| 광주 | 처분계 | 130 | 138 | 166 | 162 | 240 | 233 | 265 | 344 |
| | 기소자수 | 46 | 60 | 70 | 82 | 97 | 99 | 122 | 130 |
| | 기소율 | 35.39 | 43.48 | 42.17 | 50.62 | 40.42 | 42.49 | 46.04 | 37.79 |
| 대전 | 처분계 | 89 | 110 | 158 | 201 | 266 | 388 | 403 | 486 |
| | 기소자수 | 46 | 56 | 73 | 109 | 112 | 160 | 130 | 184 |
| | 기소율 | 51.69 | 50.91 | 46.20 | 54.23 | 42.11 | 41.24 | 32.26 | 37.86 |
| 울산 | 처분계 | 47 | 42 | 46 | 63 | 108 | 103 | 123 | 128 |
| | 기소자수 | 12 | 13 | 19 | 27 | 25 | 43 | 73 | 48 |
| | 기소율 | 25.53 | 30.95 | 41.30 | 42.86 | 23.15 | 41.75 | 59.35 | 37.50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대검찰청(2010-2017)

주: 관련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공공데이터청구를 통해 수집한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이다. 인구 100,000명당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1.15개소, 2011년 1.17개소, 2012년 1.14개소, 2015년과 2016년 1.08개소, 2017년 1.10개소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구 100,000명당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제주 2.13개소, 광주 1.91개소, 강원 1.74개소 순으로 높았으며 인천 0.54개소, 대구 0.81개소, 경기 0.82개소, 부산 0.89개소 순으로 낮았다. 다만 상담소와 보호시설 수는 인구수와 더불어 면적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은 주위에 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질 우려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Ⅲ-45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단위 : 건)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582 (1.15) | 592 (1.17) | 579 (1.14) | 571 (1.12) | 563 (1.10) | 554 (1.08) | 557 (1.08) | 567 (1.10) |
| 서울 | 90 (0.87) | 92 (0.90) | 92 (0.90) | 83 (0.82) | 80 (0.79) | 86 (0.86) | 85 (0.86) | 91 (0.92) |
| 부산 | 30 (0.84) | 31 (0.87) | 32 (0.90) | 32 (0.91) | 31 (0.88) | 32 (0.91) | 32 (0.91) | 31 (0.89) |
| 대구 | 22 (0.88) | 23 (0.92) | 18 (0.72) | 20 (0.80) | 20 (0.80) | 19 (0.76) | 19 (0.76) | 20 (0.81) |
| 인천 | 20 (0.73) | 23 (0.82) | 20 (0.70) | 20 (0.69) | 19 (0.65) | 18 (0.62) | 16 (0.54) | 16 (0.54) |
| 광주 | 32 (2.20) | 33 (2.25) | 31 (2.11) | 31 (2.10) | 29 (1.96) | 29 (1.97) | 31 (2.11) | 28 (1.91) |
| 대전 | 15 (1.00) | 15 (0.99) | 15 (0.98) | 17 (1.11) | 17 (1.11) | 16 (1.05) | 16 (1.06) | 19 (1.26) |
| 울산 | 10 (0.89) | 12 (1.06) | 11 (0.96) | 11 (0.95) | 12 (1.03) | 12 (1.02) | 11 (0.94) | 12 (1.03) |
| 경기 | 118 (1.00) | 117 (0.98) | 110 (0.91) | 114 (0.93) | 107 (0.87) | 103 (0.82) | 104 (0.82) | 105 (0.82) |
| 강원 | 20 (1.31) | 24 (1.56) | 24 (1.56) | 22 (1.43) | 24 (1.55) | 25 (1.61) | 26 (1.68) | 27 (1.74)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충북 | 19 (1.23) | 20 (1.28) | 22 (1.41) | 17 (1.08) | 19 (1.20) | 20 (1.26) | 20 (1.26) | 20 (1.25) |
| 충남 | 36 (1.73) | 34 (1.62) | 34 (1.59) | 34 (1.57) | 37 (1.67) | 36 (1.57) | 39 (1.67) | 39 (1.63) |
| 전북 | 45 (2.41) | 40 (2.13) | 39 (2.08) | 39 (2.08) | 35 (1.87) | 29 (1.55) | 28 (1.50) | 27 (1.46) |
| 전남 | 33 (1.72) | 30 (1.57) | 30 (1.57) | 33 (1.73) | 34 (1.78) | 31 (1.62) | 32 (1.68) | 31 (1.63) |
| 경북 | 37 (1.38) | 43 (1.59) | 47 (1.74) | 42 (1.56) | 40 (1.48) | 39 (1.44) | 39 (1.44) | 41 (1.52) |
| 경남 | 45 (1.37) | 42 (1.27) | 42 (1.27) | 44 (1.32) | 45 (1.34) | 45 (1.34) | 46 (1.36) | 46 (1.36) |
| 제주 | 10 (1.75) | 13 (2.26) | 12 (2.06) | 12 (2.02) | 14 (2.31) | 14 (2.24) | 13 (2.03) | 14 (2.13) |

출처: 공공데이터청구자료(2018.08.13.) 여성가족부(2010-2017)

주: ()안은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자연재해 인명피해 인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행정안전부 내부자료를 기초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의 수와 여성비율을 산출하였다. 전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여성 인명피해는 다음 표와 같이 대부분 해마다 1명에서 3명 정도이나 2011년 40명, 2012년에 6명이 발생하였다. 집중호우에 발생에 따라 연도별 인명피해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성의 피해 비율은 2010년 15.38%, 2011년 51.28%, 2012년 37.50%, 2013년 25.0%, 2014년 50.0%, 2016년과 2017년 42.86%로서 대부분 남성보다 높지 않은 경향이 있다.

표 III-46 전국 시도별 자연재해 인명피해 발생건수

(단위 : 명,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계 | 남성 | 11 | 38 | 10 | 3 | 1 | 0 | 4 | 4 |
| | 여성 | 2 | 40 | 6 | 1 | 1 | 0 | 3 | 3 |
| | 여성비율 | 15.38 | 51.28 | 37.50 | 25.00 | 50.00 | 0 | 42.86 | 42.86 |
| 서울 | 남성 | 3 | 9 | - | 1 | - | - | - | - |
| | 여성 | - | 13 | - | - | - | - | - | 1 |

| 구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부산 | 남성 | - | - | - | - | 1 | - | 1 | - |
| | 여성 | - | 1 | - | - | 1 | - | 1 | - |
| 대구 | 남성 | - | - | - |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 - | - |
| 인천 | 남성 | - | 5 | - | - | - | - | - | 1 |
| | 여성 | - | - | - | 1 | - | - | - | - |
| 광주 | 남성 | - | - | 1 |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 - | - |
| 대전 | 남성 | - | 1 | - |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 - | - |
| 울산 | 남성 | - | - | - | - | - | - | 2 | - |
| | 여성 | - | - | - | - | - | - | 1 | - |
| 경기 | 남성 | 4 | 18 | - | 2 | - | - | - | - |
| | 여성 | 1 | 19 | 1 | - | - | - | - | - |
| 강원 | 남성 | - | - | - |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 - | - |
| 충북 | 남성 | - | - | - | - | - | - | 1 | 3 |
| | 여성 | - | - | - | - | - | - | - | 2 |
| 충남 | 남성 | 4 | - | - | - | - | - | - | - |
| | 여성 | - | - | 2 | - | - | - | - | - |
| 전북 | 남성 | - | 2 | 4 | - | - | - | - | - |
| | 여성 | 1 | 2 | 1 | - | - | - | - | - |
| 전남 | 남성 | - | - | 3 | - | - | - | - | - |
| | 여성 | - | 2 | 1 | - | - | - | - | - |
| 경북 | 남성 | - | 1 | - | - | - | - | - | - |
| | 여성 | - | - | 1 | - | - | - | - | - |
| 경남 | 남성 | - | 2 | 2 | - | - | - | - | - |
| | 여성 | - | 3 | - | - | - | - | - | - |
| 제주 | 남성 | - | - | - |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 1 | -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행정안전부(2010-2017)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전국 시도별 화재 인명피해는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통해 수집한 소방청 내부자료를 기초로 여성피해자 인원과 인명피해 인원 중 여성비율을 산출하였다. 전국의 화재로 인한 여성 피해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491명, 2011년 534명, 2012년 773명, 2013년 691명, 2014년 732명, 2015년 695명, 2016년 623명, 2017년 736명에 이른다.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31.62%, 2011년 30.81%, 2012년 35.23%, 2013년 31.92%, 2015년 33.84%, 2016년 30.78%, 2017년 34.11%로 증감을 반복하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전국 시도별 화재 인명피해 발생건수

(단위 : 명, %)

| 구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남성 | 1,062 | 1,199 | 1,421 | 1,474 | 1,414 | 1,359 | 1,401 | 1,422 |
| | 여성 | 491 | 534 | 773 | 691 | 732 | 695 | 623 | 736 |
| | 여성비율 | 31.62 | 30.81 | 35.23 | 31.92 | 34.11 | 33.84 | 30.78 | 34.11 |
| 서울 | 남성 | 106 | 124 | 177 | 165 | 180 | 157 | 182 | 176 |
| | 여성 | 75 | 65 | 100 | 68 | 120 | 86 | 94 | 103 |
| | 여성비율 | 41.44 | 34.39 | 36.10 | 29.18 | 40.00 | 35.39 | 34.06 | 36.92 |
| 부산 | 남성 | 68 | 75 | 120 | 81 | 70 | 63 | 95 | 82 |
| | 여성 | 27 | 37 | 72 | 35 | 33 | 35 | 50 | 39 |
| | 여성비율 | 28.42 | 33.04 | 37.50 | 30.17 | 32.04 | 35.71 | 34.48 | 32.23 |
| 대구 | 남성 | 53 | 66 | 47 | 79 | 67 | 57 | 70 | 52 |
| | 여성 | 31 | 40 | 17 | 35 | 23 | 25 | 24 | 17 |
| | 여성비율 | 36.90 | 37.74 | 26.56 | 30.70 | 25.56 | 30.49 | 25.53 | 24.64 |
| 인천 | 남성 | 58 | 70 | 67 | 57 | 60 | 64 | 65 | 55 |
| | 여성 | 17 | 34 | 24 | 20 | 25 | 40 | 39 | 41 |
| | 여성비율 | 22.67 | 32.69 | 26.37 | 25.97 | 29.41 | 38.46 | 37.50 | 42.71 |
| 광주 | 남성 | 21 | 22 | 16 | 32 | 16 | 13 | 19 | 20 |
| | 여성 | 7 | 5 | 10 | 12 | 12 | 7 | 11 | 16 |
| | 여성비율 | 25.00 | 18.52 | 38.46 | 27.27 | 42.86 | 35.00 | 36.67 | 44.44 |
| 대전 | 남성 | 33 | 28 | 34 | 50 | 42 | 28 | 30 | 32 |
| | 여성 | 10 | 14 | 12 | 33 | 24 | 19 | 17 | 23 |
| | 여성비율 | 23.26 | 33.33 | 26.09 | 39.76 | 36.36 | 40.43 | 36.17 | 41.82 |
| 울산 | 남성 | 47 | 54 | 67 | 57 | 36 | 29 | 52 | 19 |
| | 여성 | 24 | 20 | 40 | 32 | 9 | 19 | 17 | 20 |
| | 여성비율 | 33.80 | 27.03 | 37.38 | 35.96 | 20.00 | 39.58 | 24.64 | 51.28 |

| 구 분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경기 | 남성 | 257 | 296 | 368 | 332 | 390 | 446 | 415 | 440 |
| | 여성 | 119 | 138 | 209 | 178 | 228 | 226 | 165 | 204 |
| | 여성비율 | 31.65 | 31.80 | 36.22 | 34.90 | 36.89 | 33.63 | 28.45 | 31.68 |
| 강원 | 남성 | 55 | 65 | 90 | 80 | 77 | 83 | 91 | 92 |
| | 여성 | 24 | 19 | 67 | 45 | 33 | 34 | 28 | 43 |
| | 여성비율 | 30.38 | 22.62 | 42.68 | 36.00 | 30.00 | 29.06 | 23.53 | 31.85 |
| 충북 | 남성 | 35 | 64 | 86 | 66 | 53 | 48 | 38 | 92 |
| | 여성 | 21 | 20 | 36 | 38 | 23 | 15 | 12 | 49 |
| | 여성비율 | 37.50 | 23.81 | 29.51 | 36.54 | 30.26 | 23.81 | 24.00 | 34.75 |
| 충남 | 남성 | 77 | 83 | 67 | 73 | 63 | 45 | 53 | 37 |
| | 여성 | 32 | 32 | 40 | 29 | 28 | 24 | 19 | 20 |
| | 여성비율 | 29.36 | 27.83 | 37.38 | 28.43 | 30.77 | 34.78 | 26.39 | 35.09 |
| 전북 | 남성 | 45 | 35 | 57 | 58 | 41 | 45 | 41 | 58 |
| | 여성 | 18 | 21 | 39 | 26 | 28 | 25 | 15 | 26 |
| | 여성비율 | 28.57 | 37.50 | 40.63 | 30.95 | 40.58 | 35.71 | 26.79 | 30.95 |
| 전남 | 남성 | 28 | 37 | 47 | 97 | 112 | 75 | 70 | 70 |
| | 여성 | 10 | 17 | 29 | 42 | 62 | 39 | 40 | 48 |
| | 여성비율 | 26.32 | 31.48 | 38.16 | 30.22 | 35.63 | 34.21 | 36.36 | 40.68 |
| 경북 | 남성 | 81 | 96 | 73 | 104 | 97 | 90 | 86 | 108 |
| | 여성 | 41 | 31 | 27 | 42 | 54 | 36 | 41 | 44 |
| | 여성비율 | 33.61 | 24.41 | 27.00 | 28.77 | 35.76 | 28.57 | 32.28 | 28.95 |
| 경남 | 남성 | 83 | 69 | 91 | 98 | 87 | 101 | 90 | 72 |
| | 여성 | 31 | 33 | 42 | 40 | 22 | 51 | 40 | 38 |
| | 여성비율 | 27.19 | 32.35 | 31.58 | 28.99 | 20.18 | 33.55 | 30.77 | 34.55 |
| 제주 | 남성 | 15 | 15 | 14 | 45 | 23 | 15 | 4 | 17 |
| | 여성 | 4 | 8 | 9 | 16 | 8 | 14 | 11 | 5 |
| | 여성비율 | 21.05 | 34.78 | 39.13 | 26.23 | 25.81 | 48.28 | 73.33 | 22.73 |

출처: 공공데이터청구자료(2018.08.13.) 소방청(2010-2017)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재난안전교육 참여인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내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제공한 원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다. 기관의 시스템 상 현실적으로 취합 가능한 2015년부터 통계가 제공되었다.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이 아닌 재난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직원

의 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전국의 재난안전교육 참여 인원 중 여성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2015년 12.74%, 2016년 17.99%, 2017년 18.64%로 여성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천 28.90%, 서울 26.79%, 부산 26.32%, 대전 22.94% 순으로 여성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울산 11.03%, 경북 11.59%, 강원 13.80%, 제주 14.55% 순으로 여성참여 비율이 낮았다.

【 표 III-48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단위 : 명, %)

| 구 분 | 2015 | | | 2016 | | | 2017 | | |
|-----|-------|-----|-------|-------|-----|-------|-------|-------|-------|
|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 계 | 1,965 | 287 | 12.74 | 3,680 | 807 | 17.99 | 5,062 | 1,160 | 18.64 |
| 서울 | 84 | 16 | 16.00 | 83 | 30 | 26.55 | 205 | 75 | 26.79 |
| 부산 | 68 | 8 | 10.53 | 194 | 55 | 22.09 | 266 | 95 | 26.32 |
| 대구 | 78 | 7 | 8.24 | 93 | 29 | 23.77 | 210 | 40 | 16.00 |
| 인천 | 86 | 19 | 18.10 | 148 | 35 | 19.13 | 246 | 100 | 28.90 |
| 광주 | 21 | 7 | 25.00 | 27 | 8 | 22.86 | 54 | 12 | 18.18 |
| 대전 | 70 | 16 | 18.60 | 130 | 25 | 16.13 | 178 | 53 | 22.94 |
| 울산 | 33 | 8 | 19.51 | 144 | 73 | 33.64 | 129 | 16 | 11.03 |
| 경기 | 301 | 45 | 13.01 | 404 | 83 | 17.04 | 851 | 208 | 19.64 |
| 강원 | 127 | 17 | 11.81 | 269 | 58 | 17.74 | 537 | 86 | 13.80 |
| 충북 | 174 | 24 | 12.12 | 302 | 54 | 15.17 | 366 | 79 | 17.75 |
| 충남 | 182 | 26 | 14.29 | 314 | 42 | 13.38 | 509 | 92 | 18.07 |
| 전북 | 126 | 15 | 10.64 | 187 | 28 | 13.02 | 262 | 48 | 15.48 |
| 전남 | 120 | 11 | 8.40 | 276 | 29 | 9.51 | 339 | 71 | 17.32 |
| 경북 | 159 | 27 | 14.52 | 423 | 70 | 14.20 | 412 | 54 | 11.59 |
| 경남 | 192 | 24 | 11.11 | 542 | 130 | 19.35 | 415 | 101 | 19.57 |
| 제주 | 54 | 1 | 1.82 | 41 | 8 | 16.33 | 47 | 8 | 14.55 |

출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요청자료(2018.07.23.) 내부자료(2015-2017)

주: 지역구분이 가능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참여자에 국한하여 통계를 취합함.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는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소비자 위해 데이터’ 일부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였

다. 주택에서 발생한 부상자 신고건수로서, 근육, 뼈 및 인대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신체 내부 장기손상, 전신손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화상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망자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의 여성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15년 13,255명, 2016년 11,952명, 2017년 14,48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에 여성인명 피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부상자 중 여성 비율은 2015년 46.84%, 2016년 48.42%, 2017년 43.70%로 대체로 일정한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남이 타 시도보다 2015년 54.55%, 2016년 57.89%, 2017년 59.68%로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광주 2015년 41.30%, 2016년 43.70%, 2017년 41.5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자료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함으로써 수집되는 자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발생건수가 높은 것이 신고율이 높은 이유로도 볼 수 있다.

【 표 III-49 】 전국 시도별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

(단위 : 명, %)

| 구 분 | 2015 | | | 2016 | | | 2017 | | |
|-----|--------|--------|-------|--------|--------|-------|--------|--------|-------|
|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 계 | 15,044 | 13,255 | 46.84 | 12,732 | 11,952 | 48.42 | 18,657 | 14,480 | 43.70 |
| 서울 | 3,537 | 3,246 | 47.85 | 3,451 | 3,440 | 49.92 | 4,125 | 4,199 | 50.44 |
| 부산 | 398 | 399 | 50.06 | 282 | 268 | 48.73 | 809 | 787 | 49.31 |
| 대구 | 1,376 | 1,253 | 47.66 | 669 | 706 | 51.35 | 897 | 1,013 | 53.04 |
| 인천 | 2,025 | 1,614 | 44.35 | 1,688 | 1,476 | 46.65 | 2,003 | 1,714 | 46.11 |
| 광주 | 843 | 593 | 41.30 | 456 | 354 | 43.70 | 729 | 519 | 41.59 |
| 대전 | 818 | 776 | 48.68 | 588 | 579 | 49.61 | 1,152 | 1,167 | 50.32 |
| 울산 | 815 | 693 | 45.95 | 707 | 674 | 48.81 | 807 | 749 | 48.14 |
| 경기 | 1,940 | 1,930 | 49.87 | 1,460 | 1,287 | 46.85 | 972 | 895 | 47.94 |
| 강원 | 401 | 315 | 43.99 | 213 | 177 | 45.38 | 620 | 415 | 40.10 |
| 충북 | 700 | 567 | 44.75 | 612 | 494 | 44.67 | 589 | 576 | 49.44 |
| 충남 | 670 | 525 | 43.93 | 951 | 974 | 50.60 | 4,125 | 576 | 12.25 |
| 전북 | 56 | 39 | 41.05 | 332 | 371 | 52.77 | 185 | 279 | 60.13 |
| 전남 | 315 | 270 | 46.15 | 280 | 209 | 42.74 | 374 | 338 | 47.47 |
| 경북 | 486 | 408 | 45.64 | 393 | 322 | 45.03 | 405 | 363 | 47.27 |

| 구 분 | 2015 | | | 2016 | | | 2017 | | |
|-----|------|-----|-------|------|-----|-------|------|-----|-------|
|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남성 | 여성 | 여성비율 |
| 경남 | 30 | 36 | 54.55 | 16 | 22 | 57.89 | 25 | 37 | 59.68 |
| 제주 | 634 | 591 | 48.24 | 634 | 599 | 48.58 | 840 | 853 | 50.38 |

출처: 한국소비자원 요청자료(2018.07.19.) 내부자료(2015-2017)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 지역별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조직된 시기에 차이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17.14%이었으며, 울산 10.71%, 서울 8.57%, 대구 5.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주가 0.00%로 가장 낮았고, 부산 2.22%, 대전 3.70%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광주는 2010년 6.06%, 2011년 3.03%로 감소하여 2014년까지 유지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 위원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여성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참여 비율이 낮아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표 III-50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남성 | - | - | - | - | - | 275 | 270 |
| | 여성 | - | - | - | - | - | 11 | 18 |
| | 여성비율 | - | - | - | - | - | 3.84 | 6.3 |
| 서울 | 남성 | - | - | - | - | - | 35 | 32 |
| | 여성 | - | - | - | - | - | 2 | 3 |
| | 여성비율 | - | - | - | - | - | 5.40 | 8.57 |
| 부산 | 남성 | 37 | 37 | 37 | 37 | 44 | 44 | 44 |
| | 여성 | 1 | 1 | 1 | 1 | 1 | 1 | 1 |
| | 여성비율 | 2.63 | 2.63 | 2.63 | 2.63 | 2.22 | 2.22 | 2.22 |
| 대구 | 남성 | 23 | 23 | 23 | 23 | 22 | 39 | 37 |
| | 여성 | 0 | 0 | 0 | 0 | 1 | 1 | 3 |
| | 여성비율 | 0 | 0 | 0 | 0 | 4.34 | 2.50 | 7.50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인천 | 남성 | - | - | - | - | - | 30 | 29 |
| | 여성 | - | - | - | - | - | 2 | 6 |
| | 여성비율 | - | - | - | - | - | 6.25 | 17.14 |
| 광주 | 남성 | 31 | 32 | 32 | 32 | 32 | 24 | 24 |
| | 여성 | 2 | 1 | 1 | 1 | 1 | 0 | 0 |
| | 여성비율 | 6.06 | 3.03 | 3.03 | 3.03 | 3.03 | 0 | 0 |
| 대전 | 남성 | - | - | - | - | - | 57 | 79 |
| | 여성 | - | - | - | - | - | 1 | 1 |
| | 여성비율 | - | - | - | - | - | 1.72 | 1.25 |
| 울산 | 남성 | - | - | - | - | - | 26 | 26 |
| | 여성 | - | - | - | - | - | 2 | 2 |
| | 여성비율 | - | - | - | - | - | 7.14 | 7.14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지방자치단체(2010-2017)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참고로 함께 취합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다. 2017년 기준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의 여성 비율은 대전이 44.44%로 가장 높고, 인천 37.03%, 울산 35.0%, 광주 29.41%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 대구 10.00%, 서울 10.34%, 부산 11.76% 순으로 낮은 여성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표 III-51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5 | 2016 | 2017 | |
|-----|------|-------|-------|-------|
| 서울 | 남성 | - | 26 | 26 |
| | 여성 | - | 3 | 3 |
| | 여성비율 | - | 10.34 | 10.34 |
| 부산 | 남성 | 30 | 30 | 30 |
| | 여성 | 4 | 4 | 4 |
| | 여성비율 | 11.76 | 11.76 | 11.76 |
| 대구 | 남성 | 18 | 18 | 18 |
| | 여성 | 2 | 2 | 2 |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
| | 여성비율 | 10.00 | 10.00 | 10.00 |
| 인천 | 남성 | 22 | 22 | 17 |
| | 여성 | 3 | 3 | 10 |
| | 여성비율 | 12.00 | 12.00 | 37.03 |
| 광주 | 남성 | - | 12 | 12 |
| | 여성 | - | 5 | 5 |
| | 여성비율 | - | 29.41 | 29.41 |
| 대전 | 남성 | 16 | 16 | 10 |
| | 여성 | 1 | 1 | 8 |
| | 여성비율 | 5.88 | 5.88 | 44.44 |
| 울산 | 남성 | 16 | 16 | 13 |
| | 여성 | 4 | 4 | 7 |
| | 여성비율 | 20.00 | 20.00 | 35.00 |

출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8.08.16.) 지방자치단체(2010-2017)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내고장알리미(laiis.go.kr)를 기초로 산출된 자료이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다음 표와 같이 2010년 1,431.57명, 2011년 1,421.81명, 2015년 1,224.09명, 2016년 1,186.16명으로 담당주민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여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강원지역이 599명으로 담당 주민 수가 가장 적었으며, 전남 791.32명, 경북 810.44명, 제주 911.36명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가 1,721.28명으로 담당 주민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56.10명, 울산 1,284.01명, 광주 1,222.31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경기는 2010년 2,116.85명에서 2016년 1,712.28명으로, 서울은 2010년 1,898.48명에서 2016년 1,456.10명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경기, 서울은 타시도보다 높은 담당주민 수가 나타났다. 반면 강원은 2010년 701.11명에서 2016년 599.00명으로 감소하며 타시도에 비해 담당 인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당주민수와 더불어 면적 등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담당 주민수로서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표 III-52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국 | 1,431.57 | 1,421.81 | 1,387.48 | 1,341.03 | 1,285.67 | 1,224.09 | 1,186.16 |
| 서울 | 1,898.48 | 1,842.47 | 1,739.22 | 1,562.00 | 1,513.82 | 1,469.53 | 1,456.10 |
| 부산 | 1,400.28 | 1,393.63 | 1,381.68 | 1,356.78 | 1,356.75 | 1,263.95 | 1,214.35 |
| 대구 | 1,336.71 | 1,279.22 | 1,366.96 | 1,259.61 | 1,256.05 | 1,144.88 | 1,143.38 |
| 인천 | 1,401.57 | 1,509.31 | 1,385.28 | 1,277.07 | 1,278.12 | 1,233.48 | 1,198.32 |
| 광주 | 1,466.37 | 1,341.40 | 1,482.56 | 1,471.44 | 1,310.73 | 1,262.61 | 1,222.31 |
| 대전 | 1,330.68 | 1,334.16 | 1,337.35 | 1,330.57 | 1,314.86 | 1,265.65 | 1,219.30 |
| 울산 | 1,568.66 | 1,459.50 | 1,511.54 | 1,546.10 | 1,367.38 | 1,311.21 | 1,284.01 |
| 경기 | 2,116.85 | 2,089.52 | 2,040.03 | 1,981.00 | 1,923.10 | 1,784.36 | 1,721.28 |
| 강원 | 701.11 | 696.80 | 729.21 | 729.89 | 672.37 | 627.58 | 599.00 |
| 충북 | 1,123.66 | 1,196.71 | 1,133.69 | 1,062.66 | 1,017.35 | 981.99 | 986.14 |
| 충남 | 1,019.91 | 1,073.18 | 1,064.56 | 1,009.20 | 955.38 | 923.17 | 862.75 |
| 전북 | 948.23 | 1,105.62 | 950.93 | 1,033.08 | 950.03 | 942.39 | 939.91 |
| 전남 | 931.76 | 939.32 | 924.31 | 932.15 | 895.99 | 843.57 | 791.32 |
| 경북 | 1,056.11 | 1,056.02 | 983.72 | 979.48 | 882.90 | 852.90 | 810.44 |
| 경남 | 1,440.06 | 1,247.18 | 1,245.99 | 1,226.57 | 1,186.77 | 1,124.19 | 1,065.32 |
| 제주 | 961.71 | 918.91 | 902.18 | 916.37 | 894.47 | 889.45 | 911.36 |

출처: 내고장알리미(2010-2016)

주: 세종시 수치는 충남 수치에 포함.

여성안전대책 예산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자료 중 본 연구 지표와 관련된 여성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합산한 후 해당 지역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여성 안전대책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서울시가 238.5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108.61천원, 광주 106.01천원 순으로 높았으며, 인천이 62.62천원, 대구 84.90천원, 대전 88.71천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타 광역시에 비해 여성 안전대책 예산비율이 높은 편으로 2010년 104.42천원에서 2017년 238.59천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천은 2010년 37.01천원에서 비해 2017년 62.62천원으로 예산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 예산 자료는 여성 특정 예산이므로 일반 도시안전 예산 중 여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 표 III-53 】 1인당 여성안전대책예산 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서울 | 104.42 | 103.14 | 103.80 | 122.33 | 120.22 | 183.07 | 195.22 | 238.59 |
| 부산 | 60.76 | 61.74 | 55.33 | 67.73 | 71.78 | 80.65 | 85.07 | 96.00 |
| 대구 | 46.21 | 50.21 | 50.86 | 55.94 | 60.87 | 64.50 | 66.06 | 84.90 |
| 인천 | 37.01 | 47.91 | 43.33 | 53.56 | 62.50 | 60.92 | 55.60 | 62.62 |
| 광주 | 57.35 | 63.66 | 74.39 | 84.63 | 83.47 | 91.27 | 99.69 | 106.01 |
| 대전 | 61.06 | 64.41 | 63.36 | 65.03 | 63.59 | 74.49 | 78.03 | 88.71 |
| 울산 | 71.22 | 74.49 | 69.66 | 72.38 | 78.14 | 80.71 | 89.37 | 108.61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자료 중 본 연구 지표와 관련된 여성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합산한 후 산출하였음.

3. 소결

앞서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의 분야별 적용 결과와 지역별 측정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각각 정리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로서 서울시 상황을 측정하였으며 분야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중 주요한 내용을 현황 및 인식, 참여, 행정역량 등 지표의 중분류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¹⁶⁾

우선 젠더안전과 관련하여 피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폭력에 대한 신고건수와 상담건수가 실제 발생건수와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실제 성폭력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이 높아진 이유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김지선, 2013).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매매는 그 시기 발생한 영향력 있는 사건이나 경찰관의 입건 태도에 좌우되는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수 증가를 해석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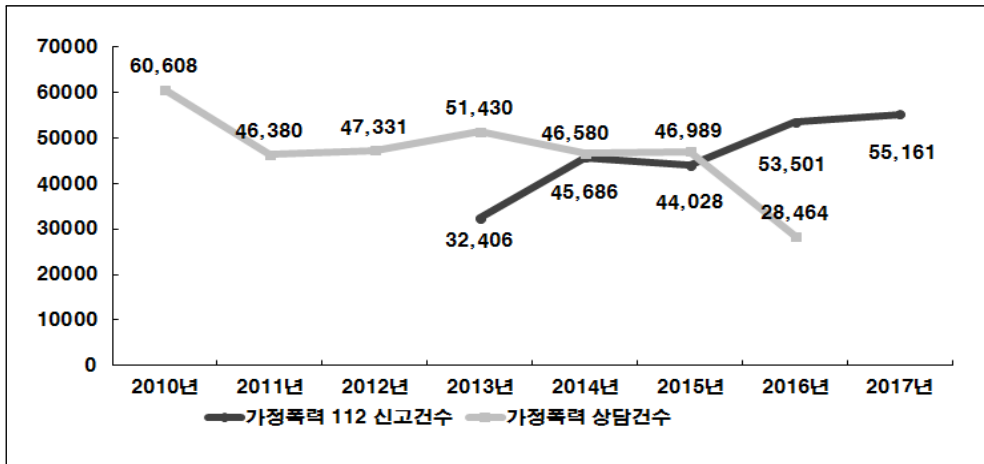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같이 오래전부터 현황을 파악해오던 폭력유형

16) 본 연구 과정에서 젠더안전지표 중 선정된 대표지표 및 이슈지표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과 더불어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최근 들어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유형들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물론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은 최근 관심의 급증으로 국가가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거나 강화하여 오히려 신고 및 발생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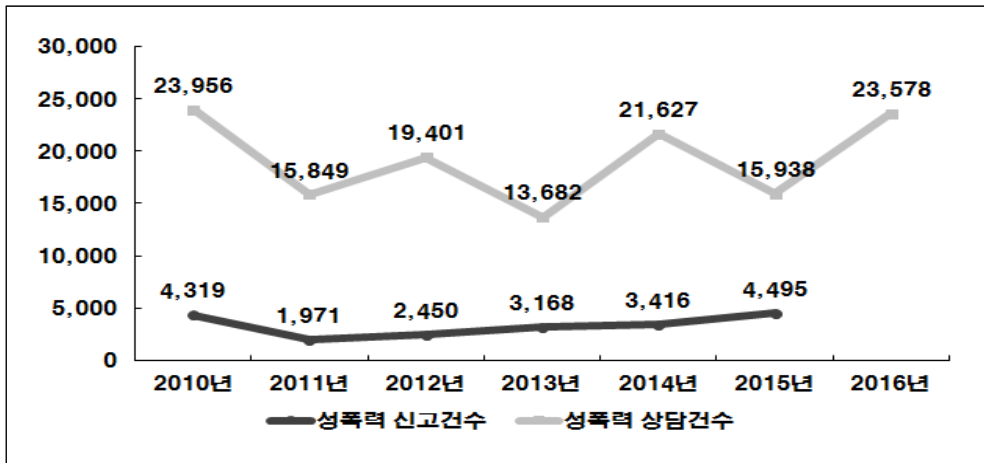
■ 그림 Ⅲ-1 ■ 서울시 가정폭력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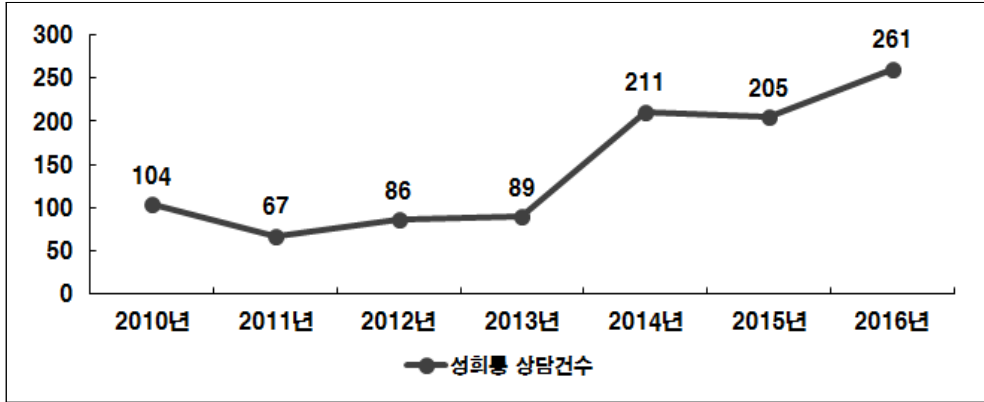
■ 그림 Ⅲ-2 ■ 서울시 성폭력 112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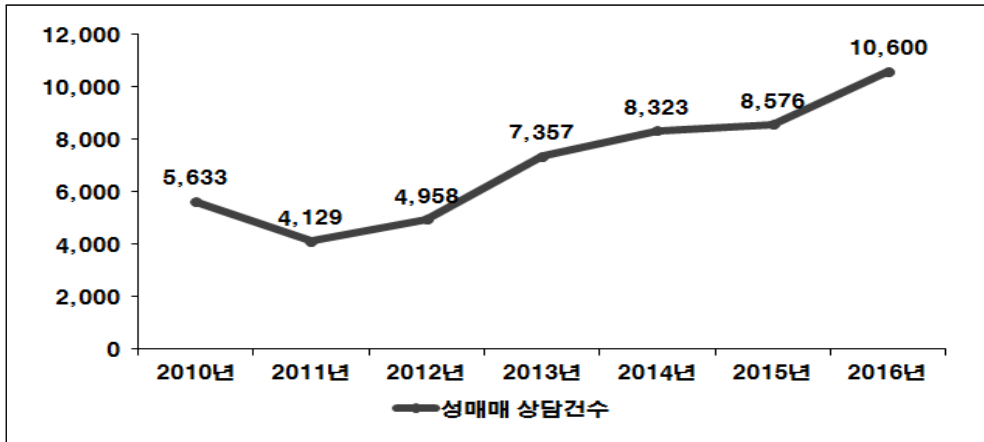
Ⅲ-3 서울시 성희롱 상담건수(여성)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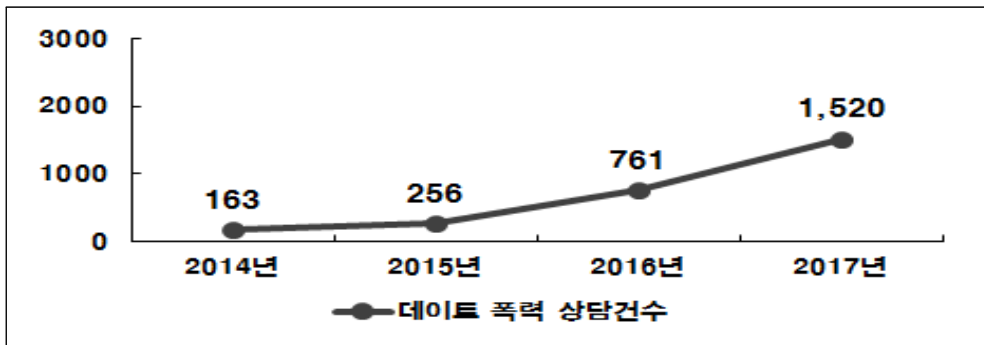
Ⅲ-4 서울시 성매매 상담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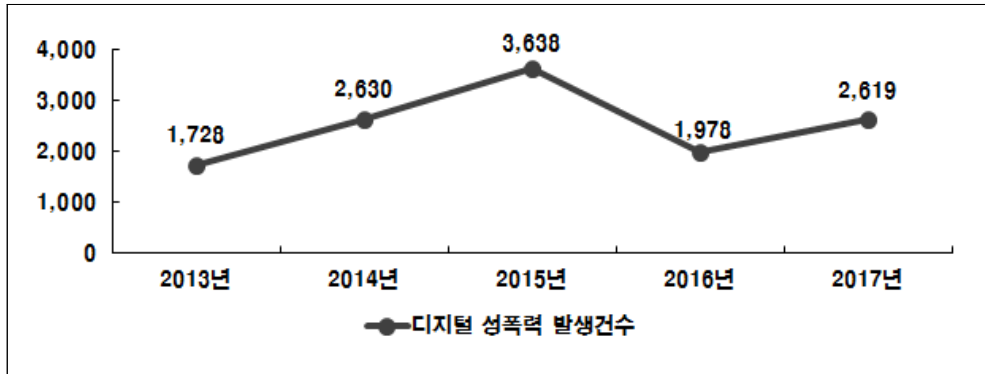
Ⅲ-5 서울시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단위 : 건)



■ 그림 Ⅲ-6 ■ 서울시 디지털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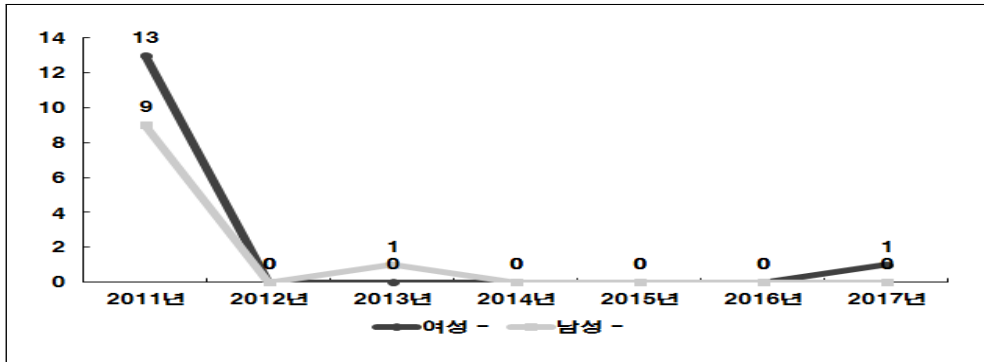


또한, 서울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해가 대부분이나, 2011년도와 같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한 여성인명피해는,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주거 안에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입은 여성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명피해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거나 낮은가 하는 점만으로 여성의 안전 수준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안전에 대비하거나 대피 및 구조 과정, 사후 지원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여성이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피 및 구조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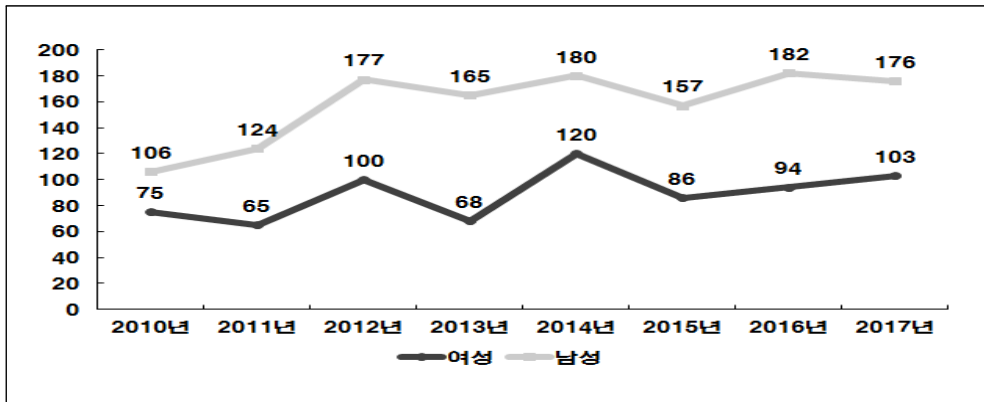
【그림 Ⅲ-7】 서울시 자연재해 인명피해

(단위 : 명)



【그림 Ⅲ-8】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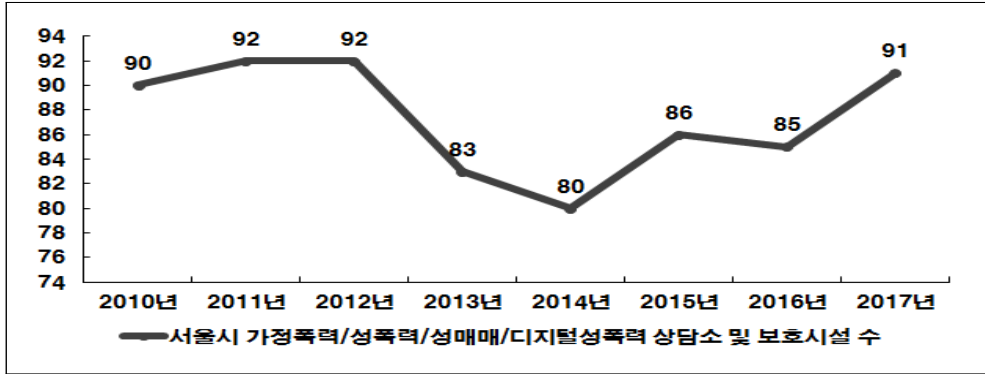
(단위 : 명)



이와 같은 젠더안전과 관련한 피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수는 증감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성폭력 지원기관은 올해 1개소가 생겨났다. 상담원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앞서 폭력 발생 증가 추세를 볼 때 상담소와 보호시설 수의 제고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예방의 차원에서 긴급경보시스템 구축은 지역별 구분이 시작된 2016년에 비해 2017년은 지구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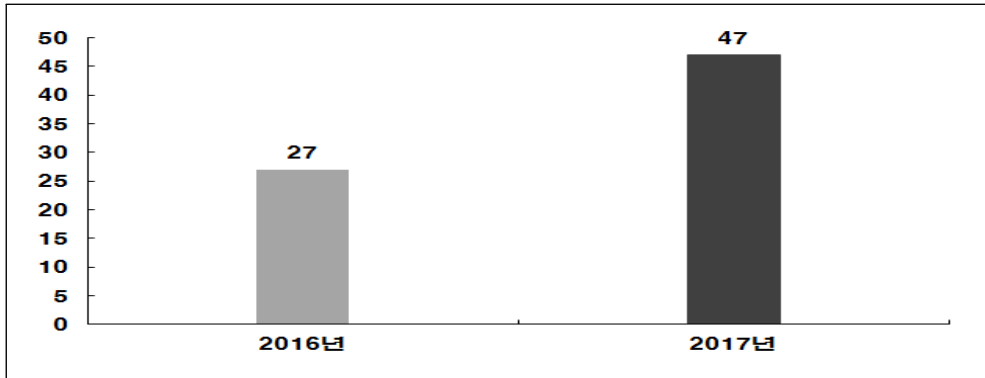
【그림 Ⅲ-9】 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단위 : 개소)



【그림 Ⅲ-10】 서울시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단위 :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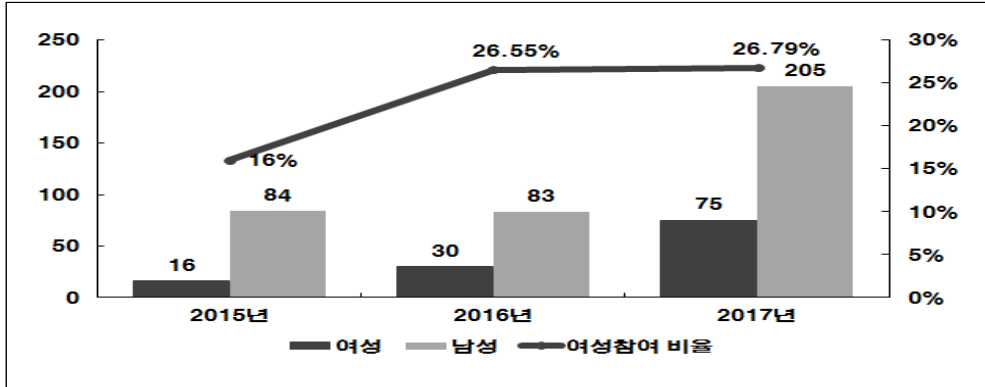


다음으로 젠더안전과 관련한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젠더폭력 안전과 관련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중 교육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이 중요하겠으며, 올해부터 성별구분 수집이 되고 있어 내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중 여성참여 인원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대상의 교육이 아닌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대상을 집계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안전사고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중 여성참여자는 2012년 이후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참여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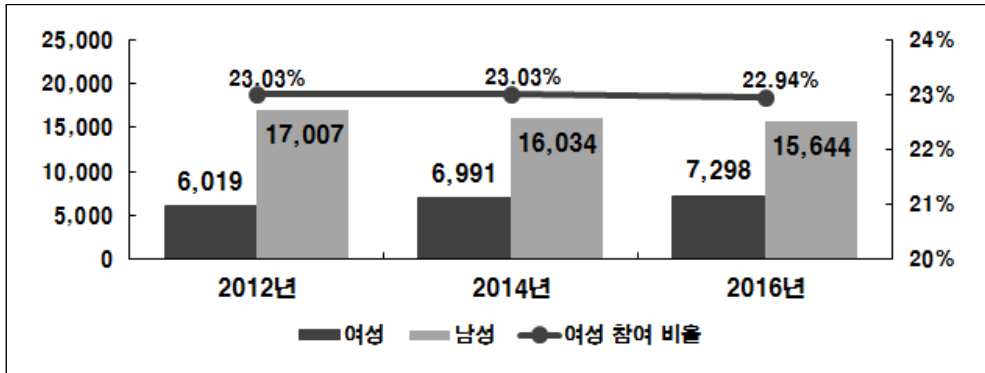
■ 그림 Ⅲ-11 ■ 서울시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단위 : 명, %)



■ 그림 Ⅲ-12 ■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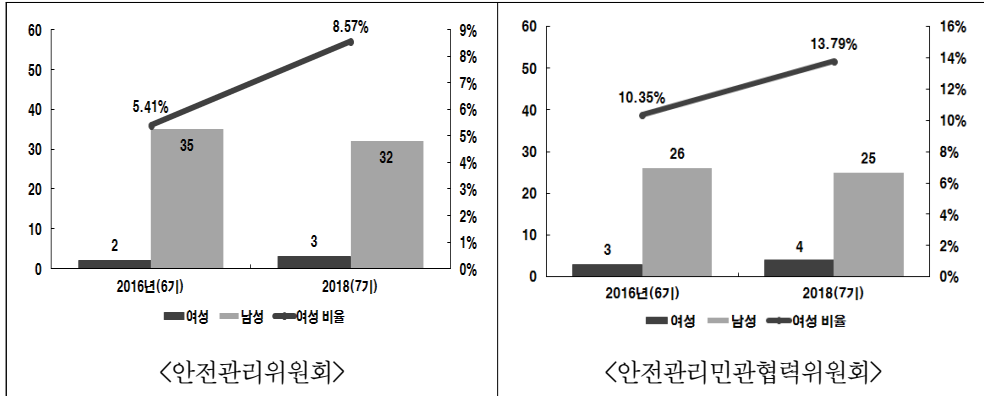
(단위 : 명, %)



한편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회의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회의체 모두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시작년도인 2016년에 비해 2018년 다소 증가했으나, 안전관리위원회는 10% 미만이며 안전관리위원회의 또한 14% 미만인 실정이다. 현재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Ⅲ-13】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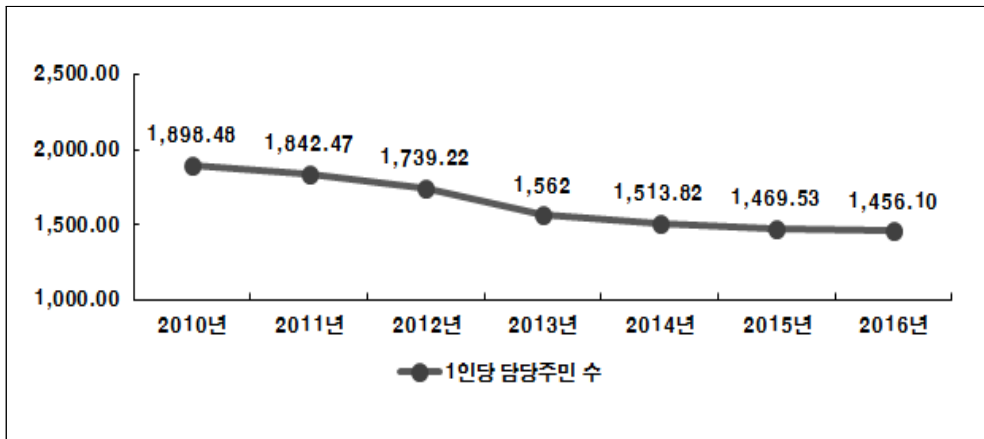
(단위 : 명, %)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의 기반 강화에 관한 행정역량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해마다 감소하였다. 그만큼 인프라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예산은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합산한 수치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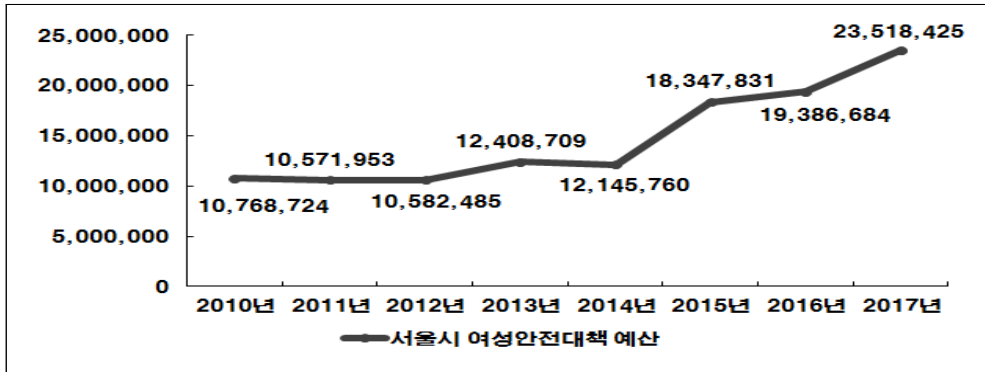
【그림 Ⅲ-14】 서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단위 : 명)



【그림 Ⅲ-15】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

(단위 : 천원)



이처럼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로서 서울시 상황을 측정한 주요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위험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에 비해 특히 젠더폭력분야와 관련하여 위험 발생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젠더폭력을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수치상으로는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안전을 위한 교육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거나 혹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서의 성인지 관점 부여를 위한 여성 대표성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안전한 환경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와 예산의 투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둘째,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의 지역별로 젠더안전 상황을 측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중 주요한 내용을 현황 및 인식, 참여, 행정역량 등 지표의 중분류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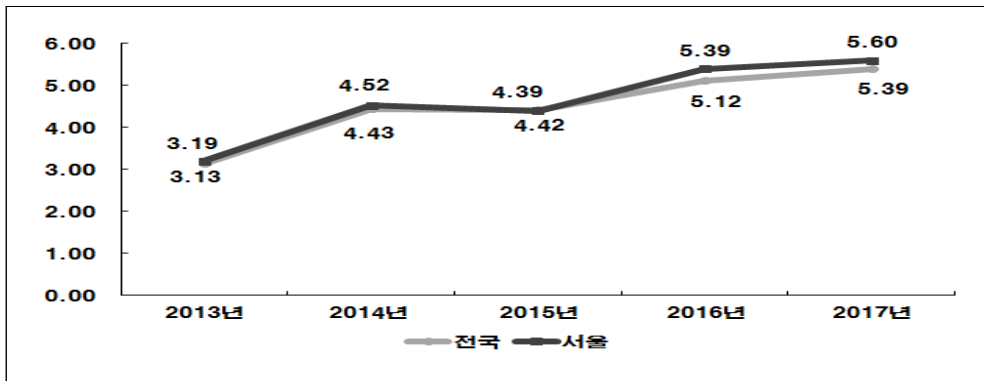
우선 젠더안전과 관련하여 피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가정폭력 신고건수, 검거건수는 검찰의 입건 태도 등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전국¹⁷⁾ 수치 보다 계속 높은 상황이며, 서울의 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이후로 전국 수치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나 좋지 않

17) 이 절에서의 전국 수치는 서울을 포함하여 산출된 수치이다.

은 상황이며, 2013년 이후로 성폭력 기소율도 전국 수치보다 낮은 실정이다. 다만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젊은 연령대의 여성인구가 많은 편인 인구구조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인구당 건수로만 상황을 비교하여 제시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의 기소자수는 전국 수치나 서울 모두 201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서울지역의 디지털성폭력사범 기소율은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국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Ⅲ-16 ■ 서울시 및 전국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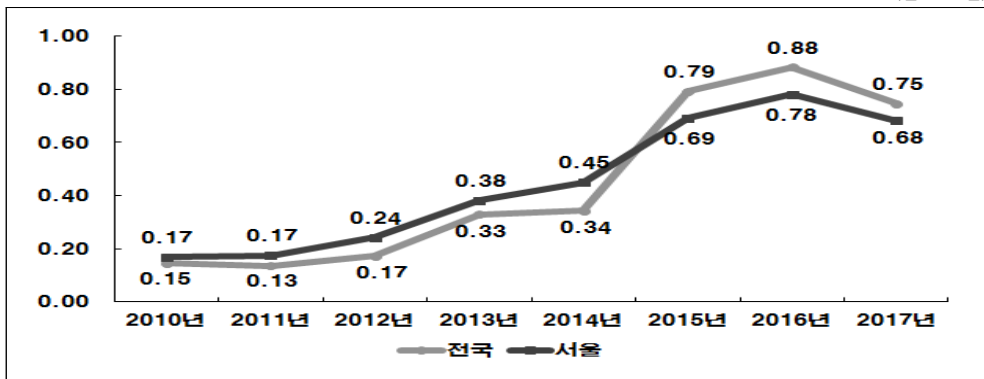
(단위 : 건)



주: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그림 Ⅲ-17 ■ 서울시 및 전국 가정폭력 검거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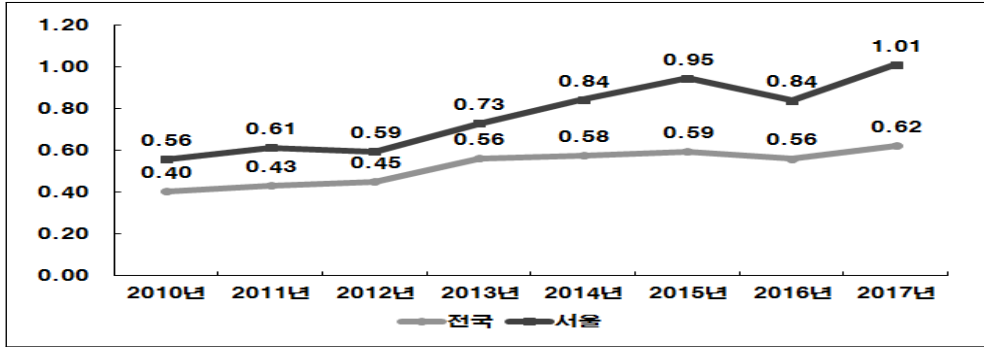
(단위 : 건)



주: 인구 1,000명당 검거건수

그림 Ⅲ-18 서울시 및 전국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건)



주: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

그림 Ⅲ-19 서울시 및 전국 성폭력 기소율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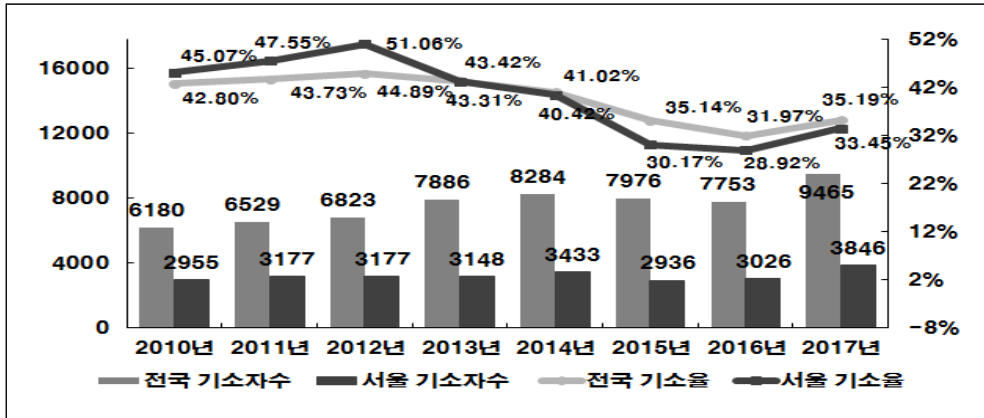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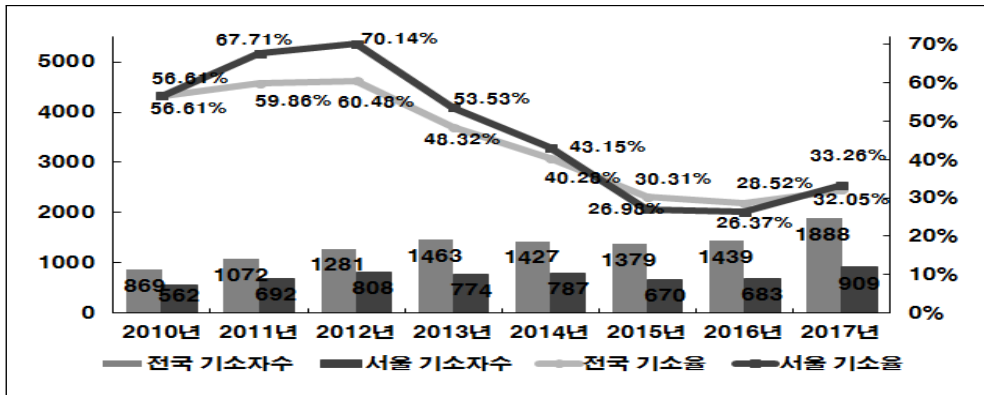


그림 Ⅲ-20 서울시 및 전국 디지털성폭력 기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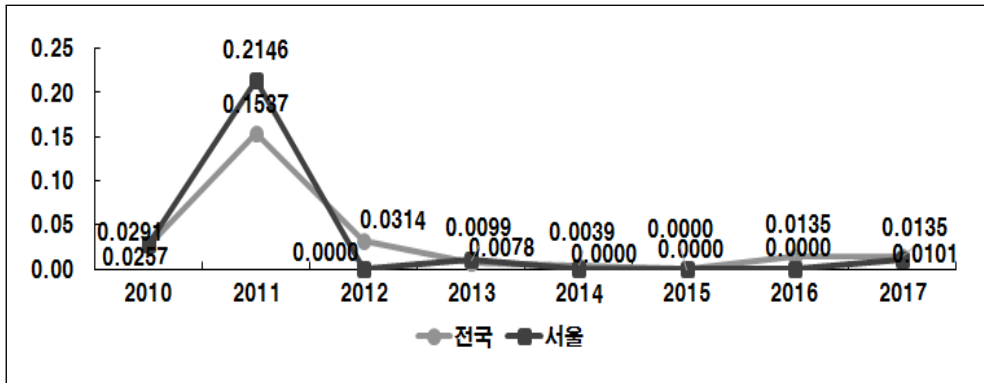
(단위 : 명, %)



또한, 전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여성 인명피해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해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그 외에는 적은 수이다. 여성인명피해 비율은 대부분 남성보다 높지 않았으나 2011년 피해가 컸던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여성인원이 더 많았다. 서울에서의 인구 1,000명당 화재로 인한 여성인명피해는 전국 수치보다는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에서 인구 1,000명당 주택 내 생활안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여성은 전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생활안전 위해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목적으로 한 신고로 수집되는 자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그림 Ⅲ-21 ■ 서울시 및 전국 자연재해 인명피해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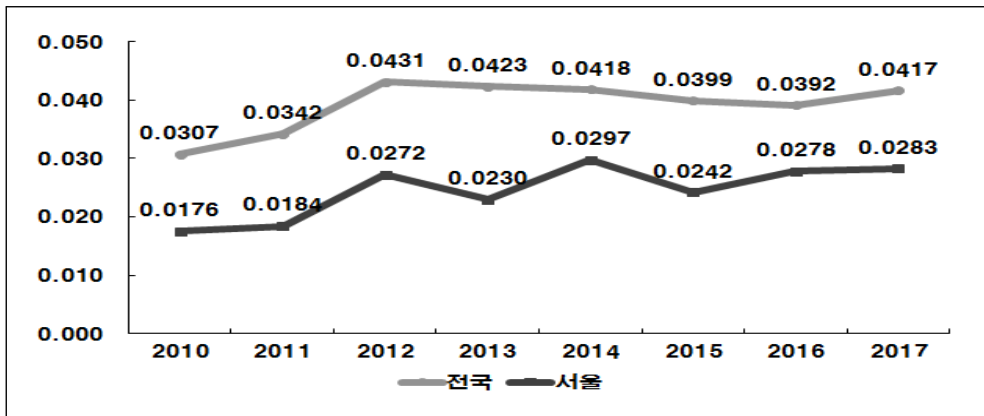
(단위 : 건)



주: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

■ 그림 Ⅲ-22 ■ 서울시 및 전국 화재 인명피해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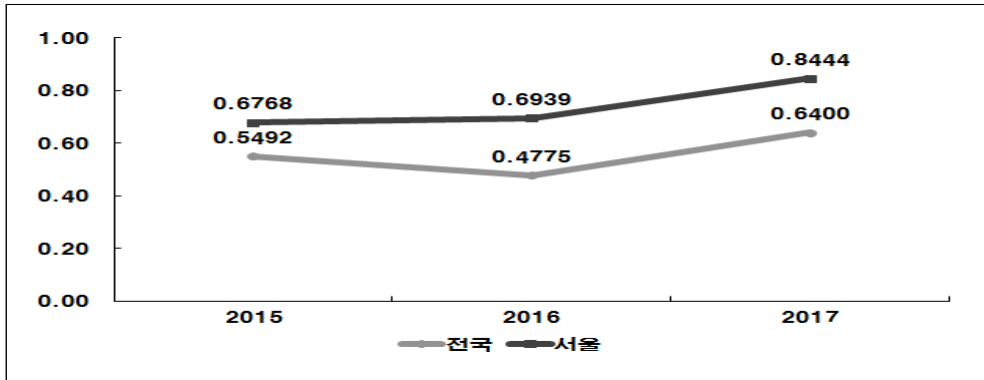
(단위 : 건)



주: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

【그림 Ⅲ-23】 서울시 및 전국 생활안전 사고 인명피해 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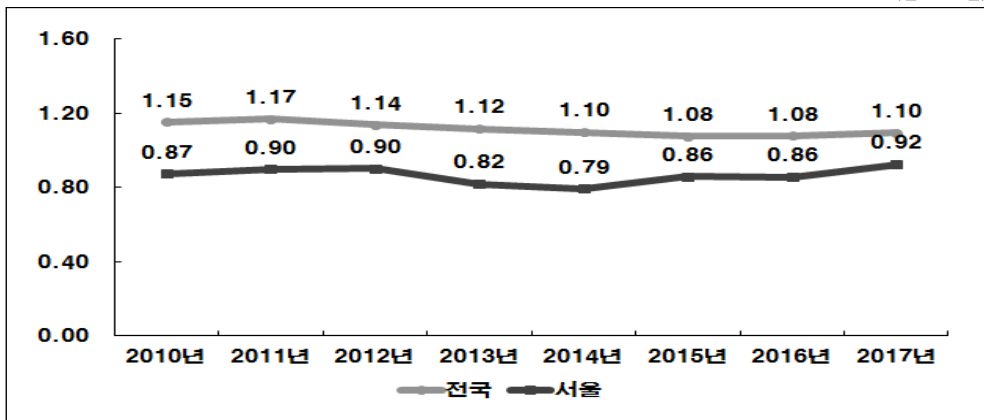


주: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

이와 같은 위험 발생 현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 상황이 중요한데, 젠더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지역별 개소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서울에서의 인구 100,000명당 개소수는 전국 수치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인구수와 더불어 지역의 면적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Ⅲ-24】 서울시 및 전국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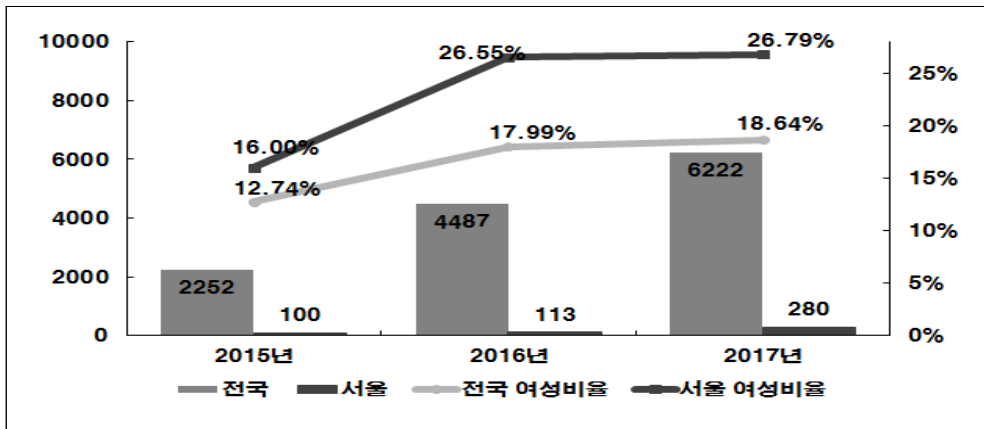


주: 인구 100,000명당 개소수

한편 안전과 관련한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재난안전교육 참여자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재난안전교육 참여자는 전국의 여성 비율 수치에 비해 서울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30% 미만의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성인지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국 수치와 비교해 볼 때는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참여 비율이 낮아 여성의 참여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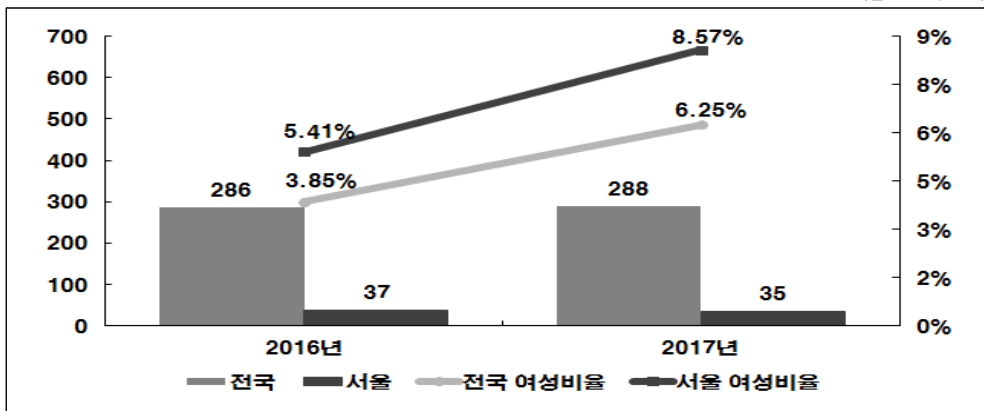
■ 그림 Ⅲ-25 ■ 서울시 및 전국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단위 : 명, %)



■ 그림 Ⅲ-26 ■ 서울시 및 전국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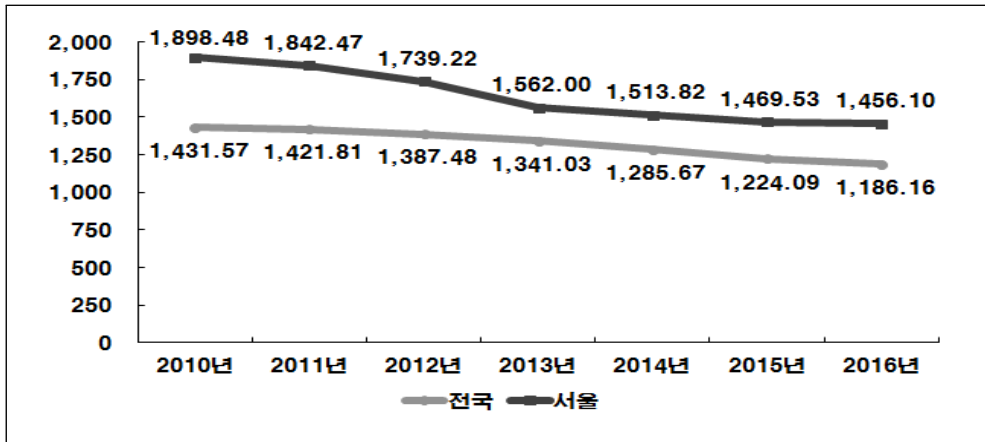
(단위 : 명, %)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의 기반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역량의 수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국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인구수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역 면적,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6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합산한 수치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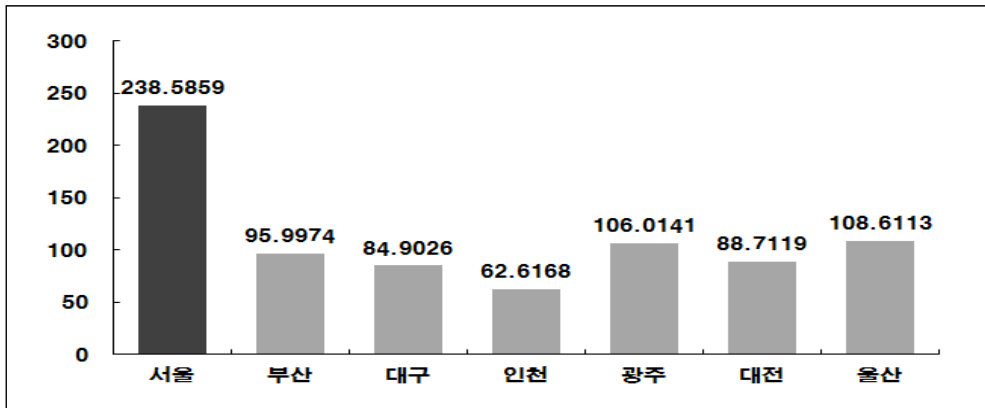
【그림 III-27】 서울시 및 전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단위 : 지구)



【그림 III-28】 서울시 및 6대 도시 여성안전대책 예산

(단위 : 천원)



이처럼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전국(서울시 수치 포함) 또는 다른 6대 도시 상황을 측정할 주요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협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신고 및 발생건수의 수치상으로는 전국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성폭력 기소율은 전국 수치에 비해 낮다. 대도시나 인구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기소자수의 증가에 따른 기소율 저하인지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겠으나 성폭력의 사법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젠더폭력 안전 외에는 특히 주택 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성이 전국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하여 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산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폭력을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수치상으로는 전국 수치보다 낮은 실정이다. 반면 재난안전을 위한 교육 참여자나 안전관리위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 수치에 비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여성안전 관련 예산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수치에 비해서도 높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지표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표 중 통계자료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석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IV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산출 및 분석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선정
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가중치 산출
3. 지역 비교용 지표 가중치 산출
4.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산출 및 분석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선정

1) 조사 개요

1차, 2차 연구에서 개발된 젠더안전지표를 수정하여 이 연구에서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4개 분야, 총 6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표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을 제고하고 정교화 하고자 전체 지표 중 일부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일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1차 전문가 조사에 우선하여 본 연구의 3명의 자문위원에게 이메일로 자문을 받았다.¹⁸⁾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서울시 여성안전수준을 적합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황지표, 참여지표, 인식지표, 행정지표에 대한 정의, 의의, 한계 및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자문위원의 전반적인 동의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함께 제시한 지표 자료원의 생산 여부에 따른 사용 가능성을 참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부록 2] 1차 전문가 조사지 참고).

둘째, 일부 지표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다.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로 구성하는 안과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후자의 안을 선택하였다. 지표생산의 불안정성에도 이슈지표는 현재의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할 수

18) 본 연구의 3명의 자문위원에게 서면자문을 요청하여 7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있으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한 지표를 그때마다 대표지표에 추가하여 체계를 수정하는 일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지수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일부 지표 선정 방식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가조사의 중요도 점수에 기초하여 선정하되, 전체 지표의 체계상 비율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대표지표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요도 점수에 기초하되 연구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요했다. 따라서 전문가조사 중요도에 기초하되, 지표 체계상 배치 비율을 일부 고려하였다. 다만 대표지표 등의 최종 구성(안)에 관하여 본 연구의 3명의 자문위원에게 이메일로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대표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다. 직접점수응답법과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전공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판단 확신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 등에서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대표지표 선정 시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실시하였다. 젠더안전지표의 영역이 폭력,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생활안전, 안전환경 등 성격이 다소 이질적이며 전문가의 연구 경험 등에 따라 분야별 확신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퍼지이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표지표 등의 선정을 위한 1차 전문가 조사를 2018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 수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지난 2차 연구에서 젠더안전지표 선정 시 전문가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섭외하여 그 중 참여의사를 밝힌 17명이다. 젠더관점에서 안전 분야를 연구했거나 성인지 지표 또는 성평등지수 등의 작업에 참여했거나 지역의 안전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했던 전문가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용성을 가진 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었다. 전문가 조사 참여자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1】 1차, 2차 전문가 조사 참여자 개요

| 구분 | 주요분야 | 지역 |
|----|----------------------------|-----|
| A | 국책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지표 등 연구 | 서울 |
| B | 국책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지표 등 연구 | 서울 |
| C | 국책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지표 등 연구 | 서울 |
| D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성인지통계 등 연구 | 전라도 |
| E | 전)지자체연구원 성인지지표등 연구 | 서울 |
| F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성평등지수 등 연구 | 대구 |
| G | 지자체연구원 여성·아동안전 등 연구 | 인천 |
| H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울산 |
| I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경기도 |
| J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충청도 |
| K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제주 |
| L | 지자체연구원 재난안전정책 등 연구 | 경기도 |
| M | 여성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여성학전공, 교수 | 서울 |
| N | 여성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 |
| O* | 여성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 서울 |
| P | 재난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 서울 |
| Q | 재난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 서울 |

* 1차 조사 시 응답이 회수되지 않음

조사 항목은 두 가지로서, 젠더안전지표 각각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는 것이다.

【표 IV-2】 전문가 조사지 문항 형식

| 구분 | 중요도 | | | | | 확신도 | | | | |
|----|----------------|----------|----------|----------------|----------------------|----------------|----------|----------|-----------|-----------------|
| | 매우 중요 하다 | 중요 하다 | 보통 이다 | 중요 하지 않다 | 매우 중요 하지 않다 | 매우 확실 하다 | 확실 하다 | 보통 이다 | 불확실 하다 | 매우 불확실 하다 |
| 지표 | ⑤ | ④ | ③ | ② | ① | ⑤ | ④ | ③ | ② | ① |

2) 조사 및 분석 방법

대표지표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방법은 퍼지 이론(fuzzy theory)에 기초한다. 퍼지의 단어의 뜻은 ‘애매한, 불명확한’이다. 퍼지이론은 1965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L.A.Zadeh 교수가 퍼지 집합(fuzzy set)이란 논문 발표로부터 시작하였다. 퍼지이론은, 주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대상이나 애매한 문제에 관해서 의사결정, 문제해명, 제재 등이 필요하면 이 이론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고, 인식, 고찰, 판단하는 지적처리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동선·이교선, 2006).

대표적인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으로 다속성 효용이론(MAUT)나 계층화 분석법(AHP)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자들의 응답에 대한 모호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중요하다’는 응답을 수치로 제시할 경우, 응답자에 따라 실제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응답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이다. 즉,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은 응답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의 적용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조사대상과 지표의 결정이다. 연구조사의 목표에 적합한 n명의 응답자와 k개의 지표를 설정한다. i는 응답자, E는 응답자들의 집합이며, t는 지표이며 C는 지표들의 합이다.

$$E = \{E_i \mid i = 1, 2, \dots, n\}, \quad C = \{C_t \mid t = 1, 2, \dots, k\}$$

각 평가속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언어값 x를 정의하고, 언어값의 집합 T(x)를 정의한다(W). 마찬가지로 자신의 평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묻는 언어값과 언어값의 집합을 정의한다(S). 일례로 다음과 같다.

$$T(\text{중요도}) \equiv W = \{\text{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T(\text{확신도}) \equiv S = \{\text{매우 확실하다, 확실하다, 보통이다, 확실하지 않다,}\}$$

전혀 확실하지 않다}

2단계, 퍼지넘버의 설정과 퍼지신뢰지수 계산이다. 3개 요소로 구성된 퍼지넘버 M 이 (a, b, c)로 주어졌을 때, 멤버십 함수 fM(x)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_M(x) = \frac{x - a}{b - a} ; a \leq x \leq b$$

$$f_M(x) = \frac{x - c}{b - c} ; b \leq x \leq c$$

$$f_M(x) = 0 ; \text{otherwise}$$

이 식에 따라 각 언어값에 대해 퍼지넘버를 다음 식과 같이 대응시킨다.

$$W_i = (a_{it}, b_{it}, c_{it}). \quad S_i = (o_{it}, p_{it}, q_{it})$$

구체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5개를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값을 제시한다고 할 때, 세 원소로 이루어진 퍼지넘버는 0.25 간격으로 이루어진 값을 순차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 표 IV-3 】 언어값들에 대응한 퍼지넘버

| 언어값(Linguistic Values) | | 퍼지넘버 (fuzzy numbers) |
|------------------------|----------|-------------------------|
| W | S |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불확실하다 | (0, 0, 0.25) |
| 중요하지 않다 | 불확실하다 | (0, 0.25, 0.5) |
| 보통이다 | 보통이다 | (0.25, 0.5, 0.75) |
| 중요하다 | 확실하다 | (0.5, 0.75, 1) |
| 매우 중요하다 | 매우 확실하다 | (0.75, 1, 1) |

다음 과정으로 퍼지신뢰지수(Fi)를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다.

$$F_i \cong (Y_i, Q_i, Z_i)$$

$$Y_i = \sum_t (o_{it}, a_{it}) / k$$

$$Q_i = \sum_t (p_{it}, b_{it}) / k$$

$$Z_i = \sum_i (q_{it}, c_{it}) / k$$

3단계, 총합산값과 가중치 도출이다. 우선 퍼지신뢰지수(FI)에 대한 총합산값을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여기에서 α 는 의사결정자의 낙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낙관지수(index of optimism)라고 불리며, 통상적으로 중립인 0.5로 가정된다.

$$F_T^a = \frac{1}{2} [\alpha Z_i + Q_i + (1 - \alpha) Y_i]$$

$$w_i = \text{norm} \{ F_T^a(F_i) \} \quad (\text{단, } w_i \geq 0, \sum_i w_i = 1)$$

4단계, 지표별 가중치 도출이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지표별로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통합한다. n명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가중합산값을 구한다. 여기서는 주어진 평가 대상에 대한 각 개인의 추정량을 의미한다.

$$f(\theta) = \sum_i w_i f_i(\theta)$$

3) 대표지표 선정 결과

(1) 가중치 및 순위

이 연구에서 확정된 2018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총 66개를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분하기 위하여 실시한 1차 전문가조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하여, 우선 안전분야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4】 젠더폭력 안전 분야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안전 분야 | 가중치 | 순위 |
|----------------|--------|----|
| 젠더폭력 안전 | 0.3869 | 1 |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 0.2123 | 3 |
| 생활안전 | 0.1313 | 4 |
| 안전환경 | 0.2695 | 2 |

안전 분야별 가중치는, 젠더폭력 안전 분야에 대한 가중치가(0.386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안전환경 분야(0.2695),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0.2123), 생활안전 분야(0.131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젠더폭력 안전 분야의 지표들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전 분야별 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와 순위를 살펴보았다. 우선, 젠더폭력 안전 분야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젠더폭력 안전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지표명 | 가중치 | 순위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0.0458 | 1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0.0452 | 2 |
| 가정폭력 재범률 | 0.0449 | 3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0.0443 | 4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0.0442 | 5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0.0442 | 6 |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0.0442 | 7 |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0.0436 | 8 |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0.0435 | 9 |
| 성폭력 기소율 | 0.0435 | 10 |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0.0429 | 11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0.0428 | 12 |
| 디지털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건수 | 0.0427 | 13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0.0427 | 14 |
| 성희롱 신고건수 | 0.0413 | 15 |
| 스토킹 피해 건수 | 0.0413 | 16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0.0405 | 17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원 수 | 0.0405 | 18 |
| 성희롱 상담건수 | 0.0405 | 19 |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0.0404 | 20 |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0.0396 | 21 |
| 성매매 상담건수 | 0.0396 | 22 |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0.0332 | 23 |
| 자율방범대 참여자 | 0.0286 | 24 |

젠더폭력 안전 분야의 지표 중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0.0458)이며, 다음으로 성폭력 112 신고건수(0.0452), 가정폭력 재범률(0.0449),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0.0443),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0.0442) 순으로 나타났다.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가중치가 1위로 나타나 폭력발생의 현황 등 상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보다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자율방범대 참여자(0.0286),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0.0332)로서 공동체와 대표성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표 IV-6 】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지표명 | 가중치 | 순위 |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0760 | 1 |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0759 | 2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0759 | 3 |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0.0732 | 4 |
| 지역 대피소 인지 | 0.0732 | 5 |
| 자연재해 인명피해 | 0.0705 | 6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0.0702 | 7 |
| 화재 인명피해 | 0.0693 | 8 |
| 자연재해 이재민 | 0.0665 | 9 |
| 화재 이재민 | 0.0638 | 10 |
|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 0.0634 | 11 |
| 시민안전과수꾼 참여자 | 0.0570 | 12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0.0570 | 13 |
| 의용소방대 참여자 | 0.0552 | 14 |
| 시민안전과수꾼 강사(시민안전리더) | 0.0529 | 15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안전 분야의 지표 중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지표(0.0760)이며,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0.0759), 사회재난

에 대한 위험 체감도(0.0759)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교육에 참여자 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1위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시민안전파수꾼 강사(0.0529), 의용소방대 참여자(0.0552)로서 대표성과 공동체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생활안전 분야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IV-7 생활안전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지표명 | 가중치 | 순위 |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0.1253 | 1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0.1211 | 2 |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0.1166 | 3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1161 | 4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1141 | 5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0.1051 | 6 |
|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0.1049 | 7 |
| 가정내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건수 | 0.1006 | 8 |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0.0961 | 9 |

생활안전 분야의 지표 중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소화기 사용 가능자(0.1253)이며,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0.1211),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0.1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중치가 높은 순위의 지표들은 모두 공동체와 교육에의 참여지표에 해당한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생활안전의 예방활동에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 분야 지표의 통계생산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생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라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수도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0.0961)와 생활안전 위해 신고건수(0.1006)이다.

다음으로 안전환경 분야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표 IV-8 】 안전환경 분야 지표별 가중치 및 순위(1차 전문가 조사)

| 지표명 | 가중치 | 순위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0.0641 | 1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0.0640 | 2 |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자 | 0.0629 | 3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0.0619 | 4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0.0609 | 5 |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0.0598 | 6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0.0564 | 7 |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실적 | 0.0553 | 8 |
| 치안시설/방법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0.0552 | 9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0.0552 | 10 |
|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0.0543 | 11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0.0542 | 12 |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0.0509 | 13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0.0508 | 14 |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 0.0508 | 15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0.0505 | 16 |
| 주민 1만 명당 병상 수 | 0.0464 | 17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0.0464 | 18 |

안전환경 분야의 지표 중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야간보행위험도 인식(0.0641),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0.0640),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자(0.0629),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0.06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지표 중 가중치가 높은 순위는 인식 지표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공동체와 대표성 등의 참여지표에 해당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0.0464), 주민 1만명 당 병상 수(0.0464), 범죄예방디자인 개소수(0.0505) 등으로 인프라와 행정역량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2)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 구분

이처럼 도출된 안전 분야별 지표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과정

을 거쳐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분하였다. 첫째, 문항 수를 고려한 안전 분야별 가중치 평균 점수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분야별 지표수를 정하였다. 둘째, 중분류 지표에 대한 배치를 일부 고려하였다. 즉 특정 중분류에 높은 가중치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너무 몰려있거나, 특정 중분류에 높은 가중치의 지표가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 의도적으로 일부 재조정하였다. 일례로 안전환경 분야의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지표는 분야 내 순위가 13위로 낮았으나, 현황지표 내 지표가 없어 포함시켰다. 다른 현황지표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이유에서 선택하였다. 셋째, 유사한 지표인 경우 생산주기가 짧은 것으로 대체하였다.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는 생산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지표의 가중치와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대표지표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렇게 구성한 지표 구분의 최종안에 대하여 3명의 자문위원의 의견을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였다.¹⁹⁾

표 IV-9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

| | 대표지표 | 이슈지표 | 관리지표 | 전체지표 |
|-------------------|------|------|------|------|
| ① 젠더폭력 안전 분야 | 13 | 6 | 5 | 24 |
| ②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 분야 | 6 | - | 9 | 15 |
| ③ 생활안전 분야 | 4 | - | 5 | 9 |
| ④ 안전환경 분야 | 7 | - | 11 | 18 |
| 합계 | 30 | 6 | 30 | 66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대표지표는 서울시 젠더안전수준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아울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산출에 사용하게 되는 지표이다. 서울시 젠더안전 대표지표로 선정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자문 결과, 전반적인 지표 구분 및 세부 지표 선정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2명의 자문위원의 경우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에 비중을 다소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젠더폭력 안전 이외의 분야에 대한 이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젠더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1차 서면자문 시 다른 1명의 젠더폭력안전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젠더폭력 안전 분야에 지표를 1개 줄이고, 자연재해·사회재난 분야 지표를 1개 증가시켜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V-10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대표지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수 |
|---------------------------------|-----|---------------------|-----------------------|-----|
| 젠더 폭력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 13개 |
| | | | 가정폭력 재범률 | |
| | | | 성폭력112신고건수 | |
| | | | 성폭력 기소율 | |
| | | | 성희롱 신고건수 | |
| |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
| | | | 성매매 상담건수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 | | |
| 참여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 |
| 인식 | 체감도 | 젠더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 | |
| | 인지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 |
| 자연 재해 사회 재난 | 현황 | 발생 | 자연재해 인명피해 | 6개 |
| | | | 화재 인명피해 | |
| | 지원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 |
| | 참여 | 교육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
| | 인식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4개 |
| | 참여 | 공동체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
| 인식 | 체감도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 안전 환경 안전 환경 | 현황 | 발생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7개 |
| | | | 참여 | |
| | 공동체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 |
| | 인식 | 체감도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체감도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
| 행정역량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이슈지표는 현재 젠더안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거나 관심이 급증하거나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지표이다.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산출 후 감점이나 가점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젠더안전 이슈지표로 선정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이슈지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수 |
|----------|-----|-----|------------------|-----|
| 젠더 폭력 안전 | 현황 | 발생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6개 |
| | | | 스토킹 피해 건수 | |
| |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
| | | 지원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
| | | | 디지털성폭력 영상삭제 지원건수 |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관리지표는 서울시 젠더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점검하기 위한 지표이다. 서울시 젠더안전 관리지표로 선정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관리지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수 |
|------------------|-----|--------------------|--------------------------|-----|
| 젠더 폭력 안전 | 현황 |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원수 | 5개 |
| | | 참여 | 대표성 | |
| | 공동체 | | 자율방범대 참여자 | |
| | 인식 | 체감도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
| 인지 |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 |
| 자연 재해 · 사회 재난 안전 | 현황 | 발생 | 자연재해 이재민 | 9개 |
| | | | 화재 이재민 | |
| | | 지원 |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 |
| | 참여 | 대표성 | 시민안전과수꾼강사(시민안전리더) | |
| | | 공동체 | 시민안전과수꾼 참여자 | |
| |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
| | | 의용소방대 참여자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수 |
|-------------|-------|--------------------|--------------------------------------|-----|
| 생활 안전 | 인식 | 교육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5개 |
| | | 인지 | 지역대피소인지 | |
| | 현황 | 발생 | 가정내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건수 | |
| | | 지원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
| | 참여 | 공동체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
| 인식 | 인지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 |
| 안전 환경 | 현황 | 인프라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 11개 |
| |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
| |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
| | 참여 | 공동체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
| | 인식 | 체감도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
| | | 인지 | 치안시설/방법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
| |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
| | 행정 역량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 |
| | | | 주민1만명당 병상수 | |
|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 | | |

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가중치 산출

1) 조사 개요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중 대표지표로 도출된 30개 지표에 대하여 가중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는 2018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1차 전문가 조사와 같은 이메일 수집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참여자 또한 동일한 17명을 섭외하였으며 모두의 응답이 회수되었다.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방법론 또한 동일한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사용하였다.²⁰⁾

방법론 선택을 위하여 사전에 본 연구의 3명의 자문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

20)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 절의 1) 조사 및 분석 방법 참고.

을 수립하였다. 의사결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층화 분석(AHP)과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 중 결과적으로 후자를 선택하였다. 선택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표수가 많음에 따라 AHP를 사용한다면, 개별 지표가 아닌 중분류 기준의 현황, 발생, 교육, 체감도 등의 지표로서 비교하게 되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동일 중분류 내에 중요도가 상이한 여러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판단이 어렵고, 중요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예측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명확하게 의견제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확신도를 함께 반영하는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즉 젠더안전지표에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분야의 관련 선행연구나 관련 통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대표지표 가중치 조사 결과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30개에 대하여 도출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 IV-13 |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
| 젠더 폭력 안전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0.714 |
| | 가정폭력 재범률 | 0.952 |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0.714 |
| | 성폭력 기소율 | 0.952 |
| | 성희롱 신고건수 | 0.714 |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0.714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0.714 |
| | 성희롱 상담건수 | 0.714 |
| | 성매매 상담건수 | 0.714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0.952 |
|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0.952 |
| | 젠더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 0.952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0.952 |
| | 자연재해 사회재난 | 자연재해 인명피해 |
| 화재 인명피해 | | 0.705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 0.705 |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940 |
|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940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940 |
| 생활안전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710 |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0.947 |
|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0.947 |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0.947 |
| 안전환경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0.722 |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0.962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0.962 |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0.962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0.962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0.962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0.962 |

3) 대표지표 지표값 산출

이 절에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젠더안전 수준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중 2010년~2016년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화를 실시하였다. 둘째, 선별된 세부 지표를 표준화하여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하여 서로 다른 지표 간 단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셋째, 표준화된 지표 중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즉 값이 높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 이로써 값이 높을수록 여성이 더욱 안전하도록 구성하였다. 일례로 성폭력 112 신고건수, 상담건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 하였다. 최소값이 0이 되도록 조정하여 지표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했다.

(1) 서울시 대표지표 지표값(2010년-2016년)

연도별 대표지표에 대한 지표값 중 2010년부터 2016년 자료가 모두 있는 지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30개 중 11개 지표에 해당하는데, 젠더폭력안전 분야 지표가 7개로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지표가 2개, 안전환경 지표가 2개이다. 생활안전 분야 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대한 긴 기간 동안 많은 지표에 대한 지표값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지표가 사용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표자료원의 보완 후 보다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4】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0년-2016년)

| 구분 | 가정 폭력 재범률 | 성폭력 기소율 | 가정 폭력 상담 건수* | 성폭력 상담 건수* | 성희롱 상담 건수* | 성매매 상담 건수* | 상담소 및 보호 시설수* | 자연 재해 여성 인명 피해* | 화재 여성 인명 피해* | 소방 공무원 ** | 여성안전 대책예산* |
|------|-----------|---------|--------------|------------|------------|------------|---------------|-----------------|--------------|-----------|------------|
| 2010 | 25.8 | 45.07 | 5.877 | 2.323 | 0.010 | 0.546 | 0.009 | 0 | 0.007 | 1898.48 | 1044.24 |
| 2011 | 35.2 | 47.55 | 4.525 | 1.546 | 0.007 | 0.403 | 0.009 | 0.0013 | 0.006 | 1842.47 | 1,031.44 |
| 2012 | 35.5 | 51.06 | 4.642 | 1.903 | 0.008 | 0.486 | 0.009 | 0 | 0.01 | 1739.22 | 1,037.98 |
| 2013 | 11.6 | 43.31 | 5.07 | 1.349 | 0.009 | 0.725 | 0.008 | 0.0001 | 0.007 | 1562 | 1,223.30 |
| 2014 | 11.6 | 40.42 | 4.61 | 2.141 | 0.021 | 0.824 | 0.008 | 0 | 0.012 | 1513.82 | 1,202.17 |
| 2015 | 5.6 | 30.17 | 4.689 | 1.59 | 0.02 | 0.856 | 0.009 | 0 | 0.009 | 1469.53 | 1,830.72 |
| 2016 | 4.6 | 28.92 | 2.866 | 2.374 | 0.026 | 1.067 | 0.009 | 0 | 0.009 | 1456.1 | 1,952.21 |

* 인구 천명당 건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다음으로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 부호를 바꾼 지표는 가정폭력 재범률,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상담건수, 인명피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등이다.

【 표 IV-15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0년-2016년)

| 구분 | 가정 폭력 재범률 | 성폭력 기소율 | 가정 폭력 상담 건수 | 성폭력 상담 건수 | 성희롱 상담 건수 | 성매매 상담 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 재해 여성 인명 피해 | 화재 여성 인명 피해 | 소방 공무원* | 여성 안전 대책 예산 |
|------|-----------|---------|-------------|-----------|-----------|-----------|-----------|----------------|-------------|---------|-------------|
| 2010 | -0.541 | 0.489 | -1.404 | -1.070 | 0.577 | 0.658 | 0.586 | 0.411 | 0.759 | -1.406 | -0.734 |
| 2011 | -1.243 | 0.783 | 0.096 | 0.847 | 0.968 | 1.265 | 0.586 | -2.261 | 1.242 | -1.101 | -0.766 |
| 2012 | -1.265 | 1.197 | -0.034 | -0.033 | 0.837 | 0.913 | 0.586 | 0.411 | -0.690 | -0.539 | -0.749 |
| 2013 | 0.520 | 0.281 | -0.509 | 1.333 | 0.707 | -0.102 | -1.464 | 0.411 | 0.759 | 0.426 | -0.277 |
| 2014 | 0.520 | -0.060 | 0.001 | -0.621 | -0.856 | -0.522 | -1.464 | 0.206 | -1.656 | 0.688 | -0.331 |
| 2015 | 0.968 | -1.272 | -0.086 | 0.739 | -0.726 | -0.658 | 0.586 | 0.411 | -0.207 | 0.929 | 1.273 |
| 2016 | 1.042 | -1.419 | 1.937 | -1.195 | -1.507 | -1.554 | 0.586 | 0.411 | -0.207 | 1.002 | 1.583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다음 순서로,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 표 IV-16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0년-2016년)

| 구분 | 가정 폭력 재범률 | 성폭력 기소율 | 가정 폭력 상담 건수 | 성폭력 상담 건수 | 성희롱 상담 건수 | 성매매 상담 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 재해 인명 피해 (여성) | 화재 인명 피해 (여성) | 소방 공무원* | 여성 안전 대책 예산 |
|------|-----------|---------|-------------|-----------|-----------|-----------|-----------|------------------|---------------|---------|-------------|
| 2010 | -0.288 | 0.244 | -0.394 | -0.301 | 0.129 | 0.147 | 0.179 | 0.096 | 0.172 | -0.463 | -0.238 |
| 2011 | -0.661 | 0.390 | 0.027 | 0.238 | 0.217 | 0.282 | 0.179 | -0.527 | 0.282 | -0.363 | -0.248 |
| 2012 | -0.673 | 0.597 | -0.010 | -0.009 | 0.187 | 0.204 | 0.179 | 0.096 | -0.157 | -0.178 | -0.243 |
| 2013 | 0.277 | 0.140 | -0.143 | 0.374 | 0.158 | -0.023 | -0.447 | 0.096 | 0.172 | 0.140 | -0.090 |
| 2014 | 0.277 | -0.030 | 0.000 | -0.174 | -0.192 | -0.116 | -0.447 | 0.048 | -0.376 | 0.227 | -0.107 |
| 2015 | 0.515 | -0.634 | -0.024 | 0.208 | -0.162 | -0.147 | 0.179 | 0.096 | -0.047 | 0.306 | 0.413 |
| 2016 | 0.554 | -0.707 | 0.544 | -0.336 | -0.337 | -0.346 | 0.179 | 0.096 | -0.047 | 0.330 | 0.513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다음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 하였다. 그리고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위수로 전환하였다. 즉 총점이 높을수록 젠더안전 수준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표 IV-17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0년-2016년, 총점)

| 구분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2010 | -0.717 | 0.174 | 10.90 |
| 2011 | -0.185 | 0.706 | 44.34 |
| 2012 | -0.007 | 0.884 | 55.51 |
| 2013 | 0.655 | 1.546 | 97.03 |
| 2014 | -0.891 | 0.000 | 0.00 |
| 2015 | 0.702 | 1.593 | 100.00 |
| 2016 | 0.443 | 1.334 | 83.76 |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표지표 30개 중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11개 지표밖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산출된 서울시 젠더안전 지표값 총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의 주요한 특성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표 IV-18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0년-2016년, 특성별)

| 구분 | 총점(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 자연재해 사회재난 발생 | 지원·행정역량 |
|------|----------|---------|--------------|---------|
| 2010 | 10.90 | 11.66 | 100.00 | 11.18 |
| 2011 | 44.34 | 79.36 | 13.64 | 44.35 |
| 2012 | 55.51 | 65.42 | 44.65 | 100.00 |
| 2013 | 97.03 | 100.00 | 100.00 | 14.18 |
| 2014 | 0.00 | 27.82 | 0.00 | 0.00 |
| 2015 | 100.00 | 27.16 | 63.10 | 87.18 |
| 2016 | 83.76 | 0.00 | 63.10 | 94.37 |

(2) 서울시 대표지표 지표값(2015년-2017년)

연도별 대표지표에 대한 지표값 중 2015년부터 2017년 자료가 모두 있는 지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30개 중 9개 지표에 해당하는데, 젠더폭력안전 분야 지표가 3개,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지표가 3개, 생활안전 분야 지표 1개, 안전환경 지표가 2개이다. 앞서 2010년~2016년 자료에 비해 최근 2017년을 포함하면서 전체 분야의 지표가 포함된 지표값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지표가 다르게 구성되었으므로 앞의 지표값 결과치와 연결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 표 IV-19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5년-2017년)

| 구분 |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 성폭력 기소율 (%) | 자연재해 인명피해 (여성)* | 화재 인명피해 (여성)* |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 | 생활안전 인명피해 (여성)* | 여성안심 택배함 이용자수 | 여성안전 대책예산* |
|------|----------------------|--------------------|-------------------|-----------------------|---------------------|--------------------------|-----------------------|---------------------|---------------|
| 2015 | 4,393 | 5.6 | 30.17 | 0 | 0.009 | 16 | 0.68 | 259 | 1,830.72 |
| 2016 | 5,387 | 4.6 | 28.92 | 0 | 0.009 | 26,549 | 0.69 | 370 | 1,952.21 |
| 2017 | 5,596 | 5.6 | 33.45 | 0.0001 | 0.010 | 26,786 | 0.84 | 492 | 2,385.86 |

* 인구 천명당 수치임

다음으로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 부호를 바꾼 지표는 가정폭력 재범률, 가정폭력 신고건수, 인명피해 등이다.

【 표 IV-20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5년-2017년)

| 구분 |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 성폭력 기소율 (%) | 자연재해 인명피해 (여성)* | 화재 인명 피해 (여성)* |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 | 생활안전 여성인명 피해 * | 여성안심 택배함 이용자수 | 여성안전 대책 예산* |
|------|----------------------|--------------------|-------------------|-----------------------|----------------------|--------------------------|----------------------|---------------------|-------------------|
| 2015 | 1.139 | -0.577 | -0.289 | 0.577 | 0.577 | -1.154 | 1.008 | -0.984 | -0.773 |
| 2016 | -0.407 | 1.155 | -0.824 | 0.577 | 0.577 | 0.558 | -0.017 | -0.031 | -0.357 |
| 2017 | -0.732 | -0.577 | 1.113 | -1.155 | -1.155 | 0.596 | -0.991 | 1.015 | 1.129 |

* 인구 천명당 수치임

다음 순서로,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 표 IV-21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5년-2017년)

| 구분 |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 성폭력 기소율 (%) | 자연재해 여성인명 피해 | 화재여성 인명피해 |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 | 생활안전 여성인명 피해 | 여성안심 택배함 이용자수 | 여성안전 대책예산 |
|------|---------------------|--------------------|-------------------|--------------------|--------------|--------------------------|--------------------|---------------------|--------------|
| 2015 | 0.372 | -0.307 | -0.144 | 0.134 | 0.131 | -0.330 | 0.231 | -0.259 | -0.251 |
| 2016 | -0.133 | 0.615 | -0.411 | 0.134 | 0.131 | 0.159 | -0.004 | -0.008 | -0.116 |
| 2017 | -0.239 | -0.307 | 0.555 | -0.269 | -0.262 | 0.170 | -0.227 | 0.267 | 0.366 |

다음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하였다. 그리고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위수로 전환하였다. 즉 총점이 높을수록 젠더안전 수준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표 IV-22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5년-2017년, 총점)

| 구분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2015 | -0.422 | 0 | 0 |
| 2016 | 0.368 | 0.790 | 100 |
| 2017 | 0.054 | 0.476 | 60.27 |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표지표 30개 중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9개 지표밖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 위에서 산출된 총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표 IV-23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5년-2017년, 특성별)

| 구분 | 총점(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 참여·행정역량 |
|------|----------|---------|----------------------|---------|
| 2015 | 0 | 0 | 100 | 0 |
| 2016 | 100 | 100 | 81.28 | 53.23 |
| 2017 | 60.27 | 58.38 | 0 | 100 |

3. 지역 비교용 지표 가중치 산출

1) 조사 개요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로 도출된 30개 지표 중 지역 비교를 위한 지표 10개를 정하여 가중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10개의 지표는 각 분야에서 지역별 통계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지표는 대표지표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 대체하였다. 즉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지표는 2013년부터 생산되어 ‘가정폭력 검거건수’로 변경하였고, ‘성폭력 112 신고건수’는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회신 되지 않아 ‘성폭력 발생건수’로 변경하였다. 3차 전문가 조사는 2018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1,2차 전문가 조사와 같은 이메일 수집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방법론도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²¹⁾ 따라서 1, 2차와 마찬가지로 젠더안전지표 각각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조사항목으로 하였다.

조사참여자는 1, 2차 전문가 조사 참여자와 동일한 17명을 섭외하였으며, 지역 비교 임을 고려하여 지역의 젠더 및 안전 관련된 교수와 현장 활동가 3명을 추가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에 회수한 것은 17명이며, 전문가 조사 참여자 개요는 다음과 같다.

21)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 절의 1) 조사 및 분석 방법 참고

【표 IV-24】 3차 전문가 조사 참여자 개요

| 구분 | 주요분야 | 지역 |
|----|----------------------------|-----|
| A | 국책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지표 등 연구 | 서울 |
| B | 국책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지표 등 연구 | 서울 |
| C* | 국책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지표 등 연구 | 서울 |
| D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성인지통계 등 연구 | 전라도 |
| E | 전)지자체연구원 성인지지표등 연구 | 서울 |
| F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성평등지수 등 연구 | 대구 |
| G | 지자체연구원 여성·아동안전 등 연구 | 인천 |
| H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울산 |
| I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경기도 |
| J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충청도 |
| K | 지자체연구원 여성안전 분야 연구 | 제주 |
| L | 지자체연구원 재난안전정책 등 연구 | 경기도 |
| M | 여성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여성학전공, 교수 | 서울 |
| N | 여성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 |
| O* | 여성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 서울 |
| P* | 재난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 서울 |
| Q | 재난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 | 서울 |
| R | 젠더 및 안전 관련 활동, 00디자인학과 강사 | 전라도 |
| S | 젠더폭력 관련 NGO활동, 부대표 | 부산 |
| T | 성평등 관련 NGO활동, 정책센터 활동가 | 광주 |

* 응답이 회수되지 않음

2) 지역 비교용 지표 가중치 조사 결과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30개 중 10개 지표에 대하여 도출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 IV-25】 젠더안전지표 지역 비교용 지표의 가중치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
| 젠더 폭력 안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0.8679 |
| | 가정폭력 재범률 | 0.8971 |
| | 성폭력 발생건수 | 0.9111 |

| 대분류 | 지표명 | 가중치 |
|--------------|---------------------------------|--------|
| | 성폭력 기소율 | 0.8839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0.8393 |
| 자연재해 사회재난 | 자연재해 인명피해 | 0.7900 |
| | 화재 인명피해 | 0.7281 |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8498 |
| 생활안전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6040 |
| 안전환경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0.8177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0.7891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0.8038 |

3) 지역비교용 지표의 지표값 산출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지역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표지표 중 지역 통계가 생산되는 지표로서 6대 광역시 그리고 15개 시,도와 비교하였다.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지표값을 비교한 후, 두 번째로 서울시와 15개 시,도의 지표값을 비교하였으며, 세 번째로 서울시와 시지역(6대 광역시), 도지역(9개)을 범주화하여 비교하였다. 다만 지표값의 유무에 따라 6대 광역시와의 비교는 최근 2016년, 2017년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16개 시,도와의 비교 및 시지역, 도지역과의 비교에서는 2016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자료 제한 등으로 도시명은 익명처리 하였다.

(1) 서울시 및 6대 도시 지표값(2016년)

우선 연도별 대표지표에 대한 지표값 중 2016년 지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대표 지표 중 12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표 IV-26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6년)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가정폭력 발생건수 | 0.780 | 0.535 | 0.94 | 1.051 | 0.617 | 1.164 | 1.003 |
| 가정폭력 제벌률(%) | 4.6 | 1.2 | 1.8 | 2 | 1.7 | 4.8 | 3.3 |
| 성폭력 발생건수 | 0.84 | 0.487 | 0.482 | 0.721 | 0.582 | 0.515 | 0.443 |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성폭력 기소율 | 28.924 | 28.438 | 39.857 | 23.759 | 44.77 | 36.132 | 53.826 |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인구 10만명당) | 0.856 | 0.915 | 0.765 | 0.543 | 2.11 | 1.057 | 0.938 |
|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인구 1,000명당) | 0 | 0.000286 | 0 | 0 | 0 | 0 | 0.000853 |
| 화재 여성인명피해 (인구 1,000명당) | 0.0095 | 0.0143 | 0.0097 | 0.0133 | 0.0075 | 0.0112 | 0.0145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26.549 | 22.088 | 23.77 | 19.126 | 22.857 | 16.129 | 33.641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346 | 0.077 | 0.284 | 0.502 | 0.241 | 0.382 | 0.575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5.405 | 2.222 | 7.5 | 6.25 | 0 | 1.25 | 7.143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1456.102 | 1214.345 | 1143.376 | 1198.318 | 1222.308 | 1219.3 | 1284.013 |
| 여성안전대책예산 (인구 1,000명당) | 1952.214 | 850.675 | 660.64 | 555.951 | 996.915 | 780.307 | 893.727 |

다음으로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재범률, 발생건수, 인명피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표 IV-27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6년)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가정폭력 발생건수 | 0.38604 | 1.43692 | -0.30025 | -0.77636 | 1.08519 | -1.26106 | -0.57048 |
| 가정폭력 재범률(%) | -1.24735 | 1.07194 | 0.66266 | 0.52623 | 0.73087 | -1.38378 | -0.36056 |
| 성폭력 발생건수 | -1.76538 | 0.6447 | 0.67884 | -0.95291 | -0.0039 | 0.45354 | 0.94511 |
| 성폭력 기소율 | -0.72258 | -0.76875 | 0.31615 | -1.21329 | 0.78292 | -0.03776 | 1.64331 |
|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0.33761 | -0.22064 | -0.51803 | -0.95818 | 2.14861 | 0.0609 | -0.17504 |
| 자연재해 인명피해(여성)** | 0.50453 | -0.38227 | 0.50453 | 0.50453 | 0.50453 | 0.50453 | -2.14036 |
| 화재 인명피해(여성)** | 0.71729 | -1.06797 | 0.6429 | -0.69604 | 1.46115 | 0.08501 | -1.14235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55328 | -0.24353 | 0.0569 | -0.7726 | -0.10618 | -1.30791 | 1.82003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여성)** | -0.01291 | 1.60789 | 0.36066 | -0.95286 | 0.61974 | -0.22982 | -1.3927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0.37902 | -0.6681 | 1.06822 | 0.657 | -1.39907 | -0.98786 | 0.95078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2.06761 | 0.33729 | 1.04326 | 0.49672 | 0.25808 | 0.288 | -0.35574 |
| 여성안전대책예산** | 2.15128 | -0.22691 | -0.63719 | -0.86321 | 0.08882 | -0.37883 | -0.13396 |

* 인구 10만명당, **인구 1,000명당 수치임

다음 순서로,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표 IV-28】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6년)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가정폭력 발생건수 | 4.134 | 15.387 | -3.215 | -8.313 | 11.62 | -13.504 | -6.109 |
| 가정폭력 재범률 | -13.806 | 11.864 | 7.334 | 5.824 | 8.089 | -15.316 | -3.991 |
| 성폭력 발생건수 | -19.844 | 7.247 | 7.631 | -10.712 | -0.044 | 5.098 | 10.624 |
| 성폭력 기소율 | -7.881 | -8.384 | 3.448 | -13.232 | 8.539 | -0.412 | 17.922 |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3.496 | -2.285 | -5.365 | -9.923 | 22.25 | 0.631 | -1.813 |
| 자연재해 인명피해(여성) | 4.918 | -3.726 | 4.918 | 4.918 | 4.918 | 4.918 | -20.863 |
| 화재 인명피해(여성) | 6.444 | -9.595 | 5.776 | -6.253 | 13.127 | 0.764 | -10.263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5.801 | -2.554 | 0.597 | -8.101 | -1.113 | -13.714 | 19.084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여성) | -0.096 | 11.982 | 2.688 | -7.1 | 4.618 | -1.713 | -10.378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3.824 | -6.741 | 10.778 | 6.629 | -14.116 | -9.967 | 9.593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2.03 | 0.331 | 1.024 | 0.488 | 0.253 | 0.283 | -0.349 |
| 여성안전대책예산 | 21.335 | -2.25 | -6.319 | -8.561 | 0.881 | -3.757 | -1.329 |

다음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 하였다. 그리고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위수로 전환하였다. 즉 총점이 높을수록 젠더안전 수준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V-29】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총점)

| 구분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0.697 | 53.640 | 47.32 |
| A | 11.276 | 65.613 | 57.88 |
| B | 29.294 | 83.631 | 73.77 |
| C | -54.337 | 0.000 | 0.00 |
| D | 59.023 | 113.360 | 100.00 |

| 구분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E | -46.689 | 7.648 | 6.75 |
| F | 2.129 | 56.466 | 49.81 |

본 연구에서의 젠더안전지표는 지역별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젠더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로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의 젠더안전을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 위에서 산출된 지역별 총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표 IV-30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2016년, 특성별)

| 구분 | 총점(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47.32 | 0.00 | 82.24 | 100.00 |
| A | 57.88 | 96.81 | 62.59 | 25.07 |
| B | 73.77 | 80.17 | 85.53 | 52.43 |
| C | 0.00 | 16.71 | 51.53 | 13.58 |
| D | 100.00 | 100.00 | 100.00 | 66.75 |
| E | 6.75 | 20.22 | 70.87 | 0.00 |
| F | 49.81 | 85.13 | 0.00 | 99.52 |

(2) 서울시 및 6대 도시 지표값(2017년)

우선 연도별 대표지표에 대한 지표값 중 2017년 지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대표 지표 중 11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위의 2016년 지표 중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지표에 대한 2017년 통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2016년과 2017년의 지표값을 비교할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표 IV-31 】 서울시 및 6대 도시 2017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7년)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가정폭력 발생건수 | 0.682 | 0.469 | 0.726 | 0.852 | 0.609 | 1.063 | 0.845 |
| 가정폭력 재범률 (%) | 5.6 | 3.3 | 4.2 | 7.3 | 3.4 | 9.1 | 3.1 |
| 성폭력 발생건수 | 1.011 | 0.643 | 0.464 | 0.824 | 0.588 | 0.613 | 0.430 |
| 성폭력 기소율 | 33.446 | 36.357 | 42.310 | 23.464 | 44.050 | 45.495 | 42.420 |
|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0.923 | 0.893 | 0.808 | 0.543 | 1.913 | 1.265 | 1.030 |
| 자연재해 인명피해(여성)* | 0.0001 | 0 | 0 | 0 | 0 | 0 | 0 |
| 화재 인명피해(여성)* | 0.0104 | 0.0112 | 0.0069 | 0.0139 | 0.0109 | 0.0153 | 0.0172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26.786 | 26.316 | 16.000 | 28.902 | 18.182 | 22.944 | 11.034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여성) | 0.426 | 0.227 | 0.409 | 0.581 | 0.355 | 0.777 | 0.643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8.57143 | 2.22222 | 5.00000 | 17.14286 | 0.00000 | 3.70370 | 10.71429 |
| 여성안전대책예산* | 238.58586 | 95.99744 | 84.90258 | 62.61685 | 106.01406 | 88.71189 | 108.61130 |

* 인구 1,000명당 수치임, ** 인구 10만명당 수치임

다음으로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재범률, 발생건수, 인명피해)

【 표 IV-32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7년)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가정폭력 발생건수 | 0.351 | 1.460 | 0.122 | -0.534 | 0.731 | -1.632 | -0.497 |
| 가정폭력 재범률(%) | -0.198 | 0.798 | 0.408 | -0.934 | 0.754 | -1.713 | 0.884 |
| 성폭력 발생건수 | -1.757 | 0.051 | 0.930 | -0.838 | 0.321 | 0.198 | 1.097 |
| 성폭력 기소율 | 0.612 | 0.239 | -0.524 | 1.891 | -0.747 | -0.932 | -0.538 |
|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0.299 | -0.367 | -0.561 | -1.167 | 1.965 | 0.483 | -0.054 |
|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 -2.268 | 0.378 | 0.378 | 0.378 | 0.378 | 0.378 | 0.378 |
| 화재 여성인명피해 | 0.538 | 0.306 | 1.552 | -0.476 | 0.393 | -0.881 | -1.432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0.812 | 0.741 | -0.830 | 1.134 | -0.498 | 0.227 | -1.586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0.331 | 1.390 | 0.422 | -0.493 | 0.709 | -1.536 | -0.823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0.309 | -0.776 | -0.302 | 1.774 | -1.156 | -0.523 | 0.675 |
| 여성안전대책예산 | 2.191 | -0.275 | -0.467 | -0.853 | -0.102 | -0.401 | -0.092 |

다음 순서로,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표 IV-33】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7년)

| 구분 | 서울 | A | B | C | D | E | F |
|-----------------|---------|--------|--------|---------|---------|---------|---------|
| 가정폭력 발생건수 | 3.758 | 15.631 | 1.306 | -5.717 | 7.827 | -17.478 | -5.327 |
| 가정폭력 재발률(%) | -2.190 | 8.830 | 4.518 | -10.336 | 8.351 | -18.960 | 9.788 |
| 성폭력 발생건수 | -19.747 | 0.568 | 10.449 | -9.424 | 3.604 | 2.224 | 12.326 |
| 성폭력 기소율 | 6.673 | 2.604 | -5.716 | 20.626 | -8.149 | -10.168 | -5.870 |
| 상담소·보호시설수 | -3.092 | -3.802 | -5.815 | -12.089 | 20.349 | 5.006 | -0.558 |
| 자연재해 인명피해(여성) | -22.106 | 3.684 | 3.684 | 3.684 | 3.684 | 3.684 | 3.684 |
| 화재 인명피해(여성) | 4.833 | 2.751 | 13.942 | -4.276 | 3.532 | -7.919 | -12.864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8.516 | 7.766 | -8.705 | 11.895 | -5.221 | 2.382 | -16.633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여성) | 2.469 | 10.356 | 3.142 | -3.675 | 5.283 | -11.443 | -6.132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 3.115 | -7.833 | -3.043 | 17.894 | -11.664 | -5.278 | 6.810 |
| 여성안전대책예산 | 21.725 | -2.731 | -4.634 | -8.456 | -1.013 | -3.980 | -0.911 |

다음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하였다. 그리고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위수로 전환하였다.

【표 IV-34】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7년, 총점)

|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3.955 | 65.886 | 66.05 |
| A | 37.825 | 99.756 | 100.00 |
| B | 9.129 | 71.060 | 71.23 |
| C | 0.126 | 62.057 | 62.21 |
| D | 26.584 | 88.515 | 88.73 |
| E | -61.931 | 0.000 | 0.00 |
| F | -15.687 | 46.244 | 46.36 |

앞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의 젠더안전지표는 서울시 젠더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로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의 젠더안전을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 위에서 산출된 지역별 총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35】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7년)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66.05 | 45.65 | 2.40 | 100.00 |
| A | 100.00 | 100.00 | 89.09 | 29.73 |
| B | 71.23 | 76.29 | 100.00 | 0.00 |
| C | 62.21 | 54.89 | 31.31 | 59.93 |
| D | 88.73 | 77.78 | 77.31 | 46.98 |
| E | 0.00 | 0.00 | 0.00 | 38.74 |
| F | 46.36 | 76.79 | 1.00 | 20.78 |

(3) 서울시 및 15개 시·도 지표값

우선 연도별 대표지표에 대한 지표값 중 2016년 지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대표 지표 중 9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16개 시·도 자료 중 최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IV-36】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6년)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인명피해 (여성) | 화재인명 피해 (여성)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인명피해 (여성)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서울 | 0.780 | 4.600 | 0.840 | 0.856 | 0 | 0.0095 | 26.549 | 0.3464 | 1456.102 |
| A | 0.535 | 1.200 | 0.487 | 0.915 | 0.000286 | 0.0143 | 22.088 | 0.0766 | 1214.345 |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인명피해 (여성) | 화재인명 피해 (여성)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인명피해 (여성)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B | 0.940 | 1.800 | 0.482 | 0.765 | 0 | 0.0097 | 23.770 | 0.2842 | 1143.376 |
| C | 1.051 | 2.000 | 0.721 | 0.544 | 0 | 0.0133 | 19.126 | 0.5015 | 1198.318 |
| D | 0.617 | 1.700 | 0.582 | 2.110 | 0 | 0.0075 | 22.857 | 0.2409 | 1222.308 |
| E | 1.164 | 4.800 | 0.515 | 1.057 | 0 | 0.0112 | 16.129 | 0.3823 | 1219.300 |
| F | 1.003 | 3.300 | 0.443 | 0.938 | 0.000853 | 0.0145 | 33.641 | 0.5749 | 1284.013 |
| G | 1.143 | 5.300 | 0.537 | 0.818 | 0 | 0.0130 | 17.043 | 0.1012 | 1721.275 |
| H | 0.872 | 4.100 | 0.475 | 1.677 | 0 | 0.0181 | 17.737 | 0.1141 | 598.998 |
| I | 0.907 | 2.700 | 0.478 | 1.257 | 0 | 0.0075 | 15.169 | 0.3104 | 986.137 |
| J | 0.688 | 0.800 | 0.451 | 1.667 | 0 | 0.0081 | 18.075 | 0.4163 | 862.749 |
| K | 0.646 | 4.200 | 0.374 | 1.502 | 0 | 0.0080 | 13.023 | 0.1989 | 939.915 |
| L | 0.841 | 2.500 | 0.412 | 1.681 | 0 | 0.0210 | 9.508 | 0.1098 | 791.319 |
| M | 0.712 | 3.200 | 0.337 | 1.444 | 0 | 0.0152 | 14.199 | 0.1192 | 810.444 |
| N | 0.673 | 1.800 | 0.344 | 1.363 | 0 | 0.0119 | 19.345 | 0.0065 | 1065.321 |
| O | 1.228 | 4.000 | 0.842 | 2.026 | 0.001559 | 0.0171 | 16.327 | 0.9336 | 911.359 |

다음으로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 즉 재범률, 발생건수, 인명피해,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에 해당한다.

【표 IV-37】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6년)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성폭력 발생 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여성 인명피해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서울 | 0.388 | -1.154 | -2.051 | -0.923 | 0.250 | 0.335 | 1.296 | -0.219 | -1.346 |
| A | 1.541 | 1.298 | 0.212 | -0.797 | 0.250 | -3.722 | 0.526 | 0.926 | -0.447 |
| B | -0.365 | 0.865 | 0.244 | -1.117 | 0.250 | 0.329 | 0.817 | 0.045 | -0.193 |
| C | -0.887 | 0.721 | -1.288 | -1.589 | 0.250 | 0.220 | 0.015 | -0.877 | -0.390 |
| D | 1.155 | 0.937 | -0.397 | 1.752 | 0.250 | 0.396 | 0.659 | 0.229 | -0.476 |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성폭력 발생 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여성 인명피해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E | -1.419 | -1.298 | 0.032 | -0.494 | 0.250 | 0.284 | -0.502 | -0.371 | -0.465 |
| F | -0.661 | -0.216 | 0.494 | -0.748 | 0.250 | 0.183 | 2.520 | -1.189 | -0.697 |
| G | -1.320 | -1.658 | -0.109 | -1.004 | 0.250 | 0.229 | -0.344 | 0.822 | -2.264 |
| H | -0.045 | -0.793 | 0.288 | 0.828 | 0.250 | 0.074 | -0.224 | 0.767 | 1.759 |
| I | -0.209 | 0.216 | 0.269 | -0.068 | 0.250 | 0.396 | -0.667 | -0.066 | 0.371 |
| J | 0.821 | 1.586 | 0.442 | 0.807 | 0.250 | 0.378 | -0.166 | -0.516 | 0.813 |
| K | 1.019 | -0.865 | 0.936 | 0.455 | 0.250 | 0.381 | -1.038 | 0.407 | 0.537 |
| L | 0.101 | 0.360 | 0.692 | 0.837 | 0.250 | -0.014 | -1.644 | 0.785 | 1.070 |
| M | 0.708 | -0.144 | 1.173 | 0.331 | 0.250 | 0.162 | -0.835 | 0.745 | 1.001 |
| N | 0.892 | 0.865 | 1.128 | 0.158 | 0.250 | 0.262 | 0.053 | 1.224 | 0.087 |
| O | -1.720 | -0.721 | -2.064 | 1.573 | -3.750 | 0.104 | -0.468 | -2.711 | 0.639 |

다음 순서로,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 표 IV-38 】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6년)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 여성 인명피해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서울 | 4.158 | -12.767 | -23.056 | -9.560 | 2.437 | 3.014 | 13.591 | -1.632 | -1.321 |
| A | 16.505 | 14.363 | 2.378 | -8.257 | 2.437 | -33.435 | 5.521 | 6.901 | -0.439 |
| B | -3.906 | 9.575 | 2.738 | -11.571 | 2.437 | 2.959 | 8.564 | 0.335 | -0.189 |
| C | -9.500 | 7.979 | -14.482 | -16.453 | 2.437 | 1.976 | 0.162 | -6.537 | -0.382 |
| D | 12.372 | 10.373 | -4.467 | 18.143 | 2.437 | 3.559 | 6.912 | 1.705 | -0.467 |
| E | -15.195 | -14.363 | 0.360 | -5.120 | 2.437 | 2.549 | -5.260 | -2.767 | -0.456 |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가정폭력 재범률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 여성 인명피해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F | -7.081 | -2.394 | 5.548 | -7.749 | 2.437 | 1.648 | 26.422 | -8.859 | -0.684 |
| G | -14.136 | -18.353 | -1.225 | -10.400 | 2.437 | 2.058 | -3.607 | 6.123 | -2.223 |
| H | -0.479 | -8.777 | 3.242 | 8.577 | 2.437 | 0.665 | -2.351 | 5.715 | 1.727 |
| I | -2.243 | 2.394 | 3.026 | -0.701 | 2.437 | 3.559 | -6.997 | -0.493 | 0.364 |
| J | 8.794 | 17.555 | 4.972 | 8.356 | 2.437 | 3.396 | -1.740 | -3.843 | 0.799 |
| K | 10.911 | -9.575 | 10.519 | 4.711 | 2.437 | 3.423 | -10.880 | 3.033 | 0.527 |
| L | 1.084 | 3.990 | 7.782 | 8.665 | 2.437 | -0.126 | -17.239 | 5.851 | 1.050 |
| M | 7.585 | -1.596 | 13.185 | 3.430 | 2.437 | 1.457 | -8.752 | 5.554 | 0.983 |
| N | 9.550 | 9.575 | 12.681 | 1.640 | 2.437 | 2.358 | 0.558 | 9.118 | 0.086 |
| O | -18.420 | -7.979 | -23.200 | 16.287 | -36.553 | 0.938 | -4.902 | -20.203 | 0.627 |

다음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 하였다. 그리고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위수로 전환하였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특히 시지역과 도지역의 여러 특성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표 IV-39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총점)

| 구분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25.137 | 68.269 | 47.42 |
| A | 5.973 | 99.379 | 69.03 |
| B | 10.942 | 104.348 | 72.48 |
| C | -34.801 | 58.605 | 40.71 |
| D | 50.567 | 143.973 | 100.00 |
| E | -37.815 | 55.591 | 38.61 |
| F | 9.289 | 102.695 | 71.33 |
| G | -39.326 | 54.080 | 37.56 |
| H | 10.756 | 104.162 | 72.35 |

| 구분 | 총점(원점) | 총점(양수화) | 총점(백분위수) |
|----|---------|---------|----------|
| I | 1.346 | 94.752 | 65.81 |
| J | 40.725 | 134.131 | 93.16 |
| K | 15.106 | 108.512 | 75.37 |
| L | 13.492 | 106.898 | 74.25 |
| M | 24.282 | 117.688 | 81.74 |
| N | 48.003 | 141.409 | 98.22 |
| O | -93.406 | 0.000 | 0 |

시지역과 도지역의 여러 특성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IV-40】 서울시 및 15개 시·도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 구분 | 총점(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총점(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총점(백분위수) |
|----|----------|------------------|-------------------------------|---------------------|
| 서울 | 47.42 | 21.65 | 85.52 | 46.98 |
| A | 69.03 | 100.00 | 45.49 | 32.71 |
| B | 72.48 | 70.02 | 88.27 | 32.66 |
| C | 40.71 | 40.55 | 77.00 | 0.00 |
| D | 100.00 | 81.93 | 91.09 | 100.00 |
| E | 38.61 | 24.63 | 83.23 | 14.15 |
| F | 71.33 | 55.13 | 73.20 | 84.01 |
| G | 37.56 | 19.18 | 95.27 | 1.08 |
| H | 72.35 | 52.61 | 92.69 | 59.68 |
| I | 65.81 | 63.71 | 87.94 | 22.63 |
| J | 93.16 | 97.68 | 82.90 | 58.38 |
| K | 75.37 | 74.18 | 92.80 | 26.74 |
| L | 74.25 | 75.39 | 91.75 | 22.17 |
| M | 81.74 | 83.01 | 93.60 | 29.89 |
| N | 98.22 | 98.26 | 100 | 45.94 |
| O | 0 | 0.00 | 0 | 69.52 |

(4)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지표값

우선 연도별 대표지표에 대한 지표값 중 2016년 지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 중 8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시지역과 도지역의 여러 특성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범주화하여 살펴본 것이다. 통계 생산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최근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IV-41】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지표값(2016년)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인명 피해 (여성)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서울 | 0.7799 | 0.8400 | 0.008623 | 0 | 0.0095 | 26.549 | 0.3464 | 1456.102 |
| 6대 시 | 0.8518 | 0.5511 | 0.009597 | 0.001535 | 0.0121 | 23.413 | 0.3101 | 1203.832 |
| 9개 도 | 0.9319 | 0.4672 | 0.012033 | 0.000349 | 0.0129 | 16.173 | 0.1553 | 1107.644 |

다음으로 지표값에 대한 표준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음수와 양수의 부호를 바꾸었다. 즉 가정폭력과 성폭력 발생건수, 자연재해·화재·생활안전 사고 인명피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해당한다.

【표 IV-42】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표준화 값(2016년)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담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인명 피해 (여성)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서울 | 0.98154 | -1.12782 | -0.83198 | 0.78048 | 1.12509 | 0.84637 | -0.74688 | -1.1127 |
| 6대 시 | 0.03595 | 0.34941 | -0.27745 | -1.12722 | -0.33753 | 0.25707 | -0.38921 | 0.2891 |
| 9개 도 | -1.01749 | 0.77841 | 1.10943 | 0.34674 | -0.78756 | -1.10344 | 1.13609 | 0.8236 |

다음 순서로, 표준화된 각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총점을 합산하였다. 가중치는 전문가조사에 따른 지표의 중요도에 기초하며,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

로 나눈값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되, 편차가 높을수록 낮아지도록 구성하였다.

【표 IV-43】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가중치 부여(2016년)

| 구분 | 가정폭력 발생건수 | 성폭력 발생건수 | 상당소 및 시설수 | 자연재해 여성 인명피해 | 화재여성 인명피해 | 안전교육 참여자 | 생활안전 피해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
| 서울 | 10.511 | -12.678 | -8.616 | 7.608 | 10.108 | 8.875 | -5.566 | -1.092 |
| 6대 시 | 0.385 | 3.928 | -2.873 | -10.988 | -3.032 | 2.696 | -2.900 | 0.284 |
| 9개 도 | -10.895 | 8.750 | 11.489 | 3.380 | -7.075 | -11.570 | 8.466 | 0.809 |

다음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세부 지표의 값을 합산한 후 최소값을 더하여 양수화 하였다. 그리고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위수로 전환하였다.

【표 IV-44】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총점)

| 구분 | 합계 | 양수화 | 백분위 |
|------|---------|--------|--------|
| 서울 | 9.150 | 21.652 | 100.00 |
| 6대 시 | -12.502 | 0.000 | 0.00 |
| 9개 도 | 3.352 | 15.854 | 73.22 |

총점을 구성하는 지표의 특성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표 IV-45】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 특성별)

| 구분 | 총점 (백분위수) | 젠더폭력 발생 총점(백분위수)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백분위수) | 지원·참여·행정역량 (백분위수) |
|--------|-----------|------------------|--------------------------|-------------------|
| 서울 | 100.00 | 0 | 100 | 0.00 |
| 6대 시지역 | 0.00 | 100 | 0 | 60.19 |
| 9개 도지역 | 73.22 | 0.33 | 74.61 | 100.00 |

4.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분석

앞서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으로써 이 절에서는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분석하였다. 지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표가 많고 수집 가능한 최근 년도의 자료가 달라 분석 결과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 범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분석 개요

| 서울시 젠더안전수준 시계열 분석 | | 서울시와 지역 젠더안전수준 비교 | | | |
|---|--|--|--|--|--|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지역 비교용 지표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10년-2016년</p> <p>①11개 지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15년-2017년</p> <p>②9개 지표</p> </div> </div>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시 및 6대도시</p> <p>2016년</p> <p>③ 12개 지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시 및 15개 시, 도</p> <p>2017년</p> <p>④ 11개 지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시, 6개 시지역, 9개 도지역</p> <p>2016년</p> <p>⑤ 9개 지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시, 6개 시지역, 9개 도지역</p> <p>2016년</p> <p>⑥ 8개 지표</p> </div> </div> | | | |
| <p>①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 기소율, 가정폭력 상담건수, 성폭력 상담건수, 성희롱 상담건수, 성매매 상담건수, 상담소·보호시설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여성안전대책예산</p> | | <p>③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 발생건수, 성폭력 기소율, 상담소·보호시설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사고 여성인명피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여성안전대책예산</p> | | | |
| <p>②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 기소율,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 여성인명피해,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수, 여성안전대책 예산</p> | | <p>④ 위의 지표에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미포함</p> <p>⑤ 위의 지표에서 성폭력 기소율, 여성안전대책 예산 미포함</p> <p>⑥ 위의 지표에서 가정폭력 재범률 미포함</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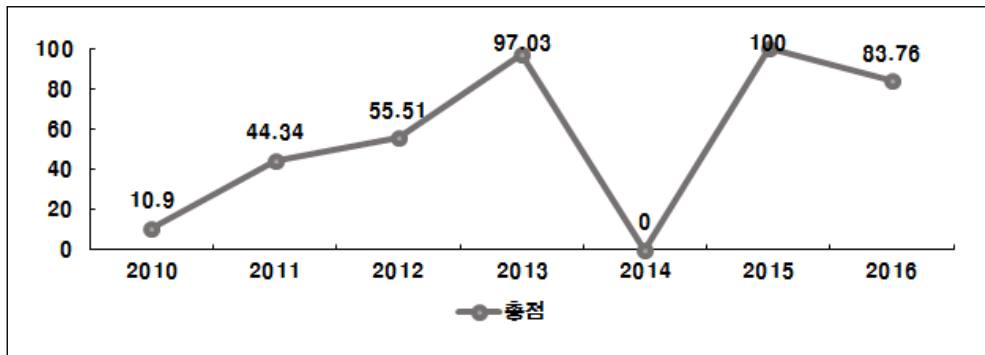
1)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시계열 분석

(1)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2010년-2016년)

서울시 젠더안전 대표지표값 총점으로 연도별 젠더안전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그림과 같이 2010년부터 2013까지 해마다 안전수준이 높아지다가 2014년 최저치로 낮아졌다. 이후 2015년에 가장 안전한 수준이 되었다가 2016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서울시 안전수준은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으나 2014년에 예외적으로 급감하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지표값은 대표지표 30개 중 11개 지표밖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²²⁾, 상대적으로 비교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0점에서 100점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한 수치임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그림 IV-2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0년-2016년, 총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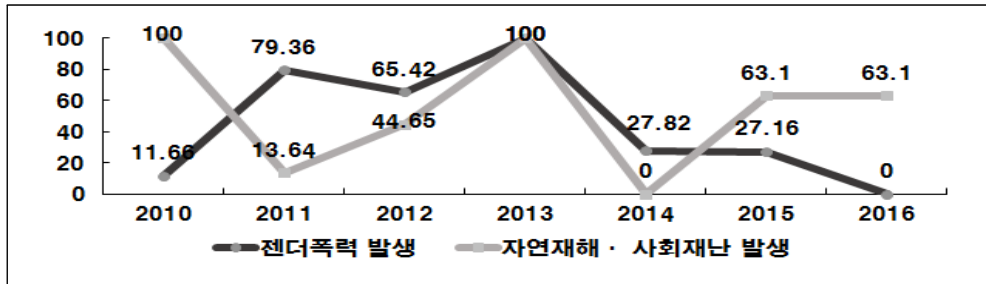
이러한 총점을 구성하는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젠더폭력 발생으로 볼 때, 2010년에 안전 수준이 낮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안전해지는 추이를 나타내어 2013년에 가장 안전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안전 수준이 낮아져 2016년에 가장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고, 성폭력 기소율이 2013년까지 증가하다

22) 가정폭력 제법률, 성폭력 기소율, 가정폭력 상담건수, 성폭력 상담건수, 성희롱 상담건수, 성매매 상담건수,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소방공무원, 여성안전대책예산

낮아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볼 때, 2011년과 2014년의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자연재해와 2014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라 할 수 있다.

■ 그림 IV-3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0년-2016년, 위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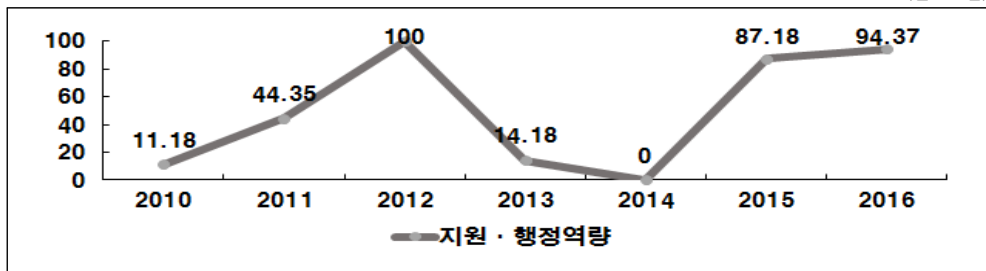
(단위: 점)



한편 지원과 행정역량 지표 점수로 볼 때, 다음 그림과 같이 2010년부터 점수가 상승하여 2012년에 가장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2013년과 2014년에 상당히 점수가 낮아졌다가 2015년과 2016년에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해마다 줄고 여성안전대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인구에 대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수는 2013년과 2014년에 상대적으로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 그림 IV-4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0년-2016년, 지원·행정역량)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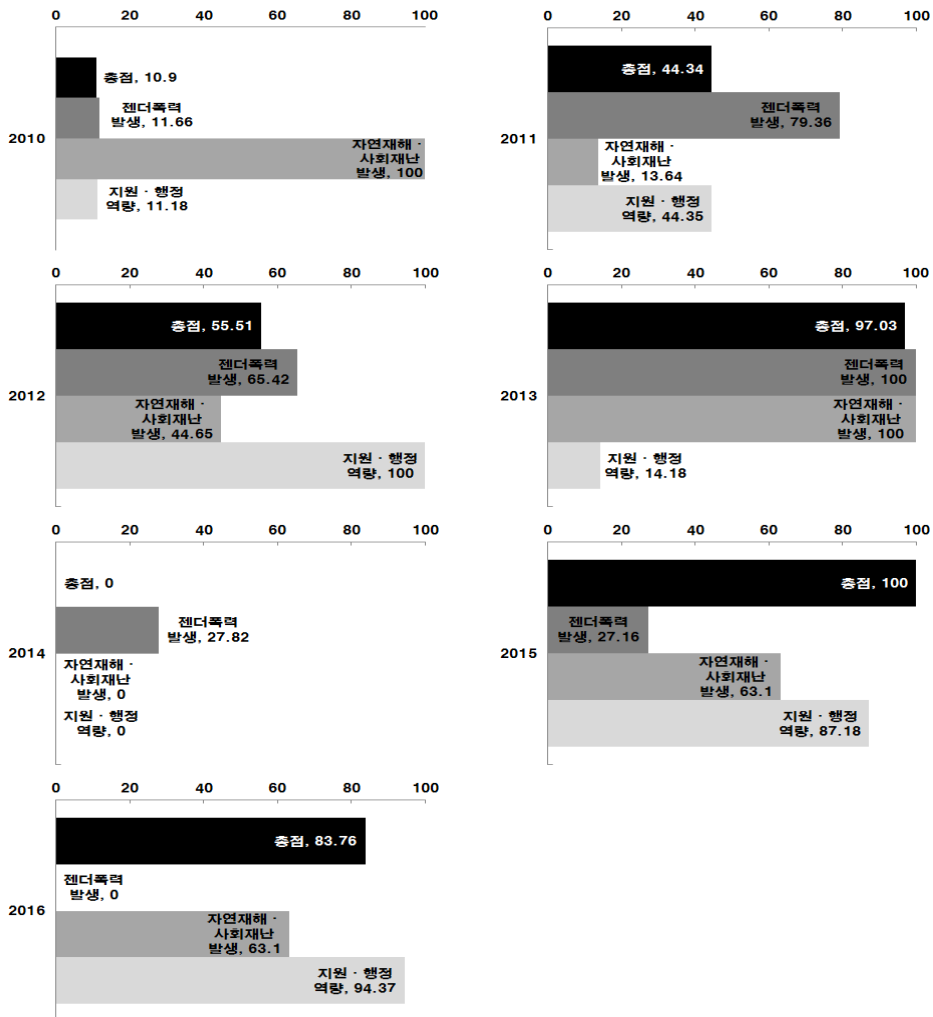


앞서 서울시 젠더안전수준을 지표특성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 발생을 확인하는 수치와 지원, 행정역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인하는 수치가 상당히 다른 시계열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각 연도에 따라 확인해 보

았으며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총점이 가장 낮은 2014년을 보면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안전 수준이 낮은 편이며,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과 지원·행정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해였다. 반면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총점이 가장 높았던 2013년은 젠더폭력과 자연재해·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 수준이 높았으나, 지원·행정역량의 수준은 14점 정도에 그쳤다. 2016년 들어 젠더폭력과 관련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나, 지원·행정역량 수준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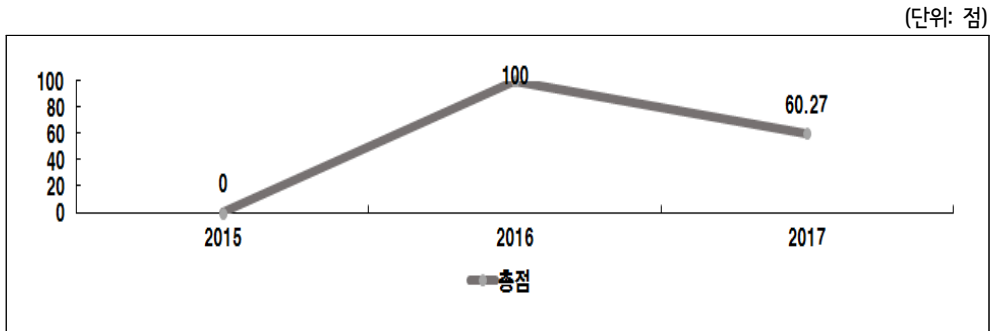
■ 그림 IV-5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 각 년도(2010년-2016년)



(2)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2015년-2017년)

서울시 젠더안전 대표지표값의 최근 총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의 2010년부터 2016년 비교와 별도로 2015년에서 2017년의 젠더안전수준을 분석하였다. 두 시기 비교에 사용한 지표는 다르기에 두 결과를 연결하여 비교하기는 어렵다. 분석 결과, 다음과 그림과 같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안전 수준이 높아졌으며, 2017년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진 결과를 보인다. 이때 지표값은 대표지표 30개 중 9개 지표밖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²³⁾ 상대적으로 비교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0점에서 100점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한 수치임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그림 IV-6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5년-2017년, 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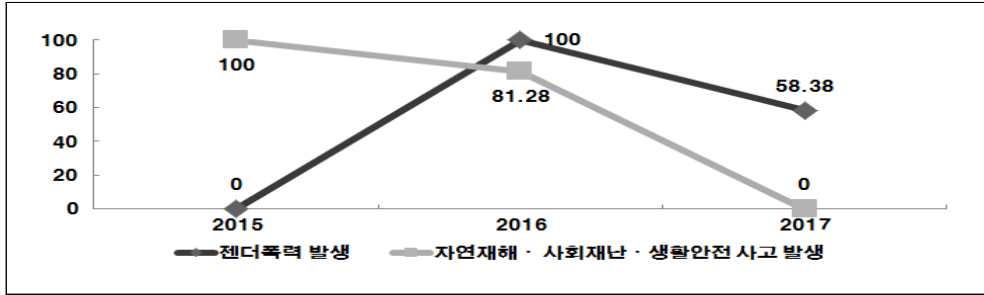


이러한 총점을 구성하는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참여·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젠더폭력 발생으로 볼 때, 총점과 같은 추이를 나타내는데 2015년에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2016년 안전 수준이 가장 높아졌다가 2017년에는 60점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 재범률과 성폭력 기소율의 등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볼 때, 2015년 이후 계속 안전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화재로 인한 여성인명피해와 생활안전 사고로 인한 여성 부상자 증가하는 이유이다.

23)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 기소율(%),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 여성인명피해,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수, 여성안전대책 예산

■ 그림 IV-7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5년-2017년, 위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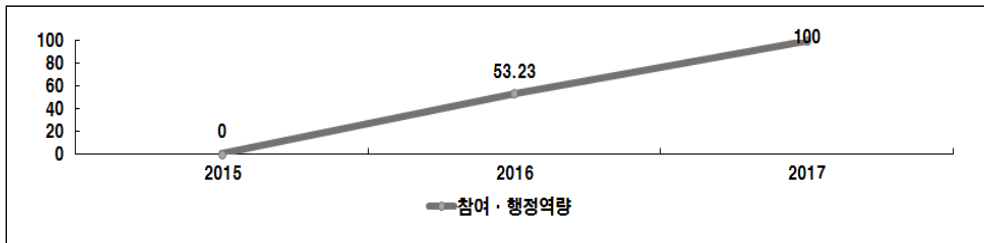
(단위: 점)



한편 참여와 행정역량 지표 점수로 볼 때, 다음 그림과 같이 2015년부터 점수가 상승하여 2017년에 가장 높은 안전 수준이었다. 재난안전 교육 여성참여자, 여성안심택 배합 이용자 수, 여성안전대책 예산 모두 해마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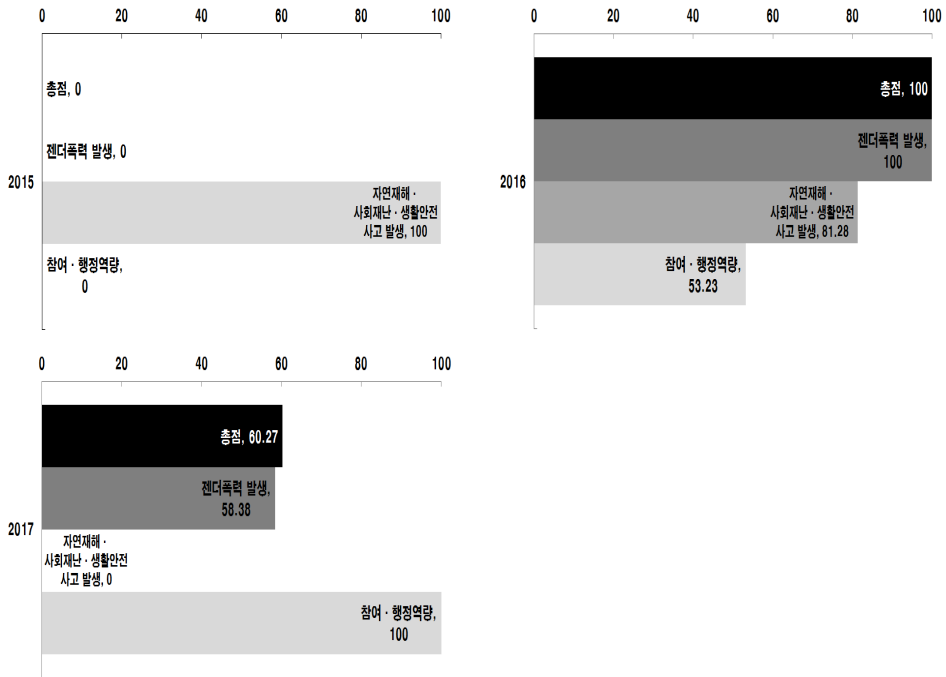
■ 그림 IV-8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2015년-2017년, 참여·행정역량)

(단위: 점)



앞서 서울시 젠더안전수준을 지표특성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을 확인하는 수치와 참여, 행정역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인하는 수치가 상당히 다른 시계열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각 연도에 따라 확인해 보았으며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총점이 가장 낮은 2015년을 보면 젠더폭력과 참여·행정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해였다. 반면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 총점이 가장 높았던 2016년은 젠더폭력과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안전 수준이 높았다. 가장 최근인 2017년은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와 관련한 안전 수준이 가장 낮고 젠더폭력과 관련한 안전 수준도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참여·행정역량수준은 해마다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IV-9 서울시 젠더안전지표값 각 년도(2015년-2017년)



2) 서울시, 6대 도시, 15개 시·도 젠더안전 수준 비교 분석

(1) 서울시 및 6대 도시 지표값(2016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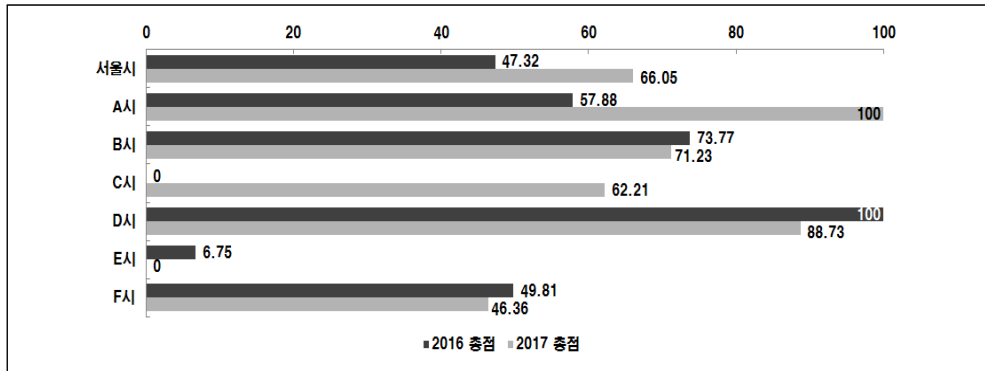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6대 도시와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경향을 확인하고자 젠더안전 대표지표값의 2016년 총점과 2017년 총점을 살펴본 결과, 두 시기 비교에 사용한 지표는 같으나²⁴⁾ 2017년도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지표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2016년 젠더안전 수준 총점은 서울시는 47점 정도였고 D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며, B시, A시가 그다음 순서였다. 2017년에 젠더안전 수준 총점은 서울 66점 정

24)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 재범률(%), 성폭력 발생건수, 성폭력 기소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인구 10만명당),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인구 천명당), 화재 여성인명피해(인구 천명당),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인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여성안전 대책예산(인구 1000명당)

도였고 A시가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D시, B시가 그 다음 순서였다. 점수는 0점에서 100점으로 백분위수로 전환한 수치임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해 모두 A, D, B 시의 안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IV-10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2017년, 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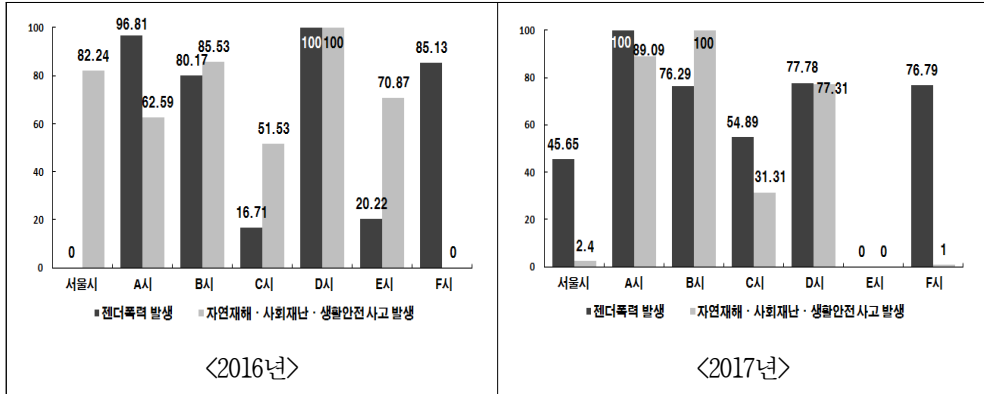
(단위: 점)



이러한 총점을 구성하는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젠더폭력 발생으로 볼 때, 2016년 서울시는 가장 안전하지 않으며, 2017년에도 E시에 이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 발생건수가 많으며, 성폭력 기소율이 낮은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볼 때, 2016년 서울시는 세 번째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안전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것은 다른 도시에 자연재해로 인한 여성의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 비해 서울에서는 1명이 발생한 이유가 크다.

그림 IV-11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2017년, 위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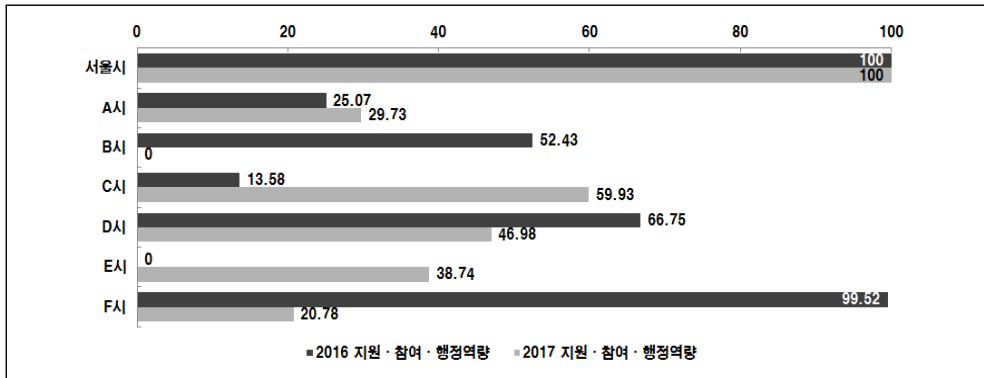
(단위: 점)



한편 지원, 참여, 행정역량 지표 점수로 볼 때, 다음 그림과 같이 서울시는 2016년, 2017년 모두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차원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제일 좋지 않은 성적이지만, 재난안전교육과 안전관리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은 높은 편이며 무엇보다 여성안전대책 예산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림 IV-12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2017년, 지원·참여·행정역량)

(단위: 점)



구체적 지표별로 서울시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전체 7개 도시 중 2016년 총점은 5위였고 2017년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젠더폭력 발생은 2016년 7위에서 6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는 2016년에 3위에서 2017년 오히려 5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지원·참여·행정역량과 같은 안전조치 부분에서는 서울이 두 해 모두 1순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지표 점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도시마다 가진 특성이나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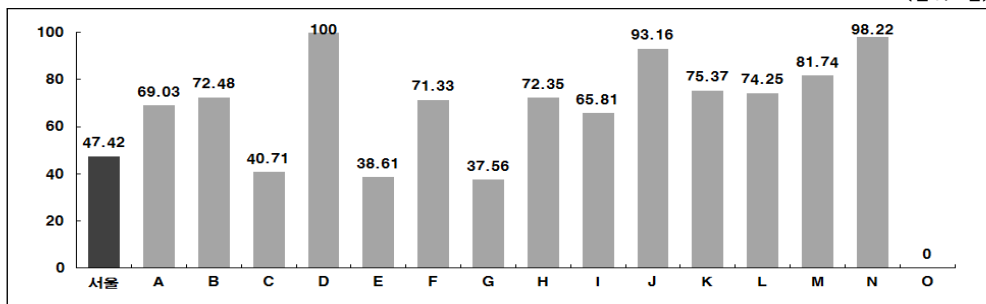
【 표 IV-46 】 서울시 및 6대 도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값 산출(2016년·2017년, 총점)
(단위: 순위)

| 구분 | 총점 | 젠더폭력 발생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 지원·참여·행정역량 |
|------|----|---------|----------------------|------------|
| 2016 | 5 | 7 | 3 | 1 |
| 2017 | 4 | 6 | 5 | 1 |

(2) 서울시 및 15개 도시 지표값(2016년)²⁵⁾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15개 도시와 비교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2016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다만 시지역과 도지역의 특성과 조건 등이 상당히 다르므로 해석을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는 서울시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서 경향만 살피고자 한다. 우선 2016년 총점을 살펴본 결과, 47점 정도로서 11순위에 해당하였다. D시가 가장 안전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N도, J도 순으로 안전한 순위가 나타났다.

【 그림 IV-13 】 서울시 및 15개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총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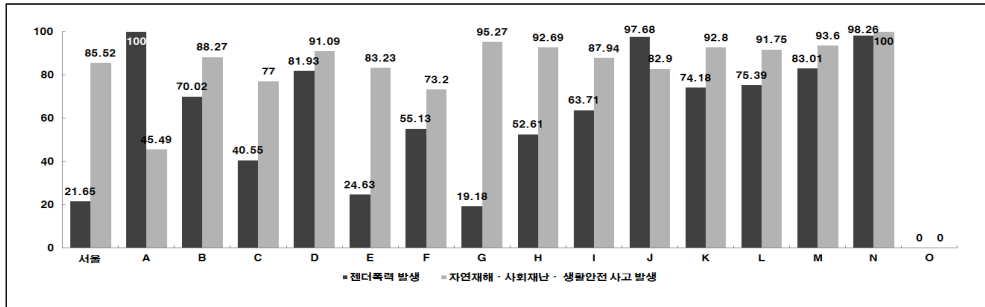
25) 가정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재범률, 성폭력발생건수, 상담소 및 시설 수, 자연재해여성인명피해, 화재 여성인명피해, 안전교육 참여자, 생활안전피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이러한 총점을 구성하는 젠더폭력 발생 지표 점수,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표 점수, 이 외에 지원과 행정역량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젠더폭력 발생으로 볼 때,

2016년 서울시는 21점 정도로서 다른 시, 도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14위에 해당하였다. 이는 특히 성폭력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서이다. 일례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서울시 4.6%인데 비해 가장 낮은 곳은 0.8%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볼 때, 2016년 서울시는 10위에 해당하였다. 이는 특히 생활안전 사고 여성의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 그림 IV-14 ■ 서울시 및 15개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위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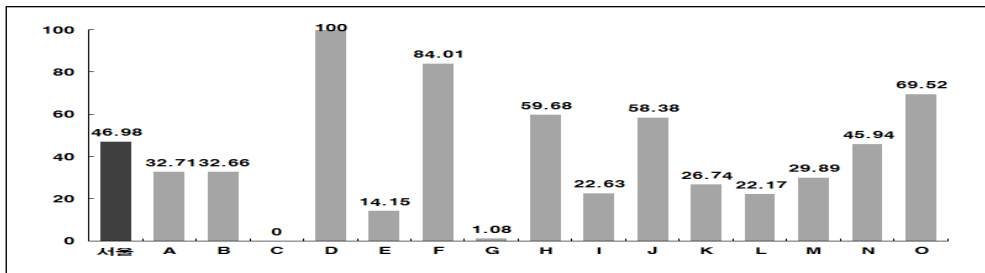
(단위: 점)



한편 지원, 참여, 행정역량 지표 점수로 볼 때, 다음 그림과 같이 서울시는 47점 정도로 6위에 해당하였다. 앞서 6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여성안전 관련 예산 지표가 포함되어 2016년, 2017년 모두 1위에 해당하였으나, 이번 15개 시,도 비교에서는 예산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순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IV-15 ■ 서울시 및 15개 도시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참여·행정역량)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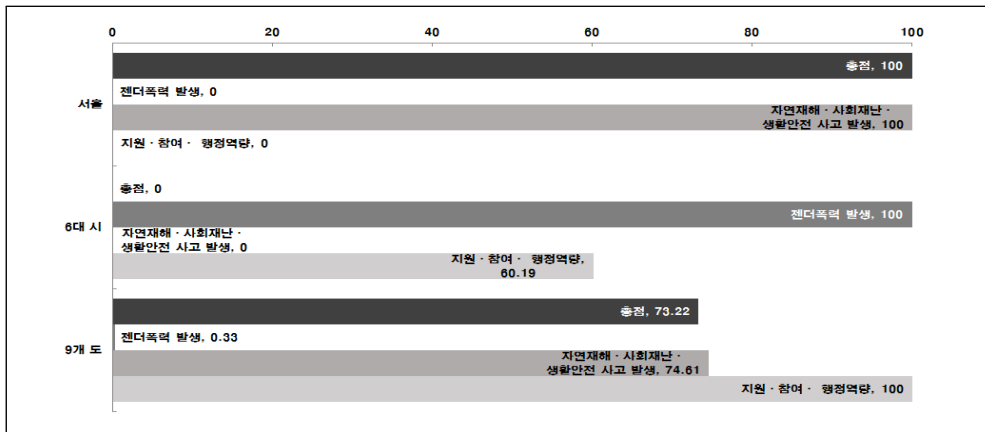
(3) 서울시 및 시지역, 도지역 지표값(2016년)

앞서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과 15개 시,도의 젠더안전 수준을 비교하였으나, 시지역과 도지역의 특성 및 조건 등은 상당히 다르므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젠더안전 총점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젠더폭력 발생과 지원·참여·행정역량은 가장 낮으며,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6개 시지역이 젠더폭력 발생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9개 도지역은 지원·참여·행정역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도지역은 성폭력 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이는 인구수 대비 수치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교통상황 등 함께 살펴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 그림 IV-16 ■ 서울, 6대 도시, 9개도 젠더안전지표값(2016년)

(단위: 점)



3) 시사점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한 후, 실제 젠더안전지수를 통해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점검해 보았다. 다만 대표지표 30개 중 9개, 11개만으로 지수화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우선 젠더안전지수 산출의 주

요한 목적인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6년 자료(11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최근 자료인 2017년 자료를 살펴보고자 별도로 2015년부터 2017년 자료(지표 9개)로써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6대 도시, 15개 도·시, 시지역 및 도지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것은 앞의 서울시 시계열적 확인보다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개발과 지수화 자체가 지역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아울러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6개 시, 9개 도지역은 각각 특성과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표로 비교하기에 부족한 점이 상당하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여 경향성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서울시 젠더안전지수의 시계열적 분석과 다른 시, 도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7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분석 주요 결과

| 구분 | 연도 | 주요 특징 | 원인 |
|--------------|---------------|--|---|
| 서울시 (시계열) | 2010 -2016 |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증감을 반복함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2013년 이후로 하향 추세이며 2016년 가장 낮은 수준 | 폭력 관련 상담건수 증가, 성폭력 기소율 2013년 이후 감소 |
| | |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수는 2011년, 2014년 감소폭이 큼 |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
| | | 참여행정역량 지수는 증감 후 2015년, 2016년 다시 상승 추이 | 상당소 및 보호시설수의 증감 |
| | 2015 -2017 |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2016년 가장 높고, 2017년은 하향 추이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총점과 유사한 추이 | 가정폭력 재범률과 성폭력 기소율의 등락 |
| | |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지수는 계속 하향 추이 | 화재 여성인명피해와 생활안전 사고 부상자 증가 |
| | | 참여행정역량 지수는 계속 상향 추이 | 재난안전 교육 참여자,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여성안전대책 예산 모두 해마다 증가 |

| 구분 | 연도 | 주요 특징 | 원인 |
|---------------------|------------|--|--|
| 서울시 및 6대도시 | 2016, 2017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2016년 5위, 2017년 4위에 해당함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2016년 가장 순위가 낮았고, 2017년 6위에 해당함 |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 발생건수가 많으며, 성폭력 기소율이 낮음 |
| |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수는 2016년 3위에서 2017년 5위로 낮아짐 | 2017년 자연재해 여성인명피해 발생 |
| | | 지원, 참여, 행정역량 지수 2016년, 2017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임 | 특히 여성안전대책 예산이 큼 |
| 서울시 및 15개 시, 도 | 2016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12위에 해당함 | - |
| | | 젠더폭력 발생 지수는 14위에 해당함 | 성폭력 발생건수가 많고, 가정폭력 재범률이 높음 |
| | |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수는 10위에 해당함 | 생활안전 사고 인명피해 높음 |
| | | 참여, 행정역량 지수는 6위에 해당함 | 여성안전예산 미포함 |
| 서울시, 6개 시지역, 9개 도지역 | 2016 | 서울시 젠더안전지수 총점은 가장 높으나 젠더폭력 발생과 지원·참여·행정역량 지수는 가장 낮으며, 반면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 지수는 가장 높은 점수 | |

이처럼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적용하여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다른 도, 시와의 비교함으로써,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젠더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시가 대도시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 연령층의 여성인구가 많다는 점 등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통계가 실제 발생건수를 나타내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해가 드러나는 장점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젠더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시, 도에 비해 높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재범률이 다른 시, 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성폭력 기소율이 낮은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기소율 하락에 대한 해석에 이견들이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최근 보수적인 사법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두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가 부여한 가중치가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고 성폭력 기소

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사회재난·생활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화재 여성인명피해와 생활안전 사고 여성 인명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점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우선시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참여·행정역량 등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특히 여성안전 대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시, 도에 비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도시안전 예산에서의 성인지예산이 고려되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앞서 밝힌 제한점들을 전제로 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적용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분석 결과로써 향후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표 통계 자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비롯하여 통계 생산의 한계 등으로 인한 지표의 적절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V절에 포함하였다.

V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관리방안

1. 지표 관리 방안
2. 통계 생산 방안
3. 향후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관리방안

1. 지표 관리 방안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2017년에 선행된 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구성을 잠정적으로 마무리 하고, 젠더안전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한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로써 서울시 젠더안전 수준의 시계열적 추이를 확인하고 다른 시, 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및 지수를 도출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젠더안전지표 및 지수는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젠더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확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국미애·장미혜·정재욱, 2017).

이처럼 다양한 지표 및 지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절에서는 통계 생산을 위한 방안, 관리 수행 주체 및 모니터링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통계 생산 방안은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시급하며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음 절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우선 다양한 활용 목적에 따른 수행 주체와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젠더안전지표의 활용 목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정책목표 수립 및 과제 개발과 정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부분이다. 정책목표 수립 및 과제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이다. 서울시 성평등

위원회에서 성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기반인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현황을 검토하고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촉진하며 부서 간 협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연계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국미애·장미혜·정재욱, 2017). 다시 말해 성별분리 통계 생산뿐만 아니라 젠더안전지표에 대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시키는 역할을 성평등위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젠더안전지표가 서울시의 성평등 목표와 같은 지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지표 내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행정상 지표의 통계 생산과 취합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마련이 중요하다. 젠더안전의 특성상 안전총괄본부와 여성정책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두 주체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시 내 관련 부서, 기관 등에 연 초에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성별분리 수집 여부 확인 및 취합 시스템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연 초에 이전 해의 생산 자료를 취합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장기적으로 각각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총괄본부와 여성정책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은 이러한 데이터 생산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젠더안전지표 관리의 두 주체의 통계 취합 및 관리 역할을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였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젠더폭력안전과 관련한 지표와 여성안전대책 예산 지표를 관리하고, 안전총괄본부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생활안전, 안전환경 관련 지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통계 생산 중인 지표에 한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이후 생산되는 지표도 지표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될 것이다. 통계 생산 기관으로부터의 지표 취합뿐만 아니라 지표의 개선사항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이때 생산기관 중 지자체의 경우 구체적인 담당 부서 등은 [부록5]에 기재하였다.

【 표 V-1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관리 주체

| 관리 주체 | 지표 | | 생산기관(통계) |
|-------------|---------------------------------|--|---|
| 여성가족 정책실 | 젠더폭력안전 관련 지표 | 폭력신고건수, 상담건수, 지원건수 등 |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서울통계, 1366,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
| | 안전환경 지표 | 여성안전대책 예산 | 서울시 |
| 안전총괄 본부 | 자연재해, 사회재난, 생활안전 관련 지표 | 인명피해,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구축,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심폐소생술 교육참여자, 심폐소생술 교육 가능자,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자율방범대 참여자, 재난재해사고현장 5분 내 도착률,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참여자,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 건수 및 조치건수 등 |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국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
| | 안전환경 지표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수,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자,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주민1만명당 병상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도시안전대책예산액 증감률 등 | 서울시, 행정안전부 |

다음으로 젠더안전지표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표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을 비롯하여 젠더안전지표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지표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며,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지표 및 자료원을 생산하는 역할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표 유형별로 점검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V-2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 구분 | 특성 | 지표수 | 주기 | 비고 |
|------|--|-----|-------------|-----------------------------|
| 대표지표 | 서울시 젠더안전수준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30개 | 매년 | - |
| 이슈지표 | 현재 젠더안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거나 관심이 급증하거나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지표 | 6개 | 1년 또는 2년 동안 | 상황에 따라 이후 대표지표나 관리지표로 전환 가능 |
| 관리지표 | 서울시 젠더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점검하기 위한 지표 | 30개 | 2년 또는 3년 | - |

마지막으로 젠더안전지표의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젠더안전지수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표 관련 통계가 생산 및 관리되고, 지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015년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는 재난통계(제39조), 안전지수 등 개발·보급(제41조) 등의 규정을 포함한 바 있다. 이 조례에 성인지적 관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는 재난과 안전 중심인데 비해 젠더안전은 폭력, 생활안전 등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므로 별도로 젠더안전지수의 개발, 보급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통계 생산 방안

앞서도 밝혔듯이 젠더안전지표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한 통계가 생산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절에서는 우선 현재 선정된 젠더안전지표(대표지표)에 대한 통계 생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의 젠더안전지표는 대부분 현재 사용한 가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표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이 지표에 적합한 통계 생산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이슈지표와 관리지표에 관한 내용은 [부록5] 참고).

【 표 V-3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통계 생산 현황

| 자료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최근 생산년도 | 비고 | |
|--|-------------------|--------------------------------|-----------------------|-----------|-----------|
| | | | | 시도 자료 | 자치구 자료 |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정보공개청구 | 경찰청 | 1년/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가정폭력 재범률 | 정보공개청구 | 경찰청 | 1년/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 1년/2015년 | × | × |
| 성폭력 기소율 | 정보공개청구 | 대검찰청 | 1년/2017년 | 지방 검찰청 | - |
| 성희롱 신고건수 |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 | 1년/2017년 | 소속 기관 | ×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1366, 상담소) | 1년/2016년 | 수집 가능 | 수집 가능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1366, 상담소) | 1년/2016년 | 수집 가능 | 수집 가능 |
| 성희롱 상담건수 | 「2018년 성인지 통계」 | 서울여성 노동자회 | 1년/2016년 | - | - |
| 성매매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1366, 상담소) | 1년/2016년 | 수집 가능 | 수집 가능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 트폭력/디지털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공공데이터청구 | 여성가족부 | 1년/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없음 | - | 2018년 부터 성 별 분리 가능 | - |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없음 | - | - | - |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없음 | - | - | - | - |
| 자연재해 인명피해 | 정보공개청구 | 행정안전부 | 1년/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화재 인명피해 | E-화재통계 | 소방청 | 1년/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청구 | 행정안전부 | 1년/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내부자료 | 국민방위재단 안전교육원 | 1년/2017년 | 16개 시도 | × |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소비자위해통계 (내부자료) | 소비자보호원 | 분기/2018년 | - | × |



| 자료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최근 생산년도 | 비고 | |
|---------------------------|----------------|--------|---------------------|----------|-------------------|
| | | | | 시도 자료 | 자치구 자료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 - | - | - | - |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지역사회건강 조사 | 질병관리본부 | 2년/2016년 | - | 수집 가능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행정자료 | 서울시 | 1년/2017년 | - | 수집 가능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행정자료 | 서울시 | 1년(임기 2년)/ 2018년 | - |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행정자료 | 서울시 | 1년(임기 2년)/ 2018년 | - | 수집 가능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없음 | - | - | - |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내고장 알리미 | 행정안전부 | 1년/2016년 | - | 2014년부터 광역만 공개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행정자료 (홈페이지) | 서울시 | 1년/2017년 | - | - |

위의 표와 같이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의 통계 생산 현황에 따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V-4 】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통계 보완사항 및 장기적 생산(안)

| 자료명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 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안) |
|------------------|----------|----------|----------|--|--|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 | 필요 | 필요 | 배우자 및 사 실혼 관계 폭 력 별도 수집 및 집계 필요 | 중복 신고건수 확인 필요 이후 발 생건수 및 암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필요. 연령대별, 성별, 관계 등에 따른 다 양한 층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를 제시하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표를 추가, 수정 고려할 필요 암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마련 |
| 가정폭력 재범률 | - | - | - | - | - |



| 자료명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 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안) |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 | 필요 | 필요 | - | 암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마련 |
| 성폭력 기소율 | - | - | - | 17개 시도별 분리 수집 및 집계 필요 | 기소율 증감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한 추가 지표 생산, 유죄판결율도 추가 |
| 성희롱 신고건수 | - | - | 필요 | 17개 시도별 분리 수집 및 집계 필요 |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국한됨, 관련 법 상의 성희롱 다양한 정의에 따른 지표 및 자료원 마련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추가 등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필요 | 필요 |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 | - | - |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 | 필요 | 필요 | 상담소에서 성희롱 별도 구분 수집·집계 | 고용노동부, 서울시(1366, 상담소) 등에서 관련 통계 생산 필요 |
| 성매매 상담건수 | - | 필요 | 필요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디지털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 | - | - | -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를 인구수에 따른 수치 외에 면적 등을 고려한 수치 적용.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에 따른 수치 적용 필요 |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 | - | - | - |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필요 | - | - | - |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필요 | - | - | - | - |
| 자연재해 인명피해 | - | - | - | - | 연령대별,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층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시하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표를 추가, 수정 고려할 필요 |
| 화재 인명피해 | - | - | - | - | 상동 |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 | - | - | - | - |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 | - | - | 상시적인 통계 제공 시스템 구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지역구분이 명확히 될 필요 이후 소방, 재난 등의 교육 차원에서 일반 시 |

| 자료명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 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안) |
|------------------------|-------|-------|-------|-------------------|--|
| | | | | | 민의 교육참여지(성별 구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통계 정비, 지표 추가 필요 |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필요 | - | - | - |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필요 | - | - |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 | - | - | 성별, 지역 등 미상 비율 감소 | 부상자에 대한 사항만 조사됨. 민원제기를 위한 신고건수이므로 다른 자료 수집 경로도 요구됨. 사망건수를 알기 위한 조치 필요 (예_병원이나 응급실자료 보완·공유 등). 연령대별,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층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시하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표를 추가, 수정 고려할 필요 자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필요 | - | - | - | - |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 | - | - | - | -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필요 | - | - | - | - |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 | 필요 | 필요 | - | -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 | - | - | - | - |
|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참여자 | - | - | - | - | 지역여성안전연대 지표의 추가하여 확인 필요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필요 | - | -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필요 | - | - | - |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 | - | - | - | 자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 | - | - | - | 향후 도시안전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 반영 필요 자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 생산의 보완 내용을 토대로 젠더안전지표 통계의 생산 방향을 몇 가지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안전 관련 조사에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것이다. 앞서 젠더안전지표 중 인식과 관련한 지표를 「서울서베이」에 추가하는 것으로 문항을 제시하였다. 기존 대규모 조사에 젠더안전지표 관련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타당한 지표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에 조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사들 중 데이터가 보다 대규모가 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관련 조사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성별을 추가 수집하거나 성별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젠더폭력과 관련된 항목들까지도 성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성별 구분의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고 발생 자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방, 대처, 사후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성별 구분된 자료가 수집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재난 이재민, 화재 이재민 현황, 젠더폭력 대응 교육 등이다. 사실 본 연구의 젠더안전지표는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활용 가능하지 않은 지표도 있었다. 성별 수집과 구분 통계 생산이 시스템화 되어 지표 사용이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존 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별도 조사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의 젠더안전지표 중에서도 별도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생활안전 분야와 같이, 주택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적영역이므로 개인의 책임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조사가 미흡한 분야에 관해 새로운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교육 등이 학교 및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층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듯이, 활동 공간에 따라 사고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향후 과제

이번 젠더안전지표 연구는 2016년, 2017년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이다. 1차 연구에서 이론적 검토 및 현실을 고려하여 젠더안전지표가 개발하였다. 그리고 2차 연구에서는 젠더안전지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지표를 적용하여 서울시의 안전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6대 도시와 시범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젠더안전지표 일부를 재조정하였고,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를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였다. 지표를 보다 객관화하여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 젠더안전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6대 도시, 15개 시,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서울시의 젠더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실제 지표 활용에서 한계점을 확인하여 통계 생산 및 활용에서 보완 방안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거나 보완될 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젠더안전지표로 서울시 내 자치구별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치구별 자료수집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제시한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 내 자치구마다 특성에 따라 지표 적용 결과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후 보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조사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사회현상을 적합하게 반영하는 데 있어 전문가조사와 같은 주관적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으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생산된 지표만으로 지수화하기에는 생산된 지표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표별 생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부록 5 참조), 이후 지표 생산이 활성화된다면 전문가조사 외에 통계적 방법으로 타당도를 병행하여 검증하는 시도를 제안한다.

셋째, 현재 지표 중 일부 지표는 점수화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 모호한 점이 있거

나 이견이 존재한다. 앞서 내용에서도 기술하고 있으나 폭력 신고나 발생건수, 상담건수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젠더폭력의 경우 암수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안전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안심택배함 이용자수와 같이 정책적 지원 지표도 안전을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재는 사용대상에 젠더적 구분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용자가 증가한다는 점은 보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석에 주의를 기하며 이러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전까지는 사용을 보류하여 지표수를 줄여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에서 젠더안전지표의 범위와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전 2차 연구에서도 정책연구와 지표개발이 상호 보완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생리대 부작용, 1인 가구 여성의 취약한 주거상태 등을 비롯하여 건강안전, 주거안전, 노동안전 등으로 젠더안전지표를 확장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젠더안전 지표 및 지수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건강 등 확장 필요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제 비교를 위한 부분도 지표로의 목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영·김한균·장다혜(2015),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안산시.
- 강은영·김한균·장다혜(2016), 『안산시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방안 연구』, 안산시.
- 강은영(2017), 『여성안전지표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희영·정소라(2016), 『젠더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국미애·장미혜·정재욱(2017), 『젠더안전지표 개발에 따른 실측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민정(2018), “통계의 정치: 숫자로 보는 ‘몰카’ 수사 그리고 해화역”,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정치> 발표자료. 2018.6.15.
- 김지선(2013),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13』, 통계청.
- 김보화·김신아·서승희·김여진·이효린(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특별시·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안상수·변화순·문미경·장미혜·강은영(2009),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변화순·장미혜·전기택·김승연(2010), 『여성·아동 안전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동선·이교원(2006), 『기초 퍼지 이론』, 교우사.
- 장미혜·박복순·노성훈·이훈·정지연(2015),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해식·정홍원·구혜란·김성근·김성아·우선희(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소연(2017),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2015~16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한국성폭력상담소.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gender safety indicator

Lee, Ho-Sun

(Researcher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Kim, Sang-Hee

(Researcher,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to elaborate and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gender safety indicators developed through the last two years. The main content is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among the gender safety indicators and calculate the gender safety index of Seoul by applying the weight to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afety level of women in Seoul and apply them to the policies for gender safety.

In this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ss. First,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gender safety indicators were selected, Second, the gender safety index of Seoul was calculated by weighting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Third, the gender safety index for regional comparison was calculated by weighting some representative indicators. In this process, we conducted three times expert surveys and used the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As the gender safety index of Seoul, which was calculated through the above process, we analyzed the gender safety level of Seoul city in a time series. And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regions are presented by applying some regional comparison indicator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confirm the time series and relative level of gender

safety in Seou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gender safety level in Seoul. For example, Compared to other regional averages, the rate of domestic violence recidivism in Seoul is somewhat higher and the rate of sexual violence is slightly lower. So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lower the recidivism rate for domestic violence and to increase the low indictment rate for sexual violence.

Finally,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for the continuous use of the gender safety index in Seoul, such as statistical production plan, the management performers and monitoring method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Keyword: gender safety, gender safety indicator, calculating the weight of indicator

[부록 1]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최종안)

□ 젠더폭력 안전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비고 |
|----------|---------------------------------|-----|------------------------|-----|
| 젠더 폭력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 112신고건수 | 대표 |
| | | | 가정폭력 재범율 | 대표 |
| | | | 성폭력 112신고건수 | 대표 |
| | | | 성폭력 기소율 | 대표 |
| | |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이슈* |
| | | | 스토킹 피해 건수* | 이슈* |
| |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이슈* |
| | | | 성희롱 신고건수 | 대표 |
| | |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대표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대표 |
| | | |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이슈* |
| |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이슈*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대표 |
| | | | 성매매 상담건수 | 대표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원수 | 관리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대표 | | |
| | 참여 | 대표성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관리 |
| | | 공동체 | 자율방범대 참여자 | 관리 |
| |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대표 |
| | 인식 | 체감도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인식 | 관리 |
|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대표 |
| | | 인지 | 젠더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정도 | 관리 |
| | | |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대표 |

□ 자연재해·사회재난 안전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비고 |
|-----------------------|-----|------------|-------------------|----|
| 자연 재해 /사회 재난 | 현황 | 발생 | 자연재해 인명피해 | 대표 |
| | | | 자연재해 이재민 | 관리 |
| | | | 화재 인명피해 | 대표 |
| | | | 화재 이재민 | 관리 |
| | | 지원 | 재난재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대표 |
| | | | 재난재해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 관리 |
| | 참여 | 대표성 | 시민안전과수꾼강사(시민안전리더) | 관리 |
| | | 공동체 | 시민안전과수꾼 참여자 | 관리 |
| |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관리 |
| | | | 의용소방대 참여자 | 관리 |
| | | 교육 | 재난안전교육 참여자 | 대표 |
| |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관리 | |
| | 인식 | 체감도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대표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 | 대표 | |

□ 생활안전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비고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가정내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건수 | 관리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대표 |
| | | 지원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관리 |
| | | |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관리 |
| | 참여 | 공동체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대표 |
| |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관리 |
|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대표 |
| | 인식 | 체감도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대표 |
| | | 인지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관리 |

□ 안전환경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비고 | |
|----------|----------|-----|---------------|-----------------------|----|
| 안전 환경 | 현황 | 인프라 | 여성안심지킴이집 개소 수 | 관리 | |
| |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관리 | |
| |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관리 | |
| | | 이용자 | | 여성안심택배함 이용자 수 | 대표 |
| | 참여 | 대표성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대표 |
| | | 공동체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실적 | 관리 |
| |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위원 | 대표 |
| | |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관리 |
| | 인식 | 체감도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체감도 | 대표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대표 |
| | | |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관리 |
| | | 인지 | | 치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관리 |
| | | | | 안전 위협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관리 |
| | 행정 역량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 대표 |
| | |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 관리 |
| | | | 주민1만명당 병상수 | 관리 | |
| | | |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관리 | |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대표 | |

[부록 2] 1차 전문가 조사지(대표지표 선정)²⁶⁾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1차 전문가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안전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척도를 마련하고자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젠더안전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이 지표 중 대표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 결과에 따라 대표지표, 이슈지표, 관리지표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 조사를 총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전문가 조사는 대표지표 선정을 위한 것이며, 2차 전문가 조사는 선정된 대표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붙임 1] 안내문

[붙임 2] 지표 관련 지역별 현황

조사기간 : 2018년 7월 18일(수) ~ 7월 23일(월)

문의 : 연구위원 *** (02-810-****), 연구지원 *** (****)

보내실 곳 : ****@seoulwomen.or.kr

26) [부록2], [부록3], [부록4] 전문가 조사지에서 제시한 통계 생산 가능성은 연구과정 초반에 확인한 것으로 이후 달라진 내용이 일부 존재함.

< 참고사항 >

※ 응답 전 읽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젠더안전지표 중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전에 미치는 영향력, 서울시의 여성안전 수준을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고려하여 주십시오.

- **현황 지표:**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안전 수준 개선, 성과나 목표를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함. 다만 지표 중 안전하지 못한 상황의 신고현황 지표의 경우 발생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며, 빈도 지표로서 심각성이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지원 현황 중 상담건수는 지원지표인 동시에 발생 현황을 나타내므로 많을수록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 **참여 지표:** 안전분야의 대표성, 공동체 활동, 교육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안전차원에서 여성이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여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참여의 질적인 면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인식 지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전현황과 인식의 간극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전정책 수행으로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도 있음.
- **행정역량지표:** 전반적인 사회안전 기반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지표임. 젠더안전에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2. 중요도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되, 지표 자료원의 활용가능성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 | |
|---------------------------------|------------|---|
| • 통계 생산 현재 가능 지표 | 장기적·안정적 생산 | ◎ |
| | 최근·안정적 생산 | ● |
| | 최근·비안정적 생산 | ■ |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높거나 성별분리집계 중인 지표 | | ○ |
| • 통계 생산이 단기적으로 용이한 지표(체감도·인식 등) | | △ |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은 지표 | | × |

2018년 서울시 센터안전지표

* 응답 전 안내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되, 지표 자료원의 활용가능성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지표마다 중요한 정도에 대하여 그리고 지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확신의 정도에 대하여 V나 O 표시를 해주십시오.(중요도와 확신도 모두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 대분류 | 구분 | | 지표 | 지표상세 | 자료원 | 해당 지표의 중요도 | | | | | 중요도 판단에 대한 확신도 | | |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 |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지 않다 | 매우 확신하다 | 확신하다 | 확신하지 않다 | 매우 확신하지 않다 | | | | |
| 참여 | 발생 | | 가정폭력112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서울통계 | ○ | | | | | | | | | | | |
| | | | 가정폭력 제발율 | ▶최근 6개월 이내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유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제발율 | 경찰통계연보 | ○ | | | | | | | | | | | |
| | | | 성폭력112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서울통계 | ○ | | | | | | | | | | | |
| | | | 성폭력 기소율 |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 중 기소된 피의자 비율 | 범죄분석 | ○ | | | | | | | | | | | |
| | | | 테이트폭력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경찰청(내부자료) | ■ | | | | | | | | | | | |
| | | | 스트링 피해 건수 | ▶인구 1,000명당 경범죄(지속적 괴롭힘)건수 | 경찰청(내부자료) | ■ | | | | | | | | | | | |
| | 현황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 ○ | | | | | | | | | | | |
| | | | 성희롱 신고건수 |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 ○ | | | | | | | | | | | |
| |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 | | | | | | | | |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 | | | | | | | | | |
| | | | 테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 | | | | | | | | | |
| | | | 디지털성폭력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지원 상담건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내부자료) | ● | | | | | | | | | | | |
| 인식 | 센터 폭력 안전 | 지원 | ▶피해자 영상상세 지원건수 | 상동 | ● | | | | | | | | | | |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1386 상담통계 | ○ | | | | | | | | | | | | |
| | | 성매매 상담건수 | ▶인구 1,000명당 상담건수 | 서울통계 | ○ | | | | | | | | | |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상담건수 대비 상담원 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 | | | | | | | | | |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 | ▶인구 1,000명당 개소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 | | | | | | | | | | | | |
| | | 대표성 인정마을 프로그램 리더 | ▶인정마을프로그램 참여자 중 리더의 여성비율 | 행정자료 | ○ | | | | | | | | | | | | |
| 인식 | 인식 | 공동체 자율방범대 참여자 | ▶자율방범대 참여자의 여성비율 | 경찰통계연보 | ○ | | | | | | | | | | | | |
| | | 교육 참여자 | ▶교육 의무대상 고위직의 남성 비율 대비 고위직 교육 참여자의 남성 비율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 | | | | | | | | | | | | |
| | | 체감도 | ▶갈거리(대중교통에서의 괴롭힘) 위험도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인기 | ▶젠디폭력상담소에 대한 여성의 인식 대비 남성의 인식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인기 | ▶지원기관 인지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인기 | ▶성고의지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통계생산이 현재 가능함. 지표: 장기적, 안경적 생산 ○, 최근, 안경적 생산 ●, 최근, 비안경적생산 ■
 * 통계생산이 불가능함. 지표: 장기적, 안경적 생산 ○, 최근, 안경적 생산 ●, 최근, 비안경적생산 ■
 * 통계생산이 단기적으로(2019년 예상) 용이한 지표(대부분 체감도, 인식), △ : 통계생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은 지표 X

| 대분류 | 구분 | | 지표 | 지표상식 | 자료원 | 통계 생산 방식 여부 | 해당 지표의 중요도 | | | | | 중요도 판단에 대한 확인도 | | | |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 | | | 매우 중요 하다 | 중요 하다 | 보통 이다 | 중요 하지 않다 | 매우 중요 하지 않다 | 매우 확실 하다 | 확실히 하다 | 보통 이다 | 보통 이하 | 불확실 하다 | 매우 불확실 하다 |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가정 내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 건수 | ▶ 인구 1,000명당 소비자보호원 위해(부상, 질환 등) 신고자의 여성 비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통계 | ○ | | | | | | | | | | | | |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 인구 1,000명당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여성 비율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 지원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 인구 1,000명당상담건수(소비자보호원상담건수)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 | 취약기구 무상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 무상 안전점검 대상 취약기구 대비 안전점검건수 및 조치건수 | 행정자료 | ○ | | | | | | | | | | | | | |
| | 참여 | 공동체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소화기사용가능자의여성비율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 | ▶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자의 여성비율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 ◎ | | | | | | | | | | | | | |
| | |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 인구 1,000명당 교육 참여자의 여성비율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 ◎ | | | | | | | | | | | | | |
| | 인식 | 채감도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채감도 | ▶ 위험 채감도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 | 인지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신규조사 | △ | | | | | | | | | | | | | |

※ · 통계생산이 현재 가능한 지표: 장기적 · 안정적 생산 ◎, 최근 · 안정적 생산 ○, 최근 · 비안정적생산 ■
· 통계 생산이 단기적으로(2019년 예상) 용이한 지표(대부분 채감도 · 인지): △
· 통계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별분리집계 중인 지표: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은 지표: ×

| 대분류 | 중분류 | | 지표 | | 지표상식 | 통계 생산 여부 | 해당 지표의 중요도 | | | | | 중요도 판단에 대한 확신도 | | | | |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 | 지표 | |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 보통이다 |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지 않다 | 매우 확신하다 | 보통 확신하다 | 불확실하다 | 매우 불확실하다 | | | | | |
| 안전 환경 | 현황 | 인프라 | 여성안심저렴이집 개소 수 | ▶여성안심저렴이집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범죄예방디자인 개소 수 | ▶범죄예방디자인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참여 | 공통제 | 이용자 | 여성안심태백함 이용자 수 | ▶여성안심태백함 이용자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대표성 | 안전관리위원의 참여위원 | ▶참여위원의 여성 비율 | ○ | | | | | | | | | | | | | | |
| | |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원협의체 운영 실적 | ▶안전관리민원협의위원회의 회의 횟수 | ○ | | | | | | | | | | | | | | | |
| | 인식 | 인식 | 인식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원협의체 참여 | ▶안전관리민원협의위원회의 위원의 여성 비율 | ○ | | | | | | | | | | | | | | |
| | | | 인식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여성안심보안관 수 대비 점검 건물개소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인식 | 근린생활시설(중·중화장점 등) 위험 체감도 | ▶위험 체감도 | △ | | | | | | | | | | | | | | |
| | 인식 | 인식 | 인식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원협의체 참여 | ▶아동보호행위범도 인식 | △ | | | | | | | | | | | | | | |
| | | | 인식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원협의체 참여 | ▶도시간전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인식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원협의체 참여 | ▶척인방범시설 근접성 인지 | △ | | | | | | | | | | | | | | |
| | 행정 역량 | 행정 역량 | 행정 역량 | 안전 위험 환경에 대한 신고의지 정도 | ▶신고의지 | △ | | | | | | | | | | | | | | |
| | | | 행정 역량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인구 대비 소방공무원 수 | ◎ | | | | | | | | | | | | | | |
| | | | 행정 역량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인구 대비 구조구급대원 수 | ◎ | | | | | | | | | | | | | | |
| 인도별 증단 | 인도별 증단 | 인도별 증단 | 주민 1만 명당 병상 수 | ▶인구 10,000명당 병상 수 | ◎ | | | | | | | | | | | | | | | |
| | | 인도별 증단 | 도시안전예산에 증감을 | ▶인구 대비 도시안전예산액 증감율 | ◎ | | | | | | | | | | | | | | | |
| | | 인도별 증단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을 | ▶인구 대비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 ○ | | | | | | | | | | | | | | | |

※ · 통계생산이 현재 가능한 지표: 장기적 · 안정적 생산 ◎, 최근 · 안정적 생산 ◐, 최근 · 비안정적생산 ◑
· 통계 생산이 단기적으로(2019년 예산) 용이한 지표(대부분 체감도 · 인식): △
· 통계 생산이 단기적으로(2019년 예산) 용이한 지표(대부분 체감도 · 인식):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높거나 성별분리집계 중인 지표: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은 지표: ×

[부록 3] 2차 전문가 조사지(대표지표 중요도)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2차 전문가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안전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척도를 마련하고자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젠더안전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차 전문가조사를 통해 30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선정된 대표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 [붙임 1] 안내문

[붙임 2] 지표 관련 지역별 현황

조사기간 : 2018년 7월 18일(수) ~ 7월 23일(월)

문의 : 연구위원 ***(02-810-****), 연구지원 ***(****)

보내실 곳 : ****@seoulwomen.or.kr

< 참고사항 >

※ 응답 전 읽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젠더안전지표 중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전에 미치는 영향력, 서울시의 여성안전 수준을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고려하여 주십시오.

- **현황 지표:**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안전 수준 개선, 성과나 목표를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함. 다만 지표 중 안전하지 못한 상황의 신고현황 지표의 경우 발생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며, 빈도 지표로서 심각성이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지원 현황 중 상담건수는 지원지표인 동시에 발생 현황을 나타내므로 많을수록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 **참여 지표:** 안전분야의 대표성, 공동체 활동, 교육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안전 차원에서 여성이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여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참여의 질적인 면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인식 지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전현황과 인식의 간극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전정책 수행으로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도 있음.
- **행정역량지표:** 전반적인 사회안전 기반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지표임. 젠더안전에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2. 중요도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되, 지표 자료원의 활용가능성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 | |
|---------------------------------|------------|---|
| • 통계 생산 현재 가능 지표 | 장기적·안정적 생산 | ◎ |
| | 최근·안정적 생산 | ● |
| | 최근·비안정적 생산 | ■ |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높거나 성별분리집계 중인 지표 | | ○ |
| • 통계 생산이 단기적으로 용이한 지표(체감도·인식 등) | | △ |
| • 통계 생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은 지표 | | × |

[부록 4] 3차 전문가 조사지(지역 비교용 지표 중요도)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3차 전문가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안전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척도를 마련하고자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젠더안전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차 전문가조사를 통해 30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선정된 대표지표에 가중치를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서울시와 지역별 젠더안전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에 대하여 가중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 [붙임 1] 안내문

[붙임 2] 지표 관련 지역별 현황

- 조사기간: 2018년 9월 11일(화) ~ 14일(금)
- 문의: 연구위원 *** (02-810-****), 위촉연구원 *** (****)
- 보내실 곳: ***@seoulwomen.or.kr

< 참고사항 >

※ 응답 전 읽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전문가조사지의 지역별 비교용 지표는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대표지표 중 일부로서,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또는 6대 광역시의 통계자료가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본 지표는 별도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서울시와의 안전수준을 확인하는데 있어 참고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젠더안전지표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에 대하여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 서울시와 다른 지역(15개 시,도 또는 5대 광역시)과의 여성안전 수준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주십시오.
3. 중요도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되, [붙임 2] 지표 자료원의 특성과 지역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서울시 젠더안전지표(지역 비교용 지표) * 응답 전 안내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며, 지표 자료원의 활용가능성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12개의 지표마다 중요한 정도, 지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확신의 정도에 대하여 V나 O 표시를 해주십시오. (중요도와 확신도 모두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 장기적, 안정적 생산 ○, 지표 점의상 불충분하지만 장기적, 안정적 생산 △

| 대분류 | 구분 | | 지표상식 | 자료원 | 해당 지표의 중요도 | | | | | | 중요도 판단에 대한 확신도 | |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 | 지표상식 | 통계 생산 여부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 보통이다 |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지 않다 | 매우 확신하다 | 중요 확신하다 | 보통 확신하다 | 불확실하다 | 매우 불확실하다 |
| | | | | | | | ⑤ | ④ | ③ | ② | ① | ⑤ | ④ | ③ | ② | ① |
| 젠더 폭력 안전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 발생건수 | ▶ 인구 1,000명당 검거건수 | 경찰청 | ○ | | | | | | | | | | |
| | | | 가정폭력 재범률 | ▶ 최근 5년 이내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의 재범율 | 경찰청 | ○ | | | | | | | | | | |
| | | | 성폭력 발생건수 | ▶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 | 경찰청 | ○ | | | | | | | | | | |
| | | | 성폭력 기소율 | ▶ 성폭력 범죄 처리 처리 인원 중 기소된 피의자 비율 | 대검찰청 | ○ | | | | | | | | | | |
| 자녀 피해 / 사회 재난 | 현황 | 발생 | 가정폭력·성폭력·상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 | ▶ 인구 100,000명당 개소수 | 여성가족부 | ○ | | | | | | | | | | |
| | | | 자녀제해 인명피해 | ▶ 사망자 및 부상자의 여성 비율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화재 인명피해 | ▶ 사망자 및 부상자의 여성 비율 | 소방청 | ○ | | | | | | | | | | |
| | | | 교육 | ▶ 교육 참여자의 여성 비율 | 국가민방위계단 안전교육원 | ○ | | | | | | | | | | |
| 생활 안전 | 현황 | 발생 | 생활안전 사고 인명피해 | ▶ 주택 내 부상자의 여성 비율 | 한국소비자원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의 여성 비율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행정여량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내고장알리미 | ○ | | | | | | | | | | |
| | | | 간접지표 | ▶ 여성안전대책 예산 비율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부록 5] 서울시 젠더안전지표 통계 생산 현황, 보완사항 및 장기적 생산(안)

□ 대표지표

| 지표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 최근생산 년도 | 비교 |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 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안) |
|---------------|----------------|-------------------------------|-------------------|-----------|-----------|----------|----------|----------|-----------------------------------|--|
| | | | | 시도 구분 | 지치구 자료 | | | | | |
|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 | 정보공개청구 | 경찰청 | 1년/ 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 필요 | 필요 | 배우자 및 사실흘 관계 폭력 별 도 수집 및 집계 필요 | 중복 신고건수 확인 필요. 이후 발생건수 및 암수율을 확 인할 수 있는 지표 필요 |
| 가정폭력 제발율 | 정보공개청구 | 경찰청 | 1년/ 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 - | - | - | 연령대별, 성별, 관계 등에 따른 다양한 증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시하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표를 추가, 수정 고려할 필요. 암수율을 확인할 수 있 는 지표 마련 |
| 성폭력 112 신고건수 |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 1년/ 2015년 | × | × | - | 필요 | 필요 | - | 암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마련 |
| 성폭력 기소율 | 정보공개청구 | 대검찰청 | 1년/ 2017년 | 지방 검찰청 | - | - | - | - | 17개 시도별 분리 수집 및 집계 필요 | 기소율 증감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한 추가 지표 생산, 유권판결률 추가 |
| 성희롱 신고건수 | 행정자료 | 고용노동부 | 1년/ 2017년 | 소속 기관 | × | - | - | 필요 | 17개 시도별 분리 수집 및 집계 필요 |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국한됨, 관련 법 상의 성희롱 다 양한 정의에 따른 지표 및 자료원 마련 방안 필요. 국가 인권위원회 자료 추가 등 |
| 가정폭력 피해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여성정 책담당관 (1366, 상담소) | 1년/ 2016년 | 수집 가능 | 수집 가능 | - | 필요 | 필요 | - | - |
|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여성정 책담당관 (1366, 상담소) | 1년/ 2016년 | 수집 가능 | 수집 가능 | - | - | - | - | - |
| 성희롱 상담건수 | 2018년 성인지통계 | 서울여성노동 자회 | 1년/ 2016년 | - | - | - | 필요 | 필요 | 상담소에서 성희롱 별도 구분 수집·집계 | 고용노동부, 서울시(1366, 상담소) 등에서 관련 통계 생 산 필요 |
| 성매매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여성정 | 1년/ | 수집 | 수집 | - | 필요 | 필요 | - | 성매매 발생건수도 추가될 필요 있음. 현재의 경우 단속 |

| 지표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 최근생년 년도 | 비교 |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 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인) |
|---|-------------------|-----------------------------------|-------------------------------|-----------------|----------------|----------|----------|-----------------------|--|---|
| | | | | 시도 구분 | 지치구 자료 | | | |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테 이트폭력/디지털폭력 상담 소 및 보호시설 수 | | 책임담당관 (1386, 상담소) 여성가족부 | 2016년 1년/ 2017년 | 가능 16개 시도 | 가능 수집 가능 | - | - | - | 에 의한 검거건수로는 불충분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를 인구수에 따른 수치 외에 면적 등을 고려한 수치 적용.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에 따른 수치 적용 필요 | |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 | 없음 | 여성가족부 | 2018년 부처 성별 분리 가능 | - | - | - | - | - | - | |
| 젠더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의지 정도 | 없음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 | - | |
| 자연재해 인명피해 | 정보공개청구 | 행정안전부 | 1년/ 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 - | - | 연령대별,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층위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통계를 제시하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표를 추가, 수정 고려할 필요 | |
| 회제 인명피해 | E-화재통계 | 소방청 | 1년/ 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 - | - | 상동 | |
| 재단제해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청구 | 행정안전부 | 1년/ 2017년 | 16개 시도 | 수집 가능 | - | - | - | - | |
| 재단안전교육 참여자 | 내부자료 | 국가민방위계 남안전교육원 (재단안전교육 과) | 1년/ 2017년 | 16개 시도 | x | - | - | 상시적인 통계 제공 시스템 구 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지역구분이 명확히 될 필요. 이후 소방, 재단 등의 교육 차원에서 일반 시민의 교육참여자 (성별 구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통계 정비, 지표 추 가 필요 | |
|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필요 | - | - | - | |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필요 | - | - | - | |
| 생활안전사고 인명피해 | 소미지위해통계 (내부자료) | 소미자보호원 (위해분석팀) | 분기 /2018년 | 16개 시도 | x | - | - | - | 성별, 지역 등 미상 비율 감소 저치구별 자료수집 필요 | 부상자에 대한 사항만 조사됨. 민원제기를 위한 신고건 수이므로 다른 자료 수집 경로도 요구됨. |

| 자료명 | 자료원 | 기관 | 주최/ 최근생년 년도 | 비고 |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 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인) |
|---------------------------|----------------|---------------------------------|----------------------------|----------|--------------------------|----------|----------|----------|---------------|---|
| | | | | 시도 구분 | 지치구 자료 | | | | | |
| | | | | | | | | | | 시방진수를 알기 위한 조치 필요(예_병원이나 응급실자 료 보완·공유 등) |
| 소화기 사용 가능자 | - | -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본부 | 2년/ 2016년 | - | 수집 가능 | - | - | - | - | -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여성안심태배함 이용자 수 | 행정자료 | 서울시 | 1년/ 2017년 | - | 수집 가능 | - | 필요 | 필요 | - | - |
| 안전관리위원회 참여위원 | 행정자료 | 서울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안전정책팀) | 1년 (임기 2년) /2018년 | 6개시 | - | - | - | - | - |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자 | 행정자료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1년 (임기 2년) /2018년 | - | 수집 가능 | - | - | - | - | 지역여성안전연대 지표의 추가하여 확인 필요 |
|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등) 위험 체감도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야간보행위험도 인식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 내고장알리미 | 행정안전부 | 1년/ 2016년 | - | 2014년 부터 광역단 공개 | - | - | - | 자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 |
| 여성안전대책 예산 증감율 (홈페이지) | 행정자료 (홈페이지) | 서울시 | 1년/ 2017년 | - | - | - | - | - | 자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향후 도시안전예산에 대한 상인지예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 반영 필요 |

□ 이슈지표

| 자료명 | 자료원 | 기관 | 주제/ 최근생산 년도 | 비고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인) |
|----------------------|--------------------|------------------------------|-------------------|--------------------|----------|----------|------|--------------------------------|--|
| 테이트폭력 신고건수 |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서울지방경찰청 | 1년/ 2017년 | - | - | - | - | - | - |
| 스토킹 피해 건수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 | - |
| 디지털성폭력 신고건수 |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서울지방경찰청 | 1년/ 2017년 | - | - | - | - |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에서 의 디지털성폭력 구분 | 카메라이용 촬영죄 등에 관해서는 지역 구분 필요하 나, 나머지의 경우 지역구분의 의미가 적어 서울 지 표로서 활용성이 낮음 |
| 테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 | 서울통계 | 서울시여성 정책담당관 (1366,상담소) | 1년/ 2017년 | - | - | - | - | - | 테이트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로 통계의 신뢰성 확 보 필요 |
| 디지털성폭력 상담건수 | 내부자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1년/ 2018년 | 2018년 5월부터 X | - | - | - | - | - |
| 디지털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건수 | 내부자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1년/ 2018년 | 2018년 5월부터 X | - | - | - | - | 지역구분에 의미가 적어 서울 지표로서 활용성이 낮 음 |

□ 관리지표

| 지표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최근 생산년도 | 비고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진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인) |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상담원 수 | 없음 | - | - | - | 필요 | - | - | 상담원수 지역별 집계 필요 | - |
| 안전마을 프로그램 리더 | 없음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 | - | | | | 프로그램 리더의 성격으로 경하 기에 모호한 점이 있어 지표 활 용 가능성 낮음 | - |
| 자율법원에 참여자 |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 1년/ 2018년 | - | - | - | - | - | - |
| 길거리/대중교통에서의 피탈취 위험도 인식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젠더폭력 관련 자원기관 인지 정도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자연재해 이계민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연령대별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증위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통계를 제시하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표 를 추가, 수정 할 필요 | - |
| 회계 이계민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 | 상동 |
| 재난재해 사고원장 5분 내 도착률 | 서울서페이 | 소방재난본부 | 1년/ 2016년 | - | - | - | - | 자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 |
| 시민안전과수관 감사 (시민안전리더) | 없음 | - | - | - | - | 필요 | 필요 | - | - |
| 시민안전마수관 참여자 | 없음 | - | - | - | - | - | 필요 | 성별 구분 수집 중이나 집계 상 문제로 비공개 | 수집 데이터 상시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참여자 | 행정자료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2년/ 2017년 | - | - | - | - | - | - |

| 자료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최근 생산년도 | 비고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인) |
|---------------------------|----------|-------------------------------|--------------------|-----------|----------|----------|------|------------------|--|
| 이용소방대 참여자 | 서울통계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1년/ 2016년 | - 수집가능 | - | - | - | - | - |
| 화재예방교육 참여자 | 없음 | 소방청 | 올해부터 성별 수집 중 | - | - | - | - | - | - |
| 지역 대피소 인지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 | - | - |
| 생활안전사고 위해 신고건수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 | - | 인명피해건수와 중복 성격임. 소비자보호원 외에 다양한 성격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 |
| 생활안전사고 상담건수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 | - | 소비자보호원은 신고건수 외에 상담건수는 생산하지 않고 있음. 그 외 상담 기구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지표 활용가능성이 낮음 |
| 취약가구 무상 안전점검 건수 및 조치건수 | 행정자료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1년/ 2017년 | - 수집가능 | - | 필요 | 필요 | - | 성별 수집은 되지 않고 있음. 가구수로 취합되고 있으나, 이후 가구주 등의 성별 구분 수집이 필요할 것임 |
| 심폐소생술 교육 가능자 |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본부 | 2년/ 2016년 | - 수집가능 | - | - | - | 성별*지역 교차 정보제공 필요 | - |
|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기관 인지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 | - | - |
| 여성안전감시킴이집 개소 수 | 행정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복지팀) | 1년/ 2017년 | - 수집가능 | - | - | - | - | - |
| 범퍼예방디자인 개소 수 | 행정자료 |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1년/ 2017년 | - 수집가능 | - | - | - | - | - |
|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 행정자료 | 서울시 | - / 2017년 | - | - | - | - | - | - |

| 자료명 | 자료원 | 기관 | 주기/최근 생산년도 | 비고 | 별도 조사 | 성별 수집 | 성별집계 | 기타 | 장기적 생산 (인) |
|----------------------------|----------------|-------------------------------------|----------------|------------------------|----------|----------|------|---------------|---|
|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실적 | |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기획팀) | 2017년 5월 출시 | | | | | |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행정자료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1년/ 2018년 | - | - | - | - | - | 민관협의체 운영은 조례로 횡수가 정해져 있어 지표로 서의 타당성이 낮음을 확인함. 지역여성안전연대 등의 자료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
|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건물개소 | 행정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기획팀) | - / 2017년 | 수집가능 | - | - | - | - | 이후에는 차발 건수 등도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 전반적 서울 안전에 대한 인식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차안시설/방범시설 근접성에 대한 인지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안전 위험 환경에 대한 신고 의지 정도 | 없음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 내고장알리미 | 행정안전부 | 1년/ 2016년 | 2014년부터 타 광역단 공개 | - | - | - | 차치구별 자료 수집 필요 | - |
| 주민1만명당 병상수 | 내고장알리미 | 행정안전부 | 1년/ 2016년 | 공개 | - | - | - | - | - |
| 도시안전대책예산액 증감율 |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 서울시 | 1년/ 2016년 | - | - | - | - | - | - |

2018 정책연구 - 12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이호선, 김상희
발행일 2018년 12월
인쇄처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SBN 979-11-87956-99-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